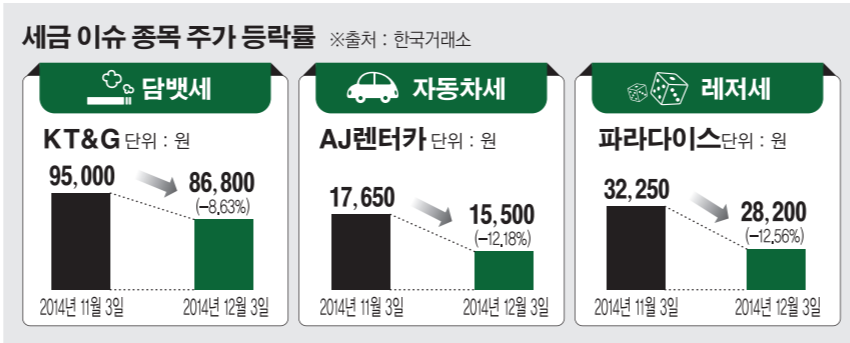


담뱃세·레저세... 증시 '税金 리스크'

KT&G 담뱃값 인상에 4% 급락...카지노株 52주 신저가
AJ렌터카도 하한가... 세수확대 정책 따라 업계는 '울상'

정부가 세수확대를 위한 각종 세금 도입에 나서면서 국내 증시가 출렁이고 있다. 담뱃세, 레저세, 자동차세 등 정부의 소평(?) 목록이 발표될 때마다 주가는 급락하고 있다. 특히 금리, 환율, 국제유가, 각종 상품가격 하락 등 대내외 변수로 증시가 답답한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정부를 향한 눈초리가 따갑다. 특히 증권업계가 요구한 거래세 인하는 제외된 반면, 강력하게 반대했던 과세 상품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주식거래 대금 감소로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데도, 오히려 투자를 위축시키는 과세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3편

지난 3일 KT&G 주가는 담뱃값 인상으로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4%대로 급락했다. 국회는 지난 2일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제조사의 출고가 인상 폭은 미미하고 수요는 줄어 담배 회사에는 부정적이다. 4일 노경철 아이엠투자증권 연구원은 "담뱃세는 기존보다 119.9% 오르지만 제조사 출고가는 4.6%만 증가한다"며 "담뱃값 인상이 오히려 급격한 수요 감소로 이어져 실적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2일 장중에는 렌터카 자동차세를 대폭 인상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AJ렌터카가 하한가까지 떨어졌다. 또 신용카드 사용이 소득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에 삼성카드가 3%대로 내리기도 했다. 레저세 도입 논의로 파라다이스 등 카지노주는 52주 신저가를 기록 중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세금은 증시에 민감한 이슈다. 말 한 마디에 기업 시총을 몇 백억원에서 몇 천억원까지 날릴 수 있

다"며 "기업들의 성장력이 과거보다 둔화하면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움직임이 유독 강해 보인다"고 말했다. 과세상품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도 투자업계에 부정적이다. 증권가에서는 "증시황화 정책이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송영록 기자 syr@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한번 적발돼도 지원자격 영구박탈... 신고포상금 2억 상향

정부가 사실상 연간 100조원을 넘어선 국고보조금을 수습대에 올렸다. '눈먼 나랏돈'이라는 오명을 쓴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험세가 새 것을 막기 위해서다. ▶관련기사 4편

정부는 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국고보조금을 단 한 번이라도 고의로 부정수급하면 보조사업 참여와 지원 자격이 영구 박탈되며 국가발주사업 입찰참가자격도 2년간 제한된다. 또 명단 공개와 함께 부정수급액 5배의 징벌적 과징금도 부과된다. 부정수급 비리가 심각한 사업은 폐지가 추진되며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적격성 심사제와 3년마다 지속 여부를 심사하는 일몰제 등이 도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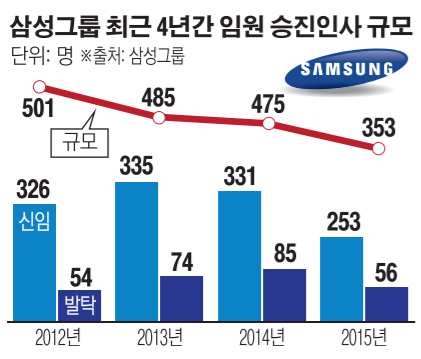
상금이 2억원으로 늘어나고 최대 20억원 한도 내의 보상금이 별도 지급된다. 아울러 보조사업자의 이력이나 재무상태 등에 대한 정보공시도 의무화되며 연간 1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민간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외부회계감사가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연간 1조원 이상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근본부터 도려 내겠다"며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통해 아낀 재정은 경기 회복의 마중물로 선순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새로운 유형의 민간투자 방식을 활용한 '창의적 재정정책'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 등에 민간 자본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 민간의 투자 위험을 줄이고자 일정 수준의 비용을 보전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유형의 투자방식을 만들기로 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컨트롤타워' 성격의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와 부처별 로 흩어져 있는 국고보조금 정보를 한 데 묶어 통합관리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진다. 신고포상제도도 강화돼 부정수급 신고 포

전민정 기자 puri21@



삼성 임원인사도 '안정 속에 변화'

353명 승진 5년만에 최소

삼성그룹이 최근 5년 이래 최소 수준의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올해 임원 승진 규모는 지난해보다 123명 줄어든 353명으로 확정됐다. 사장단 인사에 적용됐던 '안정 속 변화' 인사 원칙이 임원인사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그룹은 4일 부사장 42명, 전무 58명, 상무 253명 등 총 353명의 계열사별 2015년 정기 임원인사 명단을 발표했다. 승진은 최근 5년 이래 가장 적은 규모다. 삼성은 2009년 380명, 2010년 490명, 2011년 501명, 2012년 485명, 지난해 476명의 임원 승진자를 배출했다. 발탁인사 규모도 56명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해 발탁인사 규모는 2006년 이후 최대 규모인 86명이었다. 올해 발탁인사는 부사장 8명, 전무 16명, 상무 32명이다.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삼성전자는 임원 승진 규모가 크게 줄었다. 삼성전자의 올해 임원 승진자는 전년(227명) 대비 62명 감소한 165명이다. ▶관련기사 8편

외국인과 경력 입사자 승진 규모도 소폭 감소했다. 올해 외국인 승진자는 전년(12명)과 비교해 3명 줄어든 9명이다. 경력 입사자 승진 규모는 전년(171명)보다 53명 감소한 118명이다. 김지영 기자 gity@

국가부도 위기 휩싸인 러시아



3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의 환율 전광판 앞에서 한 시민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지난 2일 서방의 경제 제재에도 자신만만하던 러시아 정부가 처음으로 경제위기를 인정했다. 석유수출기구(OPEC)의 감산 불발에 따른 유가 하락이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서방 제재에 시달리던 러시아에 직격탄이 됐다. ▶관련기사 11편

롯데하이마트 감사위원회 파행운영 논란

사내이사가 감사위원 활동 '부적격 사유... 의결권행사 안건 적법성 도마 위

롯데하이마트가 법적 허자가 있는 감사위원을 선임해 최근 2년 동안 감사위원회를 파행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4일 금융감독원은 롯데하이마트가 지난 2012년 10월 31일 박동기 롯데하이마트 전략지원본부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으로 감사위원에 이름을 올렸다고 공시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해당돼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문제는 사내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사내이사인 박 이사가 2년 동안 감사위원으로 활동한 것이다. 박 이사는 지난 10월 31일 임기만료로 감사위원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에 대해 롯데하이마트 측은 "2012년 10월 말 감사위원으로 선임할 당시 회사 임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사위원 선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다"면서 "현재 감사위원 3인은 모두 외부인"이라고 설명했다.

박 이사가 감사위원 선임 당시 롯데하이마트의 임원이 아니었다고 해도 계열사의 임원으로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역시 감사위원이 되기에는 부적격하다. 박동기 이사는 롯데하이마트 감사위원으로 선임됐을 당시 계열사인 롯데쇼핑의 노무 담당 상무였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부적격한 감사위원이 감사위원회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에 대해서도 적법성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조승에 기자 sysy@

3분기 GNI 0.3%↑... 2년반 만에 최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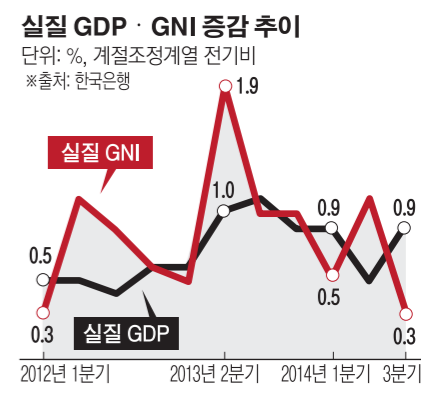
GDP 성장률은 0.9%

3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이 2년 2분기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은 속보치와 같은 0.9%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3분기 국민소득(잠정)' 자료에 따르면 실질 GNI는 전 분기보다 0.3%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2년 3분기(0.3%) 이래 최저치다.

전 분기 대비 실질 GNI 증가율은 작년 2분기 1.9%로 상승했다가 3분기와 4분기 각각 1.0%, 올해 1분기 0.5%로 둔화한 후 2분기 1.1%로 올랐다가 다시 0%대로 떨어졌다.

김성자 한국은행 지출국민소득팀 과장은 "지난 3분기 교역조건이 전 분기보다 악화한 측면이 있는 데다가 국외순수취요소소득도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국 국민이 외국에서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소득에서 외국인인 국내 생산 활동에 참여해 번 소득을 뺀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전 분기 3조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실질 GNI는 국내 경제 활동에 초점을 맞춘 실질 국내총소득(GDI)과는 달리 우리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GDI에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반영해 산출한다. 반면 명목 GNI는 374조3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0% 늘고 작년 동기보다는 3.2% 증가했다. 실질 GDP는 전 분기보다 0.9% 성장. 지난 10월 발표된 속보치와 같은 수준이다. 속보치와 마찬가지로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지출 요인별로는 수출이 좋지 않았다. 제조업은 전자기기의 부진으로 0.8% 줄었다. 건설업은 1.1% 성장하고 서비스업(1.4%), 농림어업(2.5%) 등도 증가했다. 지출 측면에서 보면 수출이 2.2% 줄고 수입도 0.5% 감소했다. 설비투자도 운송장비가 줄어 0.5% 감소했다. 이에 비해 민간소비는 1.0% 늘고 건설투자(2.5%), 지식생산물투자(0.6%) 등도 증가했다. 모든 물가를 포괄하는 GDP디플레이터는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0.0%를 기록했다. 이진영 기자 mint@

데이터 뉴스 Data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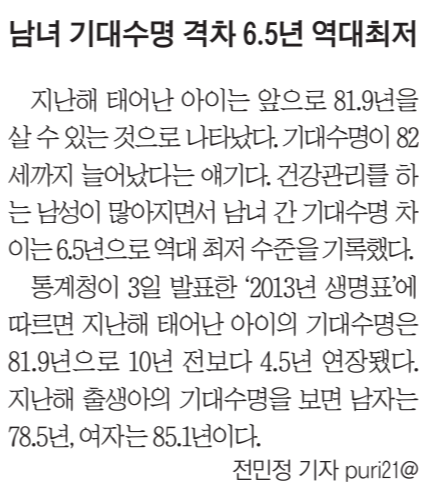
국가청렴도 6년연속 정체·하락

우리나라가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43위를 차지했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적 반부패운동 단체 국제투명성기구가 3일 발표한 2014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서 55점에 그쳤다. 덴마크(92점, 1위), 뉴질랜드(91점, 2위), 핀란드(89점, 3위), 스웨덴(87점, 4위) 등이 지난해에 이어 최상위권을 형성했으며,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84점, 7위), 일본(76점, 15위)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유혜은 기자 euna@



남녀 기대수명 격차 6.5년 역대최저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앞으로 81.9년을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수명이 82세까지 늘어났다는 얘기다. 건강관리를 하는 남성이 많아지면서 남녀 간 기대수명 차이는 6.5년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13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81.9년으로 10년 전보다 4.5년 연장됐다.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을 보면 남자는 78.5년, 여자는 85.1년이다. 전민정 기자 puri21@



Life 목요일 17~21면

커버스토리
2015 부동산시장 전망

유창수 대표 ▶ 김정태 회장 ▶ 6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골프존 오너 김원일 '수상한 공시누락'

지난 9월 미술품 매매업 개인회사 '클라우드갤러리' 차려 분기보고서 명시 안해... 기업공시 '미편입계열사' 논란
골프존측 "해당 회사와 거래 없어 계열사 아니다" 해명

골프존이 최대주주 김원일 전 대표의 개인회사를 임의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최대주주가 지배하는 회사는 계열사로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기업공시규정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계열관계가 있는 회사는 분기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골프존은 김원일 전 대표가 개인적으로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클라우드갤러리는 회사를 분기보고서에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대표는 골프존의 최대주주로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9월 초 미술품 도소매업과 화랑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클라우드갤러리라는 개인회사를 설립했다. 별도 사업목적으로 예술품 무역업이 등록돼 있다. 또 회사 법인등기등본에는 설립 시점

부터 김 전 대표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골프존은 최근 공시한 분기보고서에 클라우드갤러리에 대해 전혀 밝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기업공시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시 규정대로라면 클라우드갤러리는 골프존의 계열사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기업공시 실무 안내서를 보면 계열관계는 공정거래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기업집단은 동일인(최대주주)이 일정한 기준에 의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공정거래법은 최대주주 등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는 계열회사로 못을 박고 있다. 법에 위

반되는 회사는 미편입계열사(위장계열사)로 규정하고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 검찰 고발과 국제정보 통보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금감원 실무 관계자는 "계열 관계는 공정거래법을 따르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어 포함되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골프존 측은 금감원과 다른 입장이자. 최대주주인 김 전 대표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해당 회사와 거래가 없기 때문에 계열회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골프존 관계자는 "내부 실무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클라우드갤러리가 계열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분기보고서에 공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원일 전 대표는 현재 골프존의 지분 38.18%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실질적 오너다.

현유심 기자 hyson0214@

(유진투자증권) 자사주 산 유창수 대표 투자자에 보내는 러브콜?

유창수(사진) 유진투자증권 대표 이사가 지속적으로 회사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증권업 전체로 주가가 2000원대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유진투자증권은 국내 금융시장의 돌파구로 해외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4일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유 대표는 지난 11월 24일부터 9거래일에 걸쳐 약 9억5000만원을 들여 회사 주식 46만7000주를 매입했다. 같은 기간 유 대표의 동생인 유순태 EM미디어 사장 역시 39만여주를 사들였다.

유 대표가 지난 9월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을 늘린 데 이어 다시 장내에서 직접 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것은 전문경영인이 아닌 오너일가로서 책임경영의 의지 표현이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유 대표는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셋째 동생으로 유진그룹 시멘트부문 CEO를 거쳐 지난 2001년 유진투자증권 대표를 맡았다. 유진투자증권의 최대주주는 유진기업(26.22%)이다.

유진투자증권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는 인식도 자사주 매입에 영향을 미쳤다. 유진투자증권 주가는 최근 2년 동안 1600-2500원을 횡보하며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유 대표가 취임한 2011년 유진투자증권은 500원→5000원 액면변함으로 저가주 이미지 탈피를 꾀했다. 하지만 액면변함 이후 주가가 하락세를 보여 2012년 2000원대로 내려앉았고, 지난 9월에는 2000원선마저 무너졌다.

유진투자증권의 지지부진한 주가는 기나긴 증권업 자체의 침체를 반영한다. 증권주의 주가가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지수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오르거나 주식 시장으로 대규모의 자금 유입이 필수적이지만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박스권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유 대표는 경쟁 심화와 장기침체 국면에 빠진 국내 증권업에서 눈을 돌려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인도네시아 발부리 증권과 업무 제휴를 맺었고, 11

월에는 태국 아이리 증권과 포괄적 업무 제휴계약(MOU)을 체결하는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 글로벌 영업기반을 다지고 있다. 2010년 일본 아이자와증권과의 업무 제휴 계약을 통해 한·일·한·중·일 해외 펀드를 공동 개발해 일본 시장 내에서 각각 4500만 달러, 7200만 달러를 판매했다. 특히 태국 시장 진출을 통해 해외 IB 비즈니스를 더욱 활발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유 대표의 주주 매입은 주가가 내부적 상황에 비해 저평가됐다는 판단과 함께 주가 안정화 차원에서 책임경영 의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진기자 heejin@

'동릉실업 살리기' 발벗고 나선 효성 차남 조현문

효성그룹을 떠난 조석태 회장의 차남 조현문(사진) 전 효성 부사장이 동릉실업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동릉실업은 조 전 부사장으로 부터 빌린 운영자금 41억5000만원에 대한 계약기간을 6개월 연장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전 차입기간은 같은 해 7월 1일로 연장됐다.

부동산 임대, 주차장 운영 등을 주력 사업을 하는 동릉실업은 지난 1971년 설립됐다.

이 회사의 지분은 조 전 부사장이 80% 보유하고 있으며, 형 조현준 효성 사장 10%, 동생 조현상 효성 부사장이 나머지 10%를 갖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효성을 떠났지만, 형과 동생은 효성그룹을 승계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5월 법무법인 현의 공생애 대표변호사와 함께 동릉실업의

부동산 임대업... 지분 80% 경영 정상화 위해 42억 지원

작년 영업이익 7억 흑자 전환 재무개선·지급여력 '아직은'

내년 1월1일 차환 세번째 연장

사내이사 자리에 올랐다. 이후 현재까지 조 전 부사장과 공 변호사는 동릉실업의 공동 대표이사를 지내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7월 동릉실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무이자로 사채 41억 5000만원을 출연했다. 당시 차환의 만기는 올해 1월 1일까지였으나 이번까지 세 차례 만기를 연장했다.



동릉실업은 조 전 부사장으로 부터 차입한 자금을 단기차입금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이 대표직에 오른 뒤 재무

구조 개선을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높은 이율의 차입금을 갚기 위해 사채를 내놓은 것이다.

동릉실업은 우리은행에서 빌린 이자율 5.69-6.96%의 단기차입금 139억원가량을 상환했다. 현재 이 회사의 단기차입금은 조 전 부사장으로 부터 받은 41억5000만원이 전부다.

조 전 부사장과 동릉실업이 세 번째 차입 기간을 연장한 것은 회사의 재무구조가 차입금을 상환할 만큼 개선되지 않아 유예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릉실업은 지난해 매출액 13억2244만원, 영업이익의 7억2722만원, 당기순이익의 14억9077만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2년에 비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했을 뿐더러 당기순이익은 흑자전환했다. 2012년 동릉실업은 매출액 12억4499만원, 영업이익의 6억9291만원, 당기순손실 5억4558만원을 기록한 바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청년창업의 꿈이 이루어지고

고객평가가 등급이 되고

ex 한국도로공사
휴게소 국민평가제 실시

ex 주유소의 착한가격을 만나다

대한민국 모두를 위한 창조경제 휴게소

청년에게 창업의 꿈터, 가족들에게 즐거운 놀이터, 국민 모두를 위한 편안한 쉼터,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청년창업 휴게소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18~39세 청년들의 매장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민등급 휴게소

국민평가 등급표시 및 경쟁우도로 휴게소 서비스의 품질을 올리겠습니다.

ex 주유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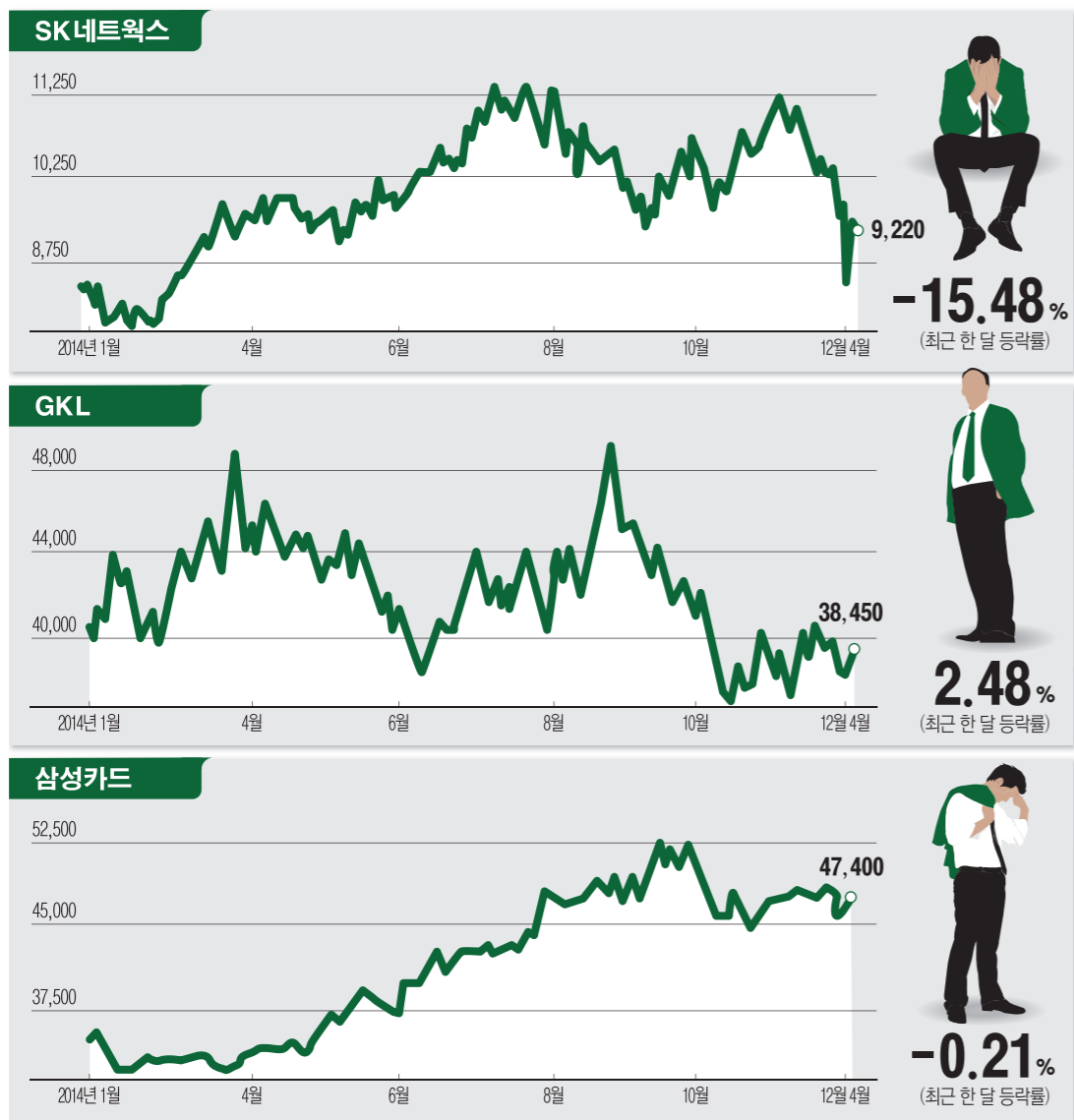
정품·정량·정가의 추진방향과 함께 착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혁신을 선도하고 쾌적하게

호환보다 무서운 세금...정부, 증시 활성화에 '찬물'

〈虎患〉

증권 이슈 관련 종목 주가 추이 (단위: 원)



렌터카·카지노업체...맥 못추는 주가

세금 악재로 실적 부진 위험성도 커져

최근 주식시장은 느닷없이 '세금 리스크'가 등장했다. 정부의 세수 확보를 위한 정책이 몰물듯이 쏟아지면서 관련 업종 및 종목들의 주가가 악영향을 받고 있다.

렌터카주는 행정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으로 인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AJ렌터카와 SK네트웍스는 악세를 면치 못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렌탈 차량은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면 용도를 비영업용(자가용)으로 변경해야 한다. 기존 렌터카는 영업용으로 분류돼 비영업용 대비 세율이 낮아 자동차세 감소 효과를 누렸다. 그러나 내년 1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동차세 인상이 관공비(세금공과금)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생기는 것이다.

또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입법예 진행 중인 가운데 영업용 자동차세를 80%에서 100%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카지노 업체들도 세금 리스크에 주가가 출렁이고 있다.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카지노 매출액의

16%를 레저세로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투자업계에서는 실제 통과 가능성이 낮게 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카지노 업체들은 이미 내고 있는 개별소비세에 카지노입장세에 더해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파라다이스, 제이비어뮤즈먼트, 강원랜드, GKL 등 카지노 관련 업체들의 주가는 악재를 보이고 있다.

담뱃세 인상도 주가에 악재로 작용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세가 2000원 인상된다. 지난 2일 가결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는 담배 출고가의 77%에 해당 하는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러한 세금 인상에 담배 수요가 최소 15%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KT&G의 실적 악화가 예상되고 있다. 2004년 담뱃값 500원 인상 이후 이듬해 담배 수요는 전년보다 23% 폭락한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증시에서 세금 리스크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세금 해력을 보는 종목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정부의 세수 확대 정책에 따라 실적 부진의 위험성이 커지면서 주가가 맥을 못추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가계소득 증대 3法'은 증시에 긍정적

기업 배당·투자 활성화 기대 커

증시에 세금 이슈가 주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일부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

먼저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가 세법 개정안 원안 그대로 통과되면서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증시 전문가들은 지난 2일 국회에서 가계소득 증대법이 원안대로 통과된 것과 관련해 기업의 배당과 투자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책 트레이드마크인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는 기업의 소득을 가계로 흘러들도록 해 돈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내놓은 것이다.

이 같은 취지가 실제로 시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거두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이번 세제 개편으로 기업들의 배당과 투자가 활성화될 경우 증시에 우호적이라ں 설명이다.

이에 우리투자증권은 현대차, 현대모비스, 네이버,

엔씨소프트 등 기업소득 환류 세제의 적용 가능성이 큰 종목과 삼성생명, 삼성화재, SK C&C, 강원랜드, 한샘, 파라다이스를 배당소득 증대 세제 적용 가능 종목들로 꼽았다.

김병연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여야가 지난 8월 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합의했다"며 "향후 기업의 배당, 투자 확대 및 풀리믹시(Policy Mix-하반기 두번의 금리인하+재정정책 국회 통과) 모멘텀 확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중호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배당에 대한 전체적인 개선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펀더멘털 개선 속도보다는 정책적인 압박 및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국내 배당수익률이 소폭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주식시장 발전 방안도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대를 모았던 증권거래세 감면, 배당펀드 세제혜택, 소장펀드 가입기준 완화 등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주식시장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구조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ں 판단에서다.

문선영 기자 moon@

금리·환율·유가...이번엔 세금 리스크

금리, 환율, 유가 등 대외변수에 갇혀 답답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증시에 난데없이 세금 변수까지 등장했다. 그야말로 몸살을 앓고 있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각종 세금 이슈가 변수로 등장하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업의 성장성이 둔화된 가운데 세수 확보를 위한 정부의 각종 증세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득실을 따지는 모습이다.

지난 2일에는 과세금융상품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투자업계는 과세상품 거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관투자자는 법인세, 외국인인 조세특례법을 통해 양도차익 과세를 피해갈 수 있지만 고스란히 세 부담을 안아야 하는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이탈 현상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적격 개인투자자제도를 도입해 장벽을 높인 데 이어 세금부담까지 등장하며 사실상 개인투자자들은 퇴출될 상황이다. 최창규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과세금융상품의 목적은 투기거래가 아닌 헤지거래"라며 "과세금융상품 양도세 부과로 인해 본질적인 거래도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주식시장 발전 방안도 논란거리다. 투자업계가 기대했던 거래세 인하가 빠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배당주 펀드에 대한 세제

과세금융상품 양도차익세 부과
개인투자자 이탈 가속화 될 듯
거래세 인하·배당주 펀드 혜택 제외
정부 '주식시장 발전 방안'도 논란

택도 제외됐다.

이 때문에 최근 증권주는 낙폭이 두드러졌다. 교보증권, 대우증권 등이 7% 넘게 급락했고, NH농협증권이 5%대 하락했다. 현대증권, 유안타증권, 삼성증권 등도 3%넘게 내렸다.

박혜진 교보증권 연구원은 "기대와 달리 배당이나 펀드 관련 세제혜택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거래대금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장에서 도입을 반대했던 과세금융상품 양도세는 도입하고, 도입을 기대했던 세제혜택이 빠지면서 투자업계는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각종 간접세도 증시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세, 주민주세 등 인상안을 내놓으면서 악재로 작용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도서, 신문, 비가공식품, 영리교육용역, 예술품 등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일반처럼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담뱃값을 2000원 올리기 위한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때문에 KT&G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노경철 아이엠투자증권 연구원은 "담뱃세는 119.9% 늘었지만 출고가는 4.6% 증가에 그쳤다"며 "제조업체에 실질적인 이익은 없고 급격한 수요 감소에 따른 실적 하락세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미 금리, 환율, 유가 등 수많은 대외의 변수가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 이슈가 갑자기 불안요소로 등장한 것이다.

지난 7월 최경환 부총리의 2기 내각이 출범하며 정부 정책이 내수 경기 활성화를 이끌어낼 것이라ں 기대가 높게 작용하며 증시에 상승 동력을 불어넣기도 했다. 기업배당 확대, 세제혜택 금융상품 도입, 퇴직연금 활성화, 증시 투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책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사그라진 상황이다. 지난 10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 수준인 2.00%로, 25bp(1bp=0.01%) 내렸지만 증시 반응은 냉랭했다. 금리인하 결정이 경기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어 경기 하강 리스크에 대한 우려만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하정청 기자 jcha@

롯데칠성음료
유동기간 확인하여 식품안전에 유의하십시오

상쾌함의 높이가 다르다
천연 과일향과 탄산이 만나 상쾌함을 높이고 스타일은 살린다

특! 쓰는 스파클링이 스타일까지 짜릿하게!
STYLISH SPARKLING WATER **TREVI**

런던 한국전 참전기념비 준공식



3일(현지시간) 영국군 참전기념비가 런던 도심 템스강변에 건립돼 준공식이 거행됐다. 영국에는 한국전 참전 16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참전기념비가 없었으나 정전협정 체결 61년 만에 기념비가 세워졌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3법 주요 내용

주택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는 유지는 하되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 개정안	내년 초부터 시행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를 5년 동안 연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재건축조합원도 소유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

'부동산 3법' 연내 처리될까

與 '분양가 상한제 폐지' 5년간 유예로 방향 선회 '전월세 상한제'도 검토에 野 내부 "수용가능" 의견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4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어제(3일)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정성호 의원과 만나 논의했고, 오늘도 만날 예정"이라며 "부동산 3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라고 전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이른바 '부동산 3법' 처리가 탄력을 받고 있다. 여야 간 의견이 좁혀지면서 이르면 연내, 또는 새해 초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월 임시국회 일정이 합의되는 대로 곧바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 차원에서 법안 및 바꾸기' 형식으로 합의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3법은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법, 재건축조합원도 소유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이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동시에 처리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애초 전월세 상한제를 반대해 왔으나 최근 나성민 당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이 전월세 상한제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이 '폐지' 입장에서 '5년간 유예'로 방향을 선회했다.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연말로 끝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유예를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그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대로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강조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에 합의해 줄 것으로 보인다.

김익중 기자 zerg@

4개 부처 힘모아 우수기업·청년 취업 연계

기업 현장정보 워크넷 공유 협약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은 4일 광주 힐리데이인 호텔에서 부처 간 기업현장 정보공유 협약 체결을 기념하며, 우수기업·청년 취업연계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수요자 맞춤형 정보전달을 위해 행정부 중재로 산업부, 고용부, 중소기업이 각각 보유한 기업현장 정보를 대한민국 대표 고용포털인 '워크넷'을 통해 통합 제공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고용부 651건, 산업부 2459건,

중기청 1275건의 기업현장 정보를 워크넷에서 통합 제공해 워크넷 기업 현장탐방 정보가 651건에서 4385건으로 5.7배 증가되는 성과를 창출했다.

이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련 부처가 보유한 정보를 공유해 우수기업·청년 간 취업 연계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각 부처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관리하고 있는 우수기업의 현장정보를 지속적으로 워크넷에 공유하고, 정책이슈 공동 발굴, 행사 공동 개최 등 실질적 취업연계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김희중 기자 h9913@

주총 '새도보팅제' 3년 더 유지하기로

정치권은 3일 올해 말로 예정된 '새도보팅(shadow voting) 제도'의 전면 폐지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새도보팅은 주총에 참석할 주주가 찬반을 투표한 비율대로 주총 미참석 주주도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는 의결권 대리행사제도를 말한다. 이는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도입됐다. 국회 정부위원회는 3일 법안심사 소위원회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

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여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정부 위 전제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위임을 권유한 상장사가 감사 및 감사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경우 2017년 말까지 기존 새도보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윤필호 기자 beetlebum@

부정수급만 막아도... 연 1조 재정 절감

줄줄 새는 국고보조금

올 4-6월 18개 부처 실태점검 95개 사업 101건 부정 적발 8월 2300억 복지재정 낭비도 정부 국고보조금관리위 신설 허위신청 5배 벌금·지원 금지

4일 정부가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에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혈세 낭비'가 심각하다는 판단이 깔렸다.

기획재정부 노홍욱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은 "보조금 부정수급은 재정운용의 비효율성뿐 아니라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재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특히 최근의 재정여건 악화를 고려

하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강력한 근절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규모는 전문학적 수준이다. 정부예산과 기금에서 나가는 국가보조금은 2014년에만 52조5000억원에 달한다. 정부출연금(30조9000억원)과 국제감면액(33조원)을 합치면 '실질적 국고보조금'은 100조원을 넘어선다.

그러나 규모에 걸맞은 감사·감독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 벌칙 수준도 전반적으로 미약하다. 이 때문에 한 번 부정수급으로 걸려도 감시망을 피해 다시 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정보 공개와 신고 관련 체계도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가장 많은 부정수급 사례는 보조금이 집행되는 단계에서 발생한다. 비영리단체 지원사업에서 실제 설치되지 않은 지역 사무소의 설치경비를 청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줘 보조금을 받도록 하는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보조금을 받아 만든 축산분뇨처리시설을 당국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 단계에서의 부정수급 사례도 있다.

이처럼 부정수급이 드러난 사례는 무수히 많다. 정부가 지난 4-6월 18개 부처 1771개 보조금사업(26조6000억원 규모)에 대한 자체 실태점검을 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 사업의 5.4%인 95개 사업(101건)에서 부정수급이 드러났다. 앞서 올해 초 감경합동조사에서도 약 1700억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됐고, 지난해 8월 감사원의 보조금 감사에서도 약 2300억원의 복지재정이 줄줄 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연 1조원 이상의 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예야말로 체계적이고 항구적인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각 부처 1급

간부와 보조금 전문가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를 신설, 국고보조금 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로 했다.

벌칙은 대폭 강화됐다. 허위신청 등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받은 돈의 5배를 몰도록 하고 향후 보조사업 참여와 지원 자체가 영원히 불가능하도록 했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보조금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 민간의 직접적 감시를 유도한 점도 이번 대책의 특징이다.

이번 대책에 대한 평가는 일단 긍정적이다. 김원진 한국재정학회장은 "그동안 정부가 다 챙기지 못한 일들을 보조금 형태로 미루거나, 돈만 대고 보조금의 집행 과정 등 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보조금 관리에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내년 경제 살리기 어떻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약발 없는 금리인하... 내년도 상저하고 예고

주요기관 내년 성장률 전망치

대부분 3%대 중후반에 예측해 기업들 경영환경 조사 "위기"

주요기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기획재정부	4.00%
한국은행	3.90%
한국개발연구원	3%대 중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대 중반
한국경제학회	3.5~3.8%
금융연구원	3.70%
LG경제연구원	3.4~3.8%
현대경제연구원	3.60%

2015년엔 나아질까. 울츠 상저하고(上低下高)를 그릴 것으로 예상했던 경제성장률이 좀처럼 부진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잠정치는 전 분기비 0.9%로 4분기 연속 0%대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같은 기간 실질 국민총소득(GNI) 증가율도 0.3%에 그쳐 2년 2분기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의 전방위적 경기 부양책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약발'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경제 연구원들은 내년 성장률을 기획재정부

(4.0%)와 한은(3.9%) 전망치보다 낮은 3%대 중후반으로 예측했다. △한국개발연구원 3%대 중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대 중반 △한국경제학회 3.5~3.8% △LG경제연구원 3.4~3.8% △현대경제연구원 3.6% 등이다. 정부와 한은의 기대와 달리 내년도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 3.5%와 별반 다르지 않다.

기업들이 보는 내년 경제시계는 더욱 어둡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매출 기준 600대 기업 중 329개사를 대상으로 내

년 경영환경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1.6%가 최근 경제상황을 한국 제조업 및 수출의 구조적 위기라고 답변했다. 국내 경제의 회복 시점에 대해서도 응답기업의 91.2%는 2016년 이후(48.1%) 또는 내년 하반기(43.1%)로 예측해 상당기간 경기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봤다. 또 내년 경제성장률도 3.0~3.5% 수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여기에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가세했다. 국내 최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수요 부진에 따른 성장세 둔화와 인플레이션 하락이 상당 기간 지속하면서 한국에서도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어려운 경제상황을 돌파해 경기 회복의 불씨를 키우려면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진영 기자 mint@

동반위, 대기업 대리점 간 甲乙 영업관행 조사 착수

동반성장위원회가 '갑을(甲乙) 관계'가 여전한 대기업-대리점 간 영업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안충영 동반위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식품·주류회사를 중심으로 대리점 영업관행이 재현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동반성장지수 평가와 같이 유통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리점에 횡포를 부렸던 유통 대기업들의 영업현장 관행을 낚낚이 조사해 이들 기업에 도의적 책임을 부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기업 본사-대리점 간의 갑을 문제는 지난해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 파문을 통해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된 바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까지 유통업계의 갑을 문화는 여전한다는 지적이다.

동반위의 조사는 동반성장지수와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조사 자체만으로 유통업계에 긴장감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유 기자 thec98@

한은, 물가안정목표제도

기준지표 원점서 재검토

한국은행이 현재 소비자물가 기준으로 3년마다 설정하는 물가안정목표제의 기준지표 변경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내년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는 작업을 벌이면서 목표 수준과 함께 기준지표의 변경 가능성까지 제반 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물가안정목표제는 중앙은행이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한은은 지난 1998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

2013~2015년에 적용되는 현행 중기 물가안정목표의 기준지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며 목표 범위는 2.5~3.5%로 설정돼 있다. 그러나 실제 소비자물가는 2012년 이후 2년 넘게 1%대에서 움직이면서 장기간 목표 범위의 하단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진영 기자 mint@

정책·입법 뒷이야기 지역 농협 사업 '담합 예외' 두고 논란

담합, 사업자가 상호간의 경쟁을 회피하고자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인상을 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하 경쟁질서 구현을 목표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업무영역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공정위가 다를 수 없는 담합 사건이 생길 전망이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농협협조조합법'(농협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 및 자회사의 사업 중 구매·판매사업, 자금지원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 일부 규정 적용이 제

한된다. 농협중앙회가 판매·유통사업을 농협경제지주로 이관함에 따라 현재 농협중앙회가 수행하는 생활물자·자재 등 계통구매·판매사업과 농·축협 자금 지원, 농축산물 수급조절 등의 사업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달 24일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은 농협 경제지주의 공동 구매·판매사업 전체를 예외로 두자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담합에 예외를 둘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면서 독립규제에 관한 사업의 판단을 공정위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협의해 판단한다는 절충안이 이날 도출됐다.

공정위는 농협만을 예외로 두면 여러 기관에 대한 유사 입법 요구가 빚발쳐 담합 적용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며 반대 뜻을 고수해 법안 처리에 진통을 겪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을 두고도 일부 의원들이 농협경제지주의 공동 구매·판매사업 전체를 예외로 두자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공정위의 담합 조사에 예외를 두느냐에 대한 논란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박상영 기자 sypark@

‘대중교통 환승 적자’ 놓고 갑론을박

경기도·인천시, 서울시에 손실금 보전률 50% 명시 요구
서울시 “수용편 코레일 등에 236억 대신 내줘야” 불가
코레일 이어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도 줄소송 제기

서울시가 내년 초로 계획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환승할인 적자 부담을 둘러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의 소송전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와 인천시는 요금 인상 합의의 조건으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에 따른 손실금 보전율을 현행 60%에서 50%로 낮춰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004년 주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은 대부분

의 요금 수입이 출발지에 귀속된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철도운영기관에 일부 손실금을 보전해주기로 합의했지만 예산 부담을 이유로 2011년 12월부터 손실금의 50%만 보전해주고 있다.
손실금 보전율을 인하한 점에 대해 경기도와 인천시는 구두 합의가 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울시와 코레일, 서울메트로 등 철도운영기관은 2012년 2월 마지막 대중교통 요금 인상 때도 해당 문제가 합의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코레일은 갈등 끝에 2012년 경기도와 인천시를 상대로 ‘대중교통 환승손실보전금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 10월 1심 판결에서 이들 지자체에 미지급 손실보전금 180여억원을 코레일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도 경기도와 인천시를 상대로 지난 3월 소송을 제기,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내년 대중교통 요금 인상 합의의 조건으로 손실금 보전율 50% 명시와 더불어 서울시 지하철 양 공사가 제기한 소송도 취하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서울시는 소송을 취하하고 손실금 보전율을 60%에서 50%로 내리게 되면 그동안 지하철 양 공사가 경기도와 인천시로부터 받지 못한 손실금 236억원을 서울

시가 대신 내줘야 하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인상률이나 인상 시기 등 요금 인상을 위한 협의는 중단됐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위해서는 3개 시도가 세부 협의를 통해 인상 폭과 시기를 조절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자체 간 갈등이 지지부진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요금 인상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한 지 3년이 돼가고 연간 적자가 지하철은 5000억원, 시내버스는 3000억원에 달하는 등 재정난이 가속화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2012년 2월 버스과 지하철의 기본요금을 900원에서 1050원으로 150원 올린 바 있다. 유혜은 기자 euna@



정운희씨 국정개입 문건의 작성자이자 유출자로 의심받고 있는 박경천 경정이 4일 오전 취재진에게 둘러싸인 채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오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문서유출 사건’ 박경정 檢 출석

유출자 밝혀낼지 주목
조용천 전 비서관 곧 조사

정운희씨가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 박관전(48) 경정이 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문건 내용을 최초 보도한 세계일보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이날 문건 최초 작성자로 알려진 박 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박 경정은 해당 문서를 작성하고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경정이 직접 검찰에 출석해 조사가 이뤄지면 ‘유출자가 누구인지’ 부분에 관한 수사는 상당한 진척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전날 박 경정과 동료 경위 2명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고, 경위 2명은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했다. 문건 유출자

로 박 경정이 지목된 만큼 검찰이 이 부분을 1차적으로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이다.
박 경정은 유출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가까운 시일 내에 조용천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상비서관을 불러 조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비서관은 최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박 경정이 아닌 제3자가 범인으로 지목된 보고서가 지난 5-6월 민정수석실에 올라왔지만, 민정수석실이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경정의 이번 소환조사는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에서 진행 중인 문서유출 혐의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2부 역시 박 경정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예정 중이다. 박 경정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후 조 전 비서관의 진술 내용에 따라 정운희 등의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좌영길 기자 iy97@

공정위, CGV 등 ‘동의의결’ 거부

공정거래위원회는 CJ CGV와 CJ E&M, 롯데쇼핑의 동의의결 신청 건에 대해 불개시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해당행위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 및 소비자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을 제안하면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시켜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영화사업자의 동의의결 신청으로 심의가 중단된 심의절차가 재개된다. 앞서 영화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던 CJ CGV와 CJ E&M, 롯데쇼핑은 지난 24일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

한파에... 난방용품 판매 급증



포근한 날씨에 부진했던 난방용품 판매량이 한파로 인해 급증하고 있다.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 난방기기 판매점에서 점원이 물품을 진열하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KB 납품청탁’ 업체대표 구속

KB금융그룹의 전산·통신비리 의혹과 관련해 KB측에 납품청탁을 해주고 금품을 받은 IT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근)는 3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주제 혐의로 IT업체 M사 대표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말 KB금융그룹의 통신인프라고도화사업(IPT)에 KT가 주사업자로 선정되도록 KB측에 청탁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KT 납품업체 G사로부터 납품계약 형식으로 수신택을 받는 대가로 사업자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KT는 올해 초 1300억원 규모의 IPT 사업 주사업자로 선정됐다. G사는 KT에 200억원 상당의 통신장비를 납품했다.
검찰은 김재열(45) 전 KB금융지주 전무 등 주요 임원들이 납품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는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좌영길 기자 iy97@

퇴직자 모임에 물쓰듯 돈 퍼준 수공

특별회비 연 3000만원 지원... 도로공 휴게소 부실 수신택 손실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해 기준 빛이 14조원에 달하는 데도 퇴직직원 모임에 매년 3000만원씩을 특별회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등 방만경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채가 무려 26조원인 한국도로공사 역시 ‘주먹구구식’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으로 수신택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5-6월 수자원공사와 도로공사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3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수공은 2003년부터 아무런 근거 없이 퇴직자 모임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지난해까지 3억2000만 원을 지원했다. 수공은 부채가 급격하게 늘

상당에 달했고, 임시운영업체는 82억원 상당의 당기순이익을 얻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이들 공사의 구조적 적자가 심각하며 수도요금과 도로 통행료의 인상 필요성도 제기했다.
수도요금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 동결돼 미회수 원가가 1조6000억원에 달했지만 2013년 4.9% 인상에 그쳤으며 추가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도로 통행료는 현재 원가 보충률이 81% 수준에 불과해 23% 상당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노후된 수도권과 고속도로 등에 대한 적정 수준의 유지 보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국민 안전에 큰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영 기자 bomnal@

수천억대 사기대출 모뉴엘사건 수은 해외사무소장 영장 기각

수천억원대 사기대출이 이뤄진 ‘모뉴엘 사태’와 관련해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수출입은행 해외사무소장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일 이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씨가 받은 돈이 뇌물인지 빌린 돈인지 다름의 여지가 있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1년 수출입은행 모뉴엘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모뉴엘로부터 대출 한도를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포트홀 사망 사고’ 도로 관리책임 판결 엇갈려

경찰 공무원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포트홀(도로가 움푹 파인 구멍)’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국가에 대해 20%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지영남 부장판사는)는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1억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비해 도로 상태에 더 큰 영향을 받고, 국가가 과인 흡을 보수하기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을 고려하면 설치·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

만 “당시 김씨가 속도제한을 위반해 시속 130km로 주행한 점이 사고에 결정적 영향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10년간 취미로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몰던 김씨는 지난해 10월 오토바이를 타고 김포의 한 도로를 달리던 중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당시 김씨는 속도 제한 규정을 어긴 채 시속 130km로 달리고 있었고, 도로에는 폭 4cm, 깊이 4~5cm의 홈이 곳곳에 파여 있었다.
반면 차량이 포트홀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도로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본 사례도 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49단독 김유광 판사는 최근 운전자 김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2년 12월 자신의 벤들리 승용차를 운전해 올림픽대로로 진입하던 중 포트홀에 차 앞바퀴가 빠졌다. 김씨는 이 사고로 타이어 휠 교체 비용 2200여만원을 지출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서울시가 사고 발생 직전까지 정기적인 도로점검을 했고, 사고 구간에 속도 제한 안전표지와 가로등을 설치한 점 등을 들어 “서울시의 도로관리에 하자가 없는 이상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좌영길 기자 iy97@

증선위, 대한전선·LS네트웍스 과징금

회계처리기준 위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로 대한전선과 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각각 20억원,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대표이사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대한전선은 2011~12년 매출 채권의 대손충당금과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과소 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채권의 회수 가능액을 크게 보고 대손충당금을 적게 계산했다”며 “증속기업이 추진 중인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과 관련한 건설용지 등 재고자산의 평가손실도 과소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전선을 감사한 안전회계법인은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70%)과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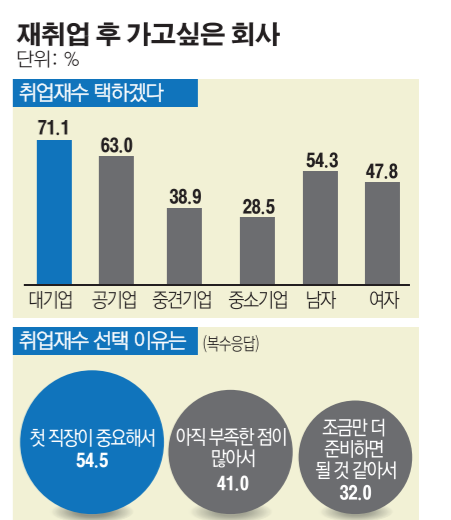
전선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3년) 제재를 받았다. LS네트웍스도 옵션계약 관련 투자주식을 과소 계상한 혐의로 과징금(회사 6억원, 대표이사 1000만원) 부과와 감사인 지정(2년)의 징계에 처해졌다.
대한전선과 LS네트웍스의 과징금 부과액이 5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이들 회사의 최종 부과액은 금융위원회 회의의 거쳐 결정된다.
증선위는 재고 자산 평가손실을 축소하고 증속기업의 투자 주식을 부풀린 티씨엔코에도 과징금(회사 2억7000만원, 대표이사 1200만원) 부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3년) 제재를 내렸다.
이밖에도 티씨엔코, 독산복합시설개발제일차파에프비 역시 분식회계 혐의로 증권발행제한 8월, 감사인 지정 등의 징계를 받았다. 정유현 기자 yhssoo@

구직자 2명 중 1명 “취업재수 할 것”

취업 돋보기

10명 중 7명은 대기업 목표

구직자 2명 중 1명은 ‘취업 재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이 신입 구직자 8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1.6%가 ‘올해 취업 대신 재수를 택하겠다’고 답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대기업을 목표로 하는 지원자의 취업 재수 의향이 71.1%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중소기업(63%), 중견기업(38.9%), 중소기업(28.5%) 순이었다.
최종 학력별로는 대학원 이상(58.1%)이,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54.3%)이 여성(47.8%)보다 취업 재수 의향이 높았다.
취업 재수를 하려는 이유로는 ‘첫 직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54.5%,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다음으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서’(41%), ‘조급한 더 준



비하면 성공할 것 같아서(32%), ‘지금까지 준비한 것이 아까워서’(18.2%), ‘다른 곳에도 금방 후회할 것 같아서’(14.7%)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반면 어디든 합격하기만 한다면 취업하겠다는 구직자들(36명)은 그 이유로 “빨리 취업하는 게 더 중요해서”(52%,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유혜은 기자 euna@

2014 금융사 CEO 성적표 ③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 진두지휘



이달 초 통합승인신청 예정...외환銀 노조 반발 변수 하나·외환은행 印尼 법인 7월 오픈 성공적 해외 진출 통합 '하나카드' 출범...금융지주 수익 부진은 속제로

김정태(사진)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올해 동안 이룬 성과는 '하나·외환은행 통합 추진'과 '성공적인 해외 진출' 두 가지로 요약된다. 특히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은 김 회장의 데뷔이자 리더십의 시험대였다. 김 회장은 치밀한 준비 속에 속전속결로 통합을 추진하면서 전임 회장의 그늘에서 완벽히 건너자 자신만의 색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회장이 지난 7월 은행 조기통합 의사를 내비친 후 하나·외환은행의 통합 추진은 급물살을 탔다. 당국 승인신청과 외환은행 노조 변수만 해결되면 김 회장이 약속한 연내 조기통합도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 김 회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승인을 이달 초에 신청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지난 1일 출범한 '통합 하나카드' 역시 김 회장이 만들어 낸 중요한 성과 중 하나다. 하나카드는 회원 수 520만명, 자산 6조원, 연간 매출 50조원에 이르는 증권 카드사로 재탄생했으며, 오는 2025년까지 연 매출 140조원과 순이익 5000억원, 시장점유율 15%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하나·외환은행의 중국법인 통합작업도 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해외진출 부문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 7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인도네시아 통합법인 출범식이 열리면서 김 회장이 늘 강조했던 글로벌 뱅킹으로의 도약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지난달에는 하나은행이 베트남 진출 7년 만에 베트남 중앙은행으로부터 호치민 지점 설립을 위한 내인가(Approval in Principle)를 취득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중국·인도네시아에서의 적극적인 현지화를 바탕으로 소비자금융 부문 등 비은행 시장의 해외 진출도 염두에 두고 있다. 또 이미 성공적으로 운영해 온 아시아밸트 시너지 추진협회를 해외사업 전역으로 확대해 공동 비즈니스 창출, 북미 네트워크 간 연계방안 구축 등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올해가 가기 전에 김 회장이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우선 외환은행 노조를 다독일 묘수가 시급하다. 김 회장은 외환은행 노조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진행하고 교감하겠다고 했지만, 지난달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간 첫 상견례가 무산된 이후로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노조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저조한 수익도 아쉬운 부분이다. 올 3분기 들어 타 금융지주의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데 반해 하나금융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하나금융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294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17.7% 줄어든 수치다.

김민지 기자 kimmj@

주인 못찾은 우리銀 '플랜B'는?

신재윤(사진) 금융위원장이 '직(職)'을 걸고 마련한 우리은행 투트랙(Two-track) 매각방안이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경영권 매각은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무산됐고, 소수지분 분임찰도 대다수 인수 후보들이 예정가격(최저입찰기준가격)에도 못 미치는 가격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4천 5기 부담 속에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내놓을 후속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적이다. 희망 수량 경쟁 입찰로 진행된 소수지분 17.98%(콜옵션 8.99% 제외) 매각도 반짝자리 성공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28일 마감된 우리은행 매각을 위한 입찰 결과를 최

에 그칠 것이라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매각대상 지분의 132%에 달하는 23.76%의 신청물량이 몰렸지만 대다수 인수후보들이 예정가격보다 낮은

경영권 매각 교보생명 불참으로 무산 소수지분 분임찰도 가격 안맞아 실패

가격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계약법상 예금보험공사(대주주)는 주식을 예정가격 밑으로 매각할 수 없다. 저금리·저성장 기조로 은행업권 전망이 밝지 않은데다 경영권 매각 실패가 가격 결정에 영향

을 미쳤다. 업계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이 다시 경영권 매각방안을 꺼내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외한 지분 분할매각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경영권 프리미엄 제외 분할매각 유력

금융위 관계자는 "매각 무산을 대비해 '플랜B'를 세워두지는 않았다"며 "우리은행이 워낙 빅딜이다 보니 매각 방안을 논의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영권 매각(30%)에는 중국 안방보험만이 참여해 무산됐다. 유력 인수 후보였던 교보생명이 불참하면서 유력경쟁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채 공적자금 회수 확대에만 초점을 맞춰 무리하게 매각을 추진했다는 지

정부가 희망수량 경쟁입찰이나 불복달 세일 등을 통해 조기 공적자금 회수에 나설 것이라 전망이다. 물론 지분을 조개 팔 경우 지배구조가 불안정해 진다는 단점이 있다. 다시 '주인없는 은행'으로 남는다는 얘기다.

▲은행 인원은 "매각 실패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기 민영화 종료와 지배구조 안정을 두고 신 위원의장이 고민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체 고객정보 편법 조회 특검

금감원, OK·웰컴저축은행 등 검사

대부업체 저축은행들이 계열 대부업체를 통해 고객정보(CB)를 편법 조회한 의혹이 드러나 금융당국이 특검에 나섰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리서앤게시, 웰컴론 등 대형 대부업체들이 저축은행 인수 이후 계열 대부업체를 통해 대부업 고객정보(CB)를 조회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금융당국이 특검조정에 착수했다.

금감감독원은 지난 1일부터 오는 5일까지 OK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등 대부업 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검사는 대부업 고객정보 편법 조회 여부가 관건이지만 대학생 대상 고금리 대출 등 국정감사 지적사항들도 함께 들여다 볼 방침이다.

저축은행업계는 그 동안 대부업 CB정보 공유를 즐기자게 요구해 왔다. 현재 대부업체들은 고객정보를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 다른 금융권과 공유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면 신용대출 때 다중채무자를 구분해 낼 수 있다.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감독당국의 감시를 피해 대부업 CB를 공유할 것이라는 논란이 현실화 된 것이다. 특히 이들 저축은행이 계열 대부업체와 한 건물에서 전산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도 도마위에 올랐다.

백엘리 기자 ellee@

한국기업데이터 대표 조병제

중소기업 전문 신용평가기관인 한국기업데이터가 3일 주주총회를 열어 대표이사에 조병제(사진) 전 하나저축은행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조병제 대표이사는 1953년 경북의성 출생으로 대구상고와 건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71년 서울은행에 입행해 금융업무를 시작했다.

서울은행이 하나은행과 합병한 이후 하나은행에서 경인중기업금융본부장, 심사본부장(부행장보), 가계영업그룹 대표(부행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쳐 2009년부터는 두레시닝(주), 하나저축은행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백엘리 기자 ellee@

씨티은행, 도심 숲 만들기 돕는다



한국씨티은행은 3일 중국 대동 씨티은행 본점에서 서울그린트러스트와 희망의 푸른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린 씨티(Green City)' 만들기 후원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박진희 씨티은행장(오른쪽)은 양병이 서울그린트러스트 이사장(왼쪽)에게 후원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그린 씨티 조성사업은 씨티은행과 서울시, 시민이 함께 도심 속 숲을 가꾸는 시민운동으로 씨티은행이 5000만원을 후원하고 서울시가 협력 지원한다. 씨티은행은 고객들이 각종 청구서를 이메일 청구서로 전환하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절약되는 비용을 기부하는 방법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진제공 씨티은행

교보생명, 교육보험 고객 학자금 1569억 미리지급

교보생명은 이달부터 교육보험 가입자 5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1569억원의 학자금을 선지급 한다. 지난 해보다 327억 원 늘어난 규모로 1인당 266만원 수준이다.

대상은 내년 3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에 학자금(중도보험금)을 받는 계약자다.

교보생명은 학자금 선지급과 관련, 내년에 받게 될 학자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목돈이 필요할 입학시점을 맞아 고객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보험은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자녀의 진학에 맞춰 학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현재 교보생명 교육보험 가입자는 19만명에 달한다.

강구기 기자 kkk@

보험사, 2년간 부동산에 4000억 투자

빌딩 매입 보다 국내외 펀드이용 롯데손보, 부동산 펀드에 300억 한화·교보생명도 빌딩 3곳 투자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보험사들이 지난 2년간 국내 및 해외 부동산시장에 4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 등에 집중된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보험사들은 빌딩을 직접 매입하기 보다는 자산운용사들이 운영하는 부동산펀드 등을 통한 간접 투자가 많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수의 창출을 위해 다양한 투자처를 발굴 운영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지난해부터 해외 부동산 시장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미국(시카고, 워싱턴), 독일(프랑크푸르트, 슈투트가르트) 지역 4곳의 빌딩에 총 1500억원 가량을 투자했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4월 영국 런던 씨티지구 빌딩에 252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또한 삼성생명은 계열사인 삼성SRA 자산운용이 행정공제회 등 국내 기관투자가와 함께 투자하는 미국 워싱턴DC 소재 '더 포털 스트리' 빌딩을 185억원에 인수하기도 했다.

보험사	시기	투자금액	내용
삼성생명	2014년 6월	185	워싱턴DC 백악관 인근 더 포털3 빌딩
	2014년 12월~2015년 1월	1500(예정)	독일 프랑크푸르트 실버타워
한화생명	2014년 11월	1조70	독일 기암그룹소유 빌딩 3곳
삼성화재	2013년 4월	252	런던 씨티지구 빌딩
	2013년 6월	438	독일 프랑크푸르트 갈릴레오빌딩
현대해상	2013년 10월	406	미국 시카고 North Clark 빌딩
	2014년 2월	300	미국 워싱턴 웨스트브리지빌딩
	2014년 6월	450	독일 슈투트가르트 탈레스빌딩
롯데손보	2014년 12월	300	롯데백화점 2곳, 마트 3곳
	2014년 7월	200	은행PFI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이시스자산운용에서 조성한 펀드를 통해 지난 10월 독일 자산운용사 카남그룹으로부터 빌딩 3곳에 투자했다. 빌딩의 매입금액은 7억4000만 유로(약 1조 7000억원)에 달한다.

보험사들이 국내 및 해외 부동산 투자로 눈을 돌리고 있는 이유는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산운용 대상을 다각화하는 차원이다. 운용사들이 운용하는 부동산펀드 목표 수익률이 7~8% 수준이기 때문에 예금리보다 2배 이상 높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높은 편"이라며 "저금리에 대응하기 위해 현금유동성을 투자로 돌리는 식으로 자산운용 전략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현·강구기 기자 rfs0118@

통합산은, 기업금융·IB 강화

직급 불균형 조정 평균임금 오를 듯 중기대출 담당 간접금융부문 신설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가 내달 통합하면서 기업금융과 자본시장(IB)부문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또 임금 불균형을 높은 쪽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직원들의 평균 임금도 대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에 따르면 통합 산은 출범 업무를 주관하는 합병위원회는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통합 산은의 조직·인사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산은 관계자는 "산은의 정금공 흡수합병에 따른 조직개편 문제와 두 기관 직원 간 직급 불균형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라며 "조직개편안이 확정돼야 지체됐던 인직원 후속 인사도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 조직개편에서는 소매부문을 담당했던 개인금융부문을 없애고 정책금융공사의 중소기업대출을 담당하는 간접금융부문을 새로 꾸리겠다.

기업금융부문은 대기업 중심의 여신을 취급하는 기업금융 4개실과 기업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2개 부문을 관할한다. 투자금융부문 산하에 있던 구조조정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통합 산은의 핵심 부서로 떠올랐다. IB부문은 기존 발행시장부, 인수합병(M&A)부에 사모펀드분부와 프로젝트금융분부까지 더해진다. 또 두 회사가 통합하더라도 중소·중견기업 대출 및 투자업무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간접금융부문을 신설한다.

한편 양측이 통합되면서 직급 불균형 문제는 가장 골머리를 앓는 이슈다. 지난 2009년 산은이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정금공과 분리될 당시 신생 조직인 정금공으로 옮긴 직원들은 승진이 빨랐던 반면, 산은에 남았던 직원들은 인사적체로 승진이 더뎠다. 동일 직급 간 급여 차이도 발생한다. 급여 체계 차이에 따라 상위 직급은 정금공의 급여가 상대적으로 높고 하위 직급은 산은의 급여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기준 산은의 직원 평균보수는 8707만원, 정금공의 평균보수는 8872만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안철우 기자 acw@

MBK파트너스 "HK저축은행 팝니다"

업계 2위...성사면 시장 판도 변화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가 HK저축은행 매각을 내년 초 재추진한다. 업계 2위인 HK저축은행이 팔릴 경우 시장 판도가 변할 수 있는 만큼 인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과 부산 지역을 기반으로 한 HK저축은행은 지난 9월 기준 자산 2조5599억원에 이르는 대형 저축은행이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HK저축은행의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내년 2월 중간사선정을 시작으로 매각작업에 착수한다. MBK파트너스의 HK저축은행 매각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6년 현대

캐피탈과 공동으로 HK저축은행을 인수한 후 2008년과 2011년에도 매각을 추진했으며 이번이 4번째 시도다. 업계에서는 매물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08년 75억원의 흑자를 낸 것을 시작으로 2012년(6월 기준) 417억원, 지난해 90억원, 올해 213억원 등 7년 연속 흑자를 보이며 탄탄한 영업을 해왔다.

하지만 HK 저축은행이 10월 초 회사인 부산 HK저축은행과 합병하면서 덩치가 너무 커져 매각이 힘들지 않겠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HK저축은행의 매각 예상 가격은 3000억원에 웃돌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백엘리 기자 ellee@



1972

인재의 숲 조림 초창기 나무를 심고 있는
故 최중현 선대 회장 부부의 모습

사람을 키우듯 나무를 키우다

민둥산 돌볼 틈 없이
모두가 산을 깎던 1972년
더 큰 미래를 위해
한 그루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인재양성과 함께 시작한
내일을 위한 투자와 노력은
어느덧 1,200만 평 380만 그루로 자라
대한민국의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2014



사람이 가장 소중한 자원이라는 믿음, 변치 않고 지켜갈 SK의 믿음입니다

행복을 나눕니다 **OK! SK**

SK '인재의 숲'은 녹색공헌(綠色貢獻)과 조림을 통한 장학기금 마련이라는 큰 뜻 아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육성된 대규모 경제림입니다. 42년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지금은 충남 천안, 충북 영동, 경기 오산 등 4개 지역에 숲 1,200만평, 나무 380만 그루를 조성하여 산림자원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승연 회장 컴백 “삼성과 빅딜 기쁘다”

2년3개월 만에 출근 재개
건강 회복한 듯 표정 밝아
연말인사 최측근 전진배치
대표이사직 복귀 등 속제도



한화그룹 김승연(사진) 회장이 사실상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지 2년 3개월 만이다. 한화그룹은 4일 김승연 회장이 삼성과의 빅딜이 이뤄진 지난달 말부터 2-3차례 출근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3일 오후 2시께 검은색 코트 차림으로 출근했으며 5시께 퇴근했다. 김 회장은 건강을 상당히 회복한 모습이었으며 “건강은 어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건강은 괜찮습니다”라

고 말했다. 또 삼성그룹과의 빅딜 소감에 대해서는 “기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삼성테크윈 등 삼성 노조 반발에 대해서는 “삼성에서 잘할 것으로 봅니다”라고 답했다.

김 회장은 2012년 8월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고 나서 건강상태 악화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 병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았다. 이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극적으로 출소했다. 김 회장은 지난 7월부터 서울 외곽의 한 장애인 재활시설에서 하루 8시간씩 사회봉사를 해왔고 11월 말 300시간을 모두 채우며 복귀를 준비했다.

이에 재계에서는 김 회장이 그룹 회장으로 공식적인 대외활동을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삼성그룹과의 빅딜을 비롯해 그에 앞서 4년여 만에 이뤄진 연말 정기 임원인사와 최측근의 경영기획실장 복귀 등 최근 한 달 새 전격적으로 이뤄진 한화그룹 행보가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김 회장이 대표이사직에 복귀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김 회장은 지난 2월 유죄 판결 확정 직후 ㈜한화과 한화

케미칼, 한화켄리리아, 한화건설 등 7개 계열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그를 지주사인 ㈜한화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1년이 안 지난 사람이 제조업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등을 적용받는다. 이에 김 회장은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다. 김 회장은 현재 대주주 지위에만 있어 계약체결 등의 능력은 없어 법적 규제가 없는 한화그룹 회장이라는 지위로 활동을 재개한 셈이다.

김 회장이 대표이사에 복귀하는 가장 빠른 길은 사면이다. 김 회장은 앞서 2007년 보복 폭행 사건때도 ㈜한화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고서, 이듬해 특별사면을 받아 대표이사직에 복귀한 전례가 있다. 이에 재계는 서민생계형 범죄자에 특별사면을 한정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성탄절이나 설 특사에 기업인을 포함할지에 이목이 쏠려 있다. **조남호 기자 sprdn@**

IM 무선사업부 ‘칼바람’... 여성·외국인 인재 중용

(14명) (9명)

삼성 2015년 임원인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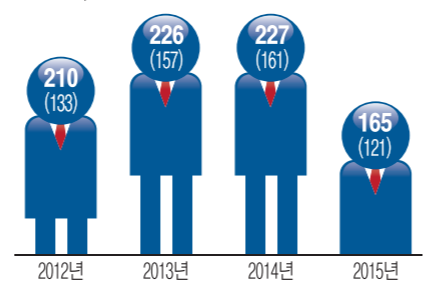
예상대로 ‘승진 잔치’는 없었다. 4일 삼성그룹이 발표한 2015년 임원인사는 최근 5년간 가장 적은 353명의 승진자 명단이 발표됐다. 이는 올해 삼성 계열사 전반에 걸친 실적 부진이 낳은 결과다.

특히 삼성전자는 1년 만에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에 힘입어 역대 가장 많은 226명의 승진자를 배출했다. 이 중 새로 ‘별’을 단 신임 임원은 161명에 달했고, 세트 부문의 발탁 승진은 35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IM(IT·모바일) 부문 무선사업부 중심으로 칼바람이 불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227명보다 62명 줄어든 165명이 승진했다. 일각에서는 이번엔 무선사업부 임원 약 200명 가운데 20% 가량이 2선으로 물러나거나 퇴임할 것으로 관측했다. 앞선 사장단 인사에서 무선사업부의 이돈주 전략마케팅실장, 김재권 글로벌엔지니어링실장, 이철환 개발담당 사장 등 3명이 물러났고, 홍원표 미디어솔루션센터장이 글로벌마케팅전략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따른 후속 조치로 거론된다.

성과주의 인사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삼성그룹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발

삼성전자 최근 4년간 임원 승진 인사



탁 인사를 진행했다. 삼성그룹은 연령과 연차를 불문하고 해당 분야에서 탁월한 실적을 거둔 삼성전자 신우근 상무 등 56명을 발탁, 승진시켰다. 특히 삼성전자 실리콘밸리연구소 프라나브 VP, 삼성전자

미국법인 컨슈머영역 데이비다스 SVP 등 30대의 해외 현지인을 본사 임원으로 승진(상무)시켜 실력과 성과에 기반한 인사철학을 재확인했다.

여성과 외국인 인재 중용도 두드러졌다. 삼성은 삼성전자 하혜승 전무 등 14명의 여성 임원을 승진시켰다. 이 중 여성 공채 3명을 포함, 13명이 신임 임원이다.

외국인 승진 규모는 지난해 12명보다 3명 줄었지만 2013년 미국 팀백스터 부사장, 2014년 중국 왕룡 부사장에 이어 세 번째로 데이비트스 전무(삼성전자 북미총괄 기획홍보팀장)를 본사 부사장으로 승진시켜 글로벌 시장 및 대고객 커뮤니케이션 강화의 중책을 부여했다. **정효진 기자 js62@**

현대중공업 연쇄파업 조짐

현대미포조선·삼호중공업도 노조 파업시기 통보 ‘일촉즉발’

현대중공업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계열사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4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계열사 노조가 사측과 임금 및 단체 협약 교섭에 난항을 겪으면서 파업시기를 최종 통보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이날 2차 부분파업에 나서는 만큼, 파업이 계열사로 번지는 ‘연쇄파업’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미포조선 노조는 지난 1일 울산본사에서 회의를 열고 단체협상 최종시한을 결정했다. 노조는 다음날인 2일 사측에 임단협 교섭에 성실하게 임해달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노조는 오는 5일을 교섭 최종결렬 시한으로 정하고 사측이 이날까지 새로운 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8일 노동쟁의 재조정을 청하는 등 파업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6일 사측과 기본급 3만7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격려금 통상임금 100%+300만원 지급 정기상여금 700% 통상임금 포함 등을 골자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지난달 7일 전체 조합원 2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투표에서 반대 57%로 부결됐다.

현대삼호중공업지회도 같은 날 사측과 마련한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나 과반수 이상이 반대해 부결됐다. 이후 교섭을 이어가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태다. 현대삼호중공업지회는 노사간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김병근 기자 nova@**

더 강력해진 모습으로... 혼다 'New CR-V' 출시



혼다코리아가 3일 서울 용산구 혼다 KCC 모터스 강북점시장에서 New CR-V를 선보이고 있다. New CR-V는 차세대 파워트레인 기술인 ‘어스드림 테크놀로지’가 반영된 2.4L 직분사 엔진과 최첨단 무인자동변속기 CVT탑재로 동력 성능은 물론 친환경적 성능까지 향상됐다. 복합연비는 기존 10.4km/ℓ에서 11.6km/ℓ로 이전 모델 대비 약 12% 개선됐으며 최대 토크도 약 11% 향상된 25.0kg·m로 주행시 보다 업그레이드된 성능을 발휘한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프랑스 베이커리 ‘포송’ 씹쓸한 퇴장

신동빈 회장 조카 한때 운영 ‘재벌빵집’ 논란 일자 손 떼 가맹사업 직접 진출했지만 사업시작 1년여 만에 철수

한 때 재벌빵집 논란을 일으켰던 ‘포송’이 한국 가맹사업을 접었다.

포송은 2010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조카 장선운씨가 롯데쇼핑과 함께 ‘블리스’라는 회사를 만들어 운영했던 프랑스 베이커리 브랜드다. 이후 2012년 재벌빵집 논란이 일어나자 장씨는 블리스의 지분 모두를 영유통과 매일유업 등에 매각하고 재벌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13년 초 포송의 가맹사업을 위해 한국에 직접 진출했던 ‘포송 에스아에스’가 지난달 24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 등록을 자진취소했다. 가맹사업에 정보공개 등록은 필수인 만큼, 자진취소는 곧 사업 철수를 의미한다.

포송 에스아에스의 가맹사업 포기는 사업 시작 1년 1개월 만이다. 장씨와 결별한 프랑스 포송 본사는 지난해 10월 가맹사업을 위해 한국에 법인을 설립했다. 당시 포송 측은 “국내에서 포송을 직접 운영하던 블리스와 별도로 프랑스 본사가 가맹사업을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내 베이커리 브랜드를 긴장시키기도 했다.

가맹사업을 접기 전까지 포송의 사업 주체는 직영과 가맹, 두 개로 나뉘어 있었다.

장선운씨가 매각한 블리스가 백화점 등에 직영점을 운영을 맡아 현재도 영업 중이며, 다른 하나는 포송 에스아에스가 진행하던 가맹사업이다.

포송의 가맹사업 포기 이유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포송이 장씨와 결별한 후 가맹 시장에 뛰어 들었으나 시장 포화에 따른 경쟁 심화로 제대로 사업을 펼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업계 관계자는 “블리스를 인수한 영유통이 대기업을 상대로 규정보다 신규점 출점에 제한이 있어 프랑스 본사가 나섰는데 사업 확장이 잘 이뤄지지 못했다”며 “1호점도 내지 않은 건 가맹사업을 일찌감치 접은 것”이라고 말했다.

윤철규 기자 yoonck@

12월 자동차 판매 조건

업체	혜택
현대차	조기구매 우대조건(구입 시기에 따라 5만~15만원 할인), 노후차 특별 판촉(5년 이상 된 차량 보유고객에게 이반데, LF쏘나타, 그랜저 50만원 할인), YF 쏘나타 최대 350만원 지원
기아차	K시리즈·모닝 취득세 할인(차량 가격의 7%+연식 보상 10만~20만원 할인+5년 이상 된 차량 보유 시 50만원 할인)
한국지엠	현금지급+유류비 지원(캡티바 220만원, 말리부·올란도 190만원), 3년 이상 된 차량 보유 시 30만원 추가 할인
르노삼성	SM시리즈, QM5 (19일까지 출고 20만원 할인, 재고차량 구매 시 최대 200만원 할인)
쌍용차	4륜구동 무상 장착, ‘체어맨 W·H’ 모델 개별소비세 100만원 지원, ‘체어맨 V8 5000’ 유류비 1000만원 지급

자동차 업계 ‘12월 대전’

현대차 전차종 최대 15만원 싸게
기아차 자동차세·취득세 지원 등
과격할인 등 공격적 마케팅 펼쳐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12월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친다. 과격적인 가격할인과 금융혜택을 제공, 올 한해 판매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현대자동차는 2일부터 전 차종 출고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5만원을 할인해주는 ‘조기구매 우대조건’을 실시한다.

조기구매 고객은 12월 중 구입 시기에 따라 △1-5일 구매 15만원 △18-12일 구매 10만원 △15-22일 구매 5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현대차는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5년 이상된 차량을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노후차 특별 판촉’도 병행한다. ‘아반떼’, ‘LF쏘나타’, ‘그랜저’를 구매한 고객은 50만원, ‘엑센트’를 구매한 고객은 30만원까지 할인해준다. 특히 ‘YF쏘나타 하이브리드’는 최대 350만원(기본 할인 250만원+특별 지원 100만원) 깎아주고 ‘제네시스’는 55만원까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기아자동차는 ‘모닝’과 가솔린 차량의 K시리즈(K3·5·7) 구매자에게는 자동차세 또는 취득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텍스 제로(Tax Zero) 특별혜택’을 준비했다.

다. 이를 활용해 K시리즈를 구매하면 취득세에 해당하는 차량 공급가의 7%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 금액은 최고 사양 기준으로 K3는 최대 167만원, K5는 최대 238만원, K7은 최대 312만원이다. 모닝은 80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은 ‘스알페온’ 최대 250만원 ‘캡티바’ 220만원 ‘스 말리부·올란도’ 190만원 등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3년 이상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3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무이자 할부 및 다양한 조차리 할부(1%, 1.9%, 2.9%, 3.9%, 5.8%) 혜택도 제공한다.

르노삼성자동차는 ‘SM시리즈(SM3·5·7)와 QM5 차종을 구매한 뒤 이달 19일까지 조기 출고하는 고객에 20만원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재고 차량을 구매할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깎아준다.

쌍용차는 ‘체어맨(W·C·W600·700)’와 ‘렉스턴 W’, ‘코란도 투리스모’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4WD(4륜구동)를 무상으로 장착해 준다. 또 체어맨 W와 체어맨 H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100만원을 지원한다. ‘체어맨 V8 5000’의 경우 유류비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코란도 C’ 구매자에게는 취득세(차량가격의 7%)를 지원하고, 선수를 20% 무이자 36개월 할부, 선수를 없이 3.9% 저리 72개월 할부도 새롭게 운영한다. **김병근 기자 nova@**

이통3사 말뿐인 ‘위약금 폐지’

약정할인 부분만 없애... 보조금·요금할인 위약금은 유지

LG유플러스를 마지막으로 3일부터 약정할인에 대한 위약금이 전면 폐지됐다. 하지만 보조금·요금할인 위약금은 여전히 존재, 이통3사의 약정할인 위약금 폐지가 생색내기엔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보통 2년 약정기간을 채우는 조건으로 통신비를 할인 받았다. 대신 중간에 해지하면 할인분의 60%를 위약금 명목으로 물린 차이가 없다.

하지만 단통법 이후 위약금이 가계통신비를 높인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통신사들이 잇따라 위약금 폐지가 나섰다.

가장 앞서 약정할인 위약금을 없애 곳은 KT로, 지난달 12일부터 ‘순액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SK텔레콤 역시 1일부터 약정할인 위약금을 폐지했다.

그러나 보조금에 대한 위약금,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은 그대로 남아있어 ‘위약

금 폐지’라는 이통사들의 주장이 말뿐이라는 업계의 지적이다. 보조금 위약금은 소비자가 약정기간 내에 해지하면 받았던 보조금을 뺀어내게 하는 제도다.

1년 이상 약정계약을 조건으로 월12%의 요금할인을 받은 고객 역시 해지할 경우 이에 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위약금을 어떤 방식으로 물리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사실상 폐지된 약정할인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안건결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통사들이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지만 조금도 손해볼 게 없다”면서 “이통사들은 모든 위약금을 없애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일정기간(6개월 가량)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면 모든 위약금을 면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통사의 반발로 아무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박성태 기자 psj@**

KT, 합산규제 저지 위한 ‘덤핑영업’ 논란

KT가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 합산규제’ 개정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 덤핑 영업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4일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최근 KT동부산지사는 부산 거제동에 위치한 일부 아파트에 디지털 유료 방송(187개 채널)을 가구당 매달 6600~7000원에 제공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담긴 지사장 명의의 제안서를 발송했다. 제안서를 받은 곳은 총 2000여 가구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같은 KT측 영업 방식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평균 유료TV 요금이 8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KT는 6000~7000원을 제시하며 저가 출혈 경쟁을 하고 있는 셈”이라며 “이는 KT와 KT

스카이라이프가 합산규제선인 33%를 넘겨 강력한 반대 논리를 만들기 위한 반칙”이라고 지적했다. “3분의 1로 합산규제하면 가입자를 강제해 해지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규제 법안의 실효성을 없애려는 게 아니냐는 의미다.

현행 방송법에선 유료방송 시장에 대해 ‘가입자 3분의 1 초과 금지’를 적용해 시장 독과점을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에 위법방송은 제외돼 있어 업계는 스카이라이프(위성방송)를 운영하는 KT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 현재 IPTV와 위성방송까지 합한 KT 가입자는 연내 전체 시장의 3분의 1(33%)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규제하는 시행령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겨울의류 판매부진 걱정했는데”

동장군 오셨다... 창고 문 열어라

이마트, 할인전 3주 앞당겨 게릴라 세일
롯데백화점 '프리미엄 패딩' 등 할인 판매



롯데백화점이 겨울세일 마지막인 5~7일 프리미엄 패딩 브랜드의 단독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사진제공 롯데백화점

12월 초부터 기승을 부린 동장군 덕에 유통업체들이 분주해졌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가는 이번 주말을 최대 대목으로 보고 겨울의류 창고 대방출에 돌입한다.

이마트는 매년 12월 말부터 진행했던 '겨울의류 창고 대방출전'을 3주 이상 앞당겨 이번주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자체 패션 브랜드 데이즈(Daiz)의 겨울 대표 아우터를 최대 4만원까지 할인하는 등, 총 500여개 대표 겨울패션 상품을 최대 30% 할인 판매할 계획이다.

이중훈 이마트 마케팅팀장은 “따뜻한 겨울 탓에 두꺼운 한겨울 용 패션 상품의 판매 속도가 예년에 비해 크게 뒤처지며 연말 실적이 악화되는 상황”이라며 “이번주 한과가 예보됨에 따라 창고 대방출전을 대폭 앞당겼다”고 말했다.

롯데마트는 4일부터 2주간 겨울의류를 최대 40% 저렴하게 판매하는 '겨울상품 기획전'을 진행한다. 점퍼, 플리스, 레깅스, 내의 등 겨울의류 총 520여종을 정산

가보다 최대 40% 할인해준다. 또 보아잠퍼를 1만5000원, 플리스 점퍼 1만1400원, 아동 플리스 티셔츠를 1만400원에 각각 선보인다.

롯데백화점은 이번주 세일 마지막 3일간 프리미엄 패딩, 패딩부츠 등 방한용품을 할인 판매한다. 또 본점과 잠실점, 에비뉴엘월드타워점, 부산본점 등 4개 점포에서는 5~7일까지 본 매장에서 노비스, 파라점프, 맥케이지 등 프리미엄패딩 4개 브랜드가 참여해 모든 상품을 10~30% 할인해 준다.

윤철규 기자 yoonck@

달래·봄동... 봄채소 맛보세요



12월 한겨울이지만 이마트가 벌써 매장에 봄채소를 선보여 눈길을 끈다. 이마트는 2일부터 달래(1280원, 80g), 봄동(1580원, 500g), 들나물(1150원, 150g)을 비롯해 유채와 냉이까지 '봄채소 5총사'를 판매한다. 이날 오전 서울 한강로동 이마트 용산점에서 도우미들이 봄채소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이마트

제과업계 '허니버터칩' 따라하기 경쟁

롯데·농심, 꿀·버터 활용 신제품 곧 출시
도미노피자·뚜레쥬르도 허니 열풍 합류



해태제과가 지난 8월에 출시한 허니버터칩이 달콤하고 고소한 맛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제공 해태제과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관련 업계에서 꿀과 버터를 활용한 제품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달콤한 맛 열풍에 편승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4월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제과는 '츄러스' 형태의 스낵 신제품을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다. 허니버터칩이 꿀과 버터로 풍미를 더했다면, 롯데제과의 신제품은 빵 타입 스낵으로 설탕의 달콤함과 버터의 달달한 맛이 조화를 이룬 것이 특징이다.

농심도 감자칩의 다양한 맛을 구현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농심 측은 “자사의 감자칩 제품 칩포테도나 수미칩 등 기존의 감자칩 맛을 다양화하기 위해 제품 개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과업계 한 관계자는 “꿀과 버터를 활용해 허니버터칩에 대항할 신제품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허니버터칩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음에도 해태제과가 설비 증설을 계획하고 있지 않아 비슷한 맛의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오리온이 허니버터칩과 같은 시기에 출시한

'포카칩 스위트맛'은 월 매출 15억원을 올린다. 최근에는 18억원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다

외식업계는 꿀과 버터를 활용한 신메뉴를 속속 선보이고 있다. 도미노피자는 최근 겨울 신메뉴로 허니소스를 뿌려 먹거나 찍어먹을 수 있는 '올댓치즈 피자'를 선보였다. CJ제일제당의 빵디젤에서는 제주 감귤 꽃으로 만든 꿀 시럽이 함유된 '스윗푸딩 허니블러썸'을 출시했다. 뚜레쥬르는 강원도 영월에서 채집한 100% 아카시아꿀을 사용한 '순꿀' 시리즈를 선보였다.

이선애 기자 isa@etoday.co.kr

롯데리아 베트남에서도 만나요

하노이서 해외 첫 가맹점 오픈

롯데리아가 2일 베트남에 해외 최초 가맹 1호점인 종근점점을 공식 오픈했다.

롯데리아는 베트남에서 208개의 매장을 갖고 있지

만 모두 직영점이다. 롯데리아 종근점점은 베트남 하노이 중심지에 있으며 100평 규모의 대형 매장이다.

롯데리아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베트남 현지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참여하고 현지 언론 홍보 등을 통해 가맹유치를 적극 추진했다. 롯데리아는 이번 베트남 가맹 1호점 매장 운영을 통해 2015년까지 호찌민, 하노이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15개 점을 오픈할 계획이다.

윤철규 기자 yoonck@

영업 중인 '코스트코'에 '롯데프리미엄아웃렛' 내일 '이케아' 18일 오픈

광명시 '쇼핑 특구'로 거듭난다

서해안-제2경인 등 교차점 위치

글로벌 유통 브랜드 3개사 모여

서로 업체 다르고 교통망도 좋아

쇼핑족 핫플레이스 부상 할 듯



코스트코.

롯데프리미엄아웃렛.

이케아.

롯데프리미엄아웃렛과 이케아, 코스트코 등 국내 대표 유통업체와 외국계 할인점이 광명시 도심에 모여 '삼각 동거'를 시작한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유통 브랜드들이 광역 교통의 중심에 한 데 모인 만큼 '쇼핑 특구'로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롯데프리미엄아웃렛 광명점'은 이달 5일 문을 연다. 이어 18일에는 롯데프리미엄아웃렛 바로 옆에 스웨덴 가구공룡 이케아(IKEA)가 오픈할 예정이다. 코스트코(COSTCO) 광명점은 이미 이케아가 들어설 맞은 편에서 영업 중이다.

이들이 모인 곳은 '사통팔달(四通八達)' 광역교통의 중심지다. 서울-경기권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 상권의 고객까지 흡수할 수 있는 '블랙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서해안-제2경인-제3경인-의곽순환도로의 교차점인 일직분기점에서 차량으로 2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자동차로 방문하기도

쉽다. 또한 KTX광명역에서는 차량으로는 단 5분, 도보로는 10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하다. 영등포, 관악 등 서울 서남권에서도 차량으로 20분 이내, 인천 등 경인지역에서도 30분 이내로 도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세 종류의 서로 다른 유통 업체가 모여 있다는 게 쇼핑객들에게 아주 매력적이다. 파괴력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이다.

롯데프리미엄아웃렛 광명점은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로 연면적은 12만5600㎡(3만8000평)에 영업면적 3만8700㎡(1만1700평)로 과주점과 비슷한 규모를 자랑한다. 교외형 프리미엄아웃렛은 보통 넓은 부지에 2~4개 동으로 나뉘어 있는 개방형 구조인 반면, 광명점은 실내용 쇼핑몰 구조로 사계절 쾌적한 쇼핑을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광명점의 브랜드 수는 총 311개로 글로벌 가구 이케아와 연결돼 있고, 가전전문점인 하이마트도

입점돼 있어 패션뿐만 아니라 가전, 가구, 리빙상품까지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다.

롯데 아울렛과 연결된 이케아의 위용은 쇼핑특구로 거듭나기에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이케아는 이곳에 세계 최대(연면적 13만1550㎡) 매장을 선보일 예정이다. 취급하는 가구와 생활용품은 총 8000여종에 달해 쇼핑족들에게 새로움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동해의 일본해 표기와 비싼 가격 등의 논란으로 한국 소비자들에게 거센 비판에 직면했지만 한국에서 첫 매장을 여는 만큼 전국 각지에서 방문객이 몰릴 것은 자명하다.

패션과 잡화, 가구 쇼핑을 마치면 곧바로 생활용품이나 신선식품, 먹거리 쇼핑에 나설 수 있을 정도로 코스트코 광명점이 맞은 편에 위치해 있다. 원스톱 쇼핑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시간 절약은 물론 새로운 쇼핑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윤철규 기자 yoonck@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4-06415 (2014.09.26~2015.09.24)

NH농협금융

전화로 묻지 마세요! 검색으로 찾지 마세요!

연금전문가가 직접 찾아갑니다

연금저축? 연금보험? 절세? 수익률? 복잡한 연금고민!
우리투자증권의 연금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풀어드립니다

찾아가는 연금서비스(2014. 8. 25~12. 31)
신청방법: 고객센터(1544-0000) / 홈페이지, HTS 등
*상담 완료 고객 대상 파티바코드 기프트쇼 1매(5천원권) 증정

100세시대 연금저축계좌 EVENT 2014. 8. 1~12. 31 (기간 내 가입 및 이전한 모든 고객 대상)

[EVENT 1] 신규 가입 고객 이벤트
 지급조건: 10만원 이상 펀드 매수 주문 & 10만원 이상/3년 이상 자동이체 약정
 제공혜택: 농촌사랑상품권 1만원

[EVENT 2] 가입/이전 고객 이벤트
 4백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농촌사랑상품권 2만원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농촌사랑상품권 3만원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농촌사랑상품권 5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농촌사랑상품권 10만원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농촌사랑상품권 50만원
 3억원 이상: 농촌사랑상품권 100만원

[EVENT 3] 단체 가입 고객 이벤트 (~11월 30일까지)
 지급조건: 최소 5인 이상 단체 등록
 제공혜택: CJ오쇼핑상품권 *5인 이상 초과마다 워킹상품권 5만원 추가 지급

100세시대 연금저축계좌란? 하나의 계좌 안에서 다양한 연금저축펀드에 투자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장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위험이 있습니다. ■ 당사는 위험성, 수익률, 수수료, 해지방법 등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영업점으로부터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제세공과금(22%)은 고객부담입니다.

'이웃과 후 나눠타는' 임대주택 나온다

서울시, 2018년까지 공동체형 주택 등 8만가구 추가 공급
어르신과 대학생 틈새어령...나눔카·빈집활용 주택 첫선
월 임대료 20만원 내외...시세 90%에 최대 10년 재임대

서울시가 2018년까지 다양한 종류의 임대주택 8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발표를 보면, 전체 공급물량 중 민간임대주택이 2만 가구를 차지하는 만큼 이 분야 공급에 있어 임대기간과 비용절감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세가격은 오르고 월세가 늘고 있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임대주택 수요가 늘어가고 있는 만큼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을 적절히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우선 서울형 민간임대주택으로 독

립적 거주공간을 확보하면서 이웃과 교환할 수 있는 공동체형 주택 3096가구를 공급한다.

공동체형 주택으로는 13세대 융합형 틈새어령, 나눔카 주택, 빈집 활용 공동체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을 처음으로 선보이고 기존의 협동조합형 공동주택도 확대한다.

어르신과 대학생이 한집에서 사는 13세대 융합형 틈새어령사업은 대학생에게는 저렴한 주거를 공급하고, 어르신에게는 적합한 해소할 기회와 임대수입을 제공하는 정책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또 1실당 주거환경개선비로 5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월 임대료를 20만원

내외로 저렴하게 책정할 방침이다.

시는 정비(예정)구역 등 6년 이내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을 사회적기업에서 리모델링한 후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빈집 활용 공동체 주택, 초기 사업 자금이 부족한 사회적기업에 공공 소유의 토지를 임대해 주택을 짓게 하는 토지임대부 주택도 선보인다.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은 총 30여곳으로 향후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한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를 시세의 90%로 낮추는 대신 시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25만원씩 지원하고 부동산 포탈(네이버·다음)을 통해 홍보한다.

시는 아울러 평상시 임대주택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민간임대업자가 SH공사에 위탁관리를 맡기면 공사가 업무를 대행하고, 세입자에게는 시세의 90% 수준으로 최대 10년간 재임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내년부터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사

금 용자를 가구당 최대 1억5000만원까지 2.0%의 금리로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형 1만6969가구 △매입형 1만5080가구 △임차형 2만8000가구가 공급된다.

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거비용을 상향하고 임대주택 건설 용적률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진 실장은 "현재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며, 곧 이과 관련 MOU도 체결할 예정이다. 또 임대주택 8만 가구 공급 중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중요한 만큼 적절한 임대기간과 저렴한 임대비용 맞추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임대주택 8만 가구 공급은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민간임대사업자 등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태진 기자 tipippo@



'백석 3차 아이파크' 805가구 '흥행불패' 천안, 막차 타볼까

HDC 현대산업개발

실수요 30~40대 인구 증가 주목
백석지구 마지막 브랜드 단지
현대산업개발 1·2차 포함
3407가구 대단지 타운 형성
전용 74·84·99㎡ 평형도 다양

현대산업개발은 이달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백석지구에 '백석 3차 아이파크' 805가구를 공급한다.

천안시는 광역수도권 지역의 '위례 신도시'로 불릴 만큼 부동산 열기가 뜨거운 곳으로 평가된다. 풍부한 산업단지인 인화 일자리 공단으로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어 매매가 및 전세가격이 모두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SDI·삼성디스플레이 등 산업단지만 13곳이 밀집해 2013년 59만명이던 인구가 9% 증가, 61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주택 수요 비중이 높은 30~40대의 인구증가폭이 두드러져 실수요가 풍부한 것도 장점이다. 이로 인해 하반기 분양한 단지 모두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가구 1순위 마감을 기록한 바 있다.

백석 3차 아이파크는 백석지구 내에 공급되는 마지막 아이파크 브랜드 단지다. 백석지구는 5000여 가구로 조성되는 민간도시개발지구로 천안의 대표적인 주거 선호 지역으로 평가된다.

특히 백석지구 안에서만 아이파크 2개 단지를 이미 공급한 바 있는 현대산업개발은 이번 3차 단지 공급물량을 포함해 총 3407가구의 대규모 브랜드 타운을 조성하

게 된다. 현대산업개발의 백석 3차 아이파크는 '대단지' 프리미엄과 뛰어난 입지 여건을 앞세워 1·2차 단지와 마찬가지로 흥행 보증수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백석3차 아이파크는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28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9개동 전용면적 74~99㎡ 805가구가 구성된다. 전용 74㎡A 144가구, 74㎡B 24가구, 84㎡A 368가구, 84㎡B 93가구, 99㎡ 176가구 등 중소형부터 중대형까지 다양한 주택형으로 공급된다. 모든 단지가 남향 위주로 배치돼 풍부한 일조권을 보장한다. 백석지구 내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틈새 주택형인 74㎡는 실속을 추구하는 1인 가구 및 신혼부부 고객들을 타깃으로 설계됐다. 주력 주택형인 84㎡는 4베이 판상형으로 통풍과 환기에 유리하고 알라룸까지 제공해 다양한 공간 연출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가장 큰 주택형인 99㎡는 대가족이나 넉넉한 공간을 원하는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석3차 아이파크 단지 바로 앞에는 한서초등학교 및 한서중학교가 있어 안전하게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단지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안에 위치해 인근에 유해업소나 유해시설이 없다. 교통여건도 우수하다. KTX 천안아산역과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등을 이용해 수도권 및 타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며 지하철 1호선 천안역, 두정역도 자동차로 15분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마트(서북점), 롯데마트(성정점), 코스트코(천안점), 갤러리아백화점 등의 상업시설과 천안시청, 천안종합운동장 등과 가까워 높은 생활편의성을 제공한다.

한편 백석3차 아이파크 모델하우스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통계청 사거리에 위치하며 다음달 초 오픈할 예정이다. 백석 3차 아이파크의 입주 예정일은 오는 2017년 4월이다. 문의전화 041-562-1111.

구성현 기자 carlove@

"내년 수도권 집값·전셋값 더 오른다"

주산연 '2015 주택시장 전망'
매매가 2.0%·전세가 5.0%↑
임차시장 안정화 정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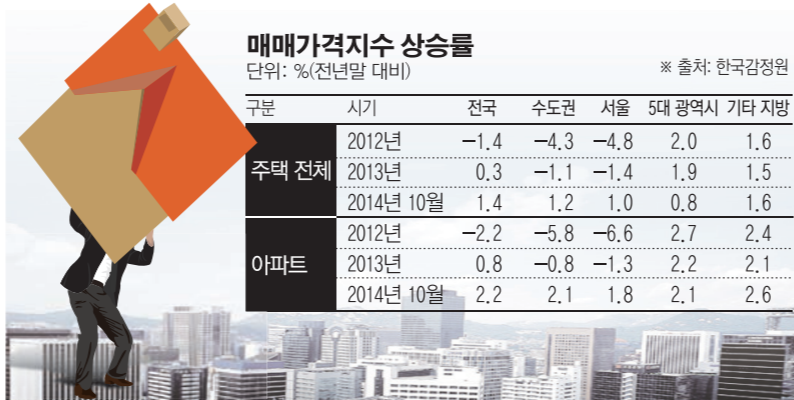
내년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집값과 전셋값이 올해보다 많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2015년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는 2.0%, 전세가는 3.5% 각각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전국의 주택 매매가 1.7%, 전세가는 3.2% 오른 것과 비교하면 가격 상승폭이 올해보다 더 클 것으로 분석했다.

주산연은 그동안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했던 지방의 상승폭은 둔화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미미한 상승세로 전환한 서울·수도권의 집값과 전셋값이 올해보다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5% 상승한 수도권 집값은 내년에는 2.0%, 올해 4.5% 오른 수도권의 전셋값은 내년에는 5.0%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의 집값 상승률은 올해 1.8%에



서 내년 1.5%로, 전셋값은 올해 2.1%에서 내년 2.0%로 모두 올해보다 상승폭이 줄어들 전망이다.

김덕래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하반기 미미한 상승세로 돌아선 서울·수도권 집값이 내년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특히 수도권 전셋값은 서울의 가격 상승 압력으로 올해보다 더 많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주산연은 올해 하반기 이후 금융 규제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 등의 효과로 주택시장이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에도 이런 회복기조를 유지하려면 매매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과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정부가 전세 정책을 펼 때 일반·서민층의 전세주택과 주택 보유층의 고가 전세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올 하반기 이후 주택시장이 회복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했다"며 "내년에도 회복기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전월세시장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광명역 호반베르디움' 견본주택에 입장하려는 방문객들이 길게 줄서 있다.

광명역 호반베르디움 최고 15.9대 1로 완판

광명역세권 올해 마지막 분양 물량인 호반건설의 '광명역 호반베르디움'이 최고 15.9대 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이 1순위 마감됐다.

3일 금융결제원과 호반건설에 따르면 2일 진행된 호반 베르디움 1·2순위 청약 결과 1214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순위에만 9398명이 지원했다. 평균 77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모든 주택형이 1순위에서 모집 가구 수를 채운 것이다.

전용면적 59㎡ 329가구 모집에는 5236명이 신청해 최고 1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밖에 전용 84㎡ D형 9.1대 1 △84㎡ A형 5.6대 1 △84㎡ B형 5.2대 1 △84㎡ C형 2.5대 1 △98㎡ 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당첨자 발표는 9일, 계약은 16~18일 진행하며 입주는 2018년 3월 예정이다.

정경진 기자 jungji@

1시간 속성 해설 셰일가스 혁명
미즈미야 와타루(水谷 渉) 지

셰일가스 혁명이 가져올 엄청난 변화와 세계 에너지 패권을 뒤흔든다!
100년 만에 찾아온 초특급 에너지 혁명이 세상의 승자와 패자를 뒤흔든다!
셰일가스와 관련된 주요 110개 기업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정체된 IT 산업, 반격에 나선 조선, 철강, 항공, 철도, 소재 산업...
일본 중후장대(重厚長大) 산업의 대부활!

미즈미야 와타루(水谷 渉) 지음
U&J유엔케이 번역
한국판 199쪽 120,000원

꿈의 에너지 셰일가스혁명!!!

100년 만에 찾아온 초특급 에너지 혁명이 세상의 승자와 패자를 뒤흔든다!

- 세계에너지 패권 경쟁과 기업의 흥망성쇠 전망
- 미국·일본 제조업 부활...세계에 미칠 영향 심도있는 분석
- 전기자동차·항공산업·조선산업 '대부흥' 예측
- 중동의 발전권 약화...천연가스 대국 러시아 위상 흔들 '다원적 에너지 패권시대' 도래

'제3의 에너지' 셰일가스 전쟁시작... 싸움준비 됐습니까 (조선일보 2013년 5월 23일)
OPEC '美 셰일가스 대응' 사본오열 (파이낸셜뉴스 2013년 5월 29일)
유럽까지 셰일가스 혁명... 에너지 독립 부른 꿈 (동아일보 2013년 7월 25일)
"셰일가스 인프라에 투자할 때" (한국경제 2013년 7월 31일)
"셰일가스 혁명 대처 못하면 도태" (한국경제 2013년 8월 2일)
셰일가스 시추장비 대대적 국산화 나선다 (헤럴드경제 2013년 9월 9일)
가장 비싼가스 쓰는 한국, 셰일가스로 에너지비용 줄여라 (매일경제 2013년 9월 11일)

미즈미야 와타루(水谷 渉) 이력

- 일본 경제신문 산교타임즈 대표이사겸 사장
-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출신
- 주오(中央)대학 법학부 정치학과 졸업
- 1977년 산업타임즈사 입사
- 1991년에 반도체 산업 신문 발간, 편집장 취임
- 현재 일본반도체협회 부회장(회장대행)
- 일본 반도체 벤처협회 이사
- 제주시·부산시 명예시민(기업유치공로)

엑손모빌 “유가 40달러까진 끄떡없다”



틸러슨 CEO, 40-120달러 전제로 사업 진행 저금리 자금조달 세일업체, 금리 오르면 타격

미국의 세계 최대 정유업체 엑손모빌은 유가가 40달러까지 하락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전문방송 CNBC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렉스 틸러슨 엑손모빌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경제단체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usiness Roundtable)’이 워싱턴DC에서 개최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최고경영자(CEO)들과의 회동을 앞두고 이 같이 밝혔다.

틸러슨 CEO는 “액화천연가스 등 심해 채굴 등 거대 프로젝트 투자는 유가가 40-120달러에서 움직인다는 가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엑손모빌의 수용 가능한 유가의 바닥이 어디냐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설명하고 “저유가 시대는 정유업체가 모든 부문에서 기본으로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 확대 등 의욕적인 부분보다는 보유 현금과 사업성 등 펀더멘털이

중요한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에 불고 있는 ‘세일붐’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틸러슨 CEO는 “소규모의 비전통적인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며 “저금리 시대를 맞아 원유생산시장의 진입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으며, 좋은 부류와 그렇지 않은 부류도 있다”면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오는 2015년부터 금리를 올리는 등 본격적인 긴축에 들어갈 경우, 저금리에 의존해 자금을 차입하고 있는 세일업체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틸러슨 CEO의 발언은 최근 석유 수출국기구(OPEC)의 산유량 동결 조치 이후 국제유가가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OPEC은 지난달 말 각료회의에서 산유량을 하루 3000만 배럴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OPEC의 결정 이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이 배럴당 66달러대로 떨어지는 등 유가는 5년 만에 최저치로 밀렸다. 북해산 브렌트유와 WTI는 지난 6월 고점에서 40% 가량 하락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OPEC의 ‘오일전쟁’ 선포에도 미국의 산유량은 오히려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CNBC는 오는 2015년 미국의 산유량은 현재 하루 900만 배럴에서 100만 배럴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세일업체 역시 생산을 줄이기는커녕 더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방송은 전했다.

한편, 주요 기업 CEO들은 이날 행사에 앞서 경제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더그 맥밀런 월마트 CEO는 “휘발유 가격 하락은 월마트와 같은 소매업체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미국 경제는 2-3%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랜달 스티븐슨 AT&T CEO는 “정치권의 세계 개혁 정책과 ‘망’ 중립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자본지출 계획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n@



유가하락·루블급락·서방제재 ‘트리플 악재’ 러시아 경제가 흔들린다

통화가치 16년새 하락폭 최대 한해 치른비용만 1400억달러 최근 신용등급 잇단 ‘빨간불’ 내년 성장률 마이너스 전망

“러시아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서방 경제제재에도 자신만만하던 러시아가 처음으로 경제 위기를 인정했다. 서구 제재와 더불어 유가마저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경제가 사실상 벼랑 끝에 몰리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러시아에 ‘제2의 국가 부도’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2일(현지시간)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종전의 1.2%에서 마이너스(-)0.8%로 하향 조정했다. 알렉세이 베데프 경제차관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유가 하락이 핵심 원인의 하나”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저유가에 모라토리엄(국가부도)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전까지만해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권의 경제제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서방권의 경제 제재 강화 움직임에도 푸틴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었다. 고유가로 벌어들인 5000억 달러(약 556조원)에 달하는 외환보유고 등 믿는 구석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푸틴의 자신감과 반대로 러

시아 경제는 최악의 역풍을 맞고 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감산하지 않고 기존 생산량을 고수하겠다고 밝히면서 유가는 곤두박질 치고 있으며 이는 곧 러시아 재정에 적신호가 되고 있다. 지난해 러시아 세입의 절반 이상이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출에서 나왔다.

유가는 지난 6월 중반부터 40% 가까이 떨어졌다. 유가 하락과 맞물려 루블화 가치도 폭락하고 있다. 지난 1월 루블화 가치는 1998년 러시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하락폭을 기록했다. 루블화 가치는 장중 6.5%나 하락했고 이에 달러-루블화 환율은 53.86루블까지 상승했다.

이와 관련해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지난달 러시아 경제가 한해 동안 석유값과 루블화 폭락으로 1000억 달러, 서방의 경제제재로 400억 달러 등 모두 1400억 달러의 비용을 치르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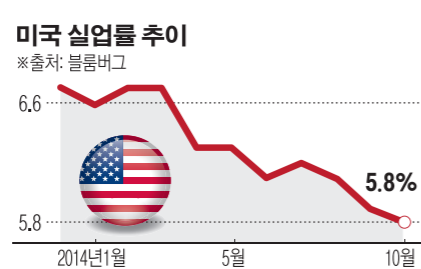
러시아 경제에 대한 암울한 전망은 사실 처음이 아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달 말 러시아 신용등급이 투기수준으로 강등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러시아가 저유가 충격을 극복하려고 국부펀드에서 돈을 꺼내쓰기 시작한 것에 우려한 것이다.

러시아는 국가월별명단에서 약 20%인 160억 달러를 꺼내 국영기업들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 지금은 저유가 타격으로 3년 전보다 13% 증발했다. 또 다른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이보다 앞서 10월 러시아 신용등급을 ‘Baa1’에서 ‘Baa2’로 강등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소비확대·고용회복 美 경제 성장 지속”

연준 베이지북 진단 유가하락에 연료비 줄고 이른 추위에 지갑도 열려 ‘점진적’ ‘완만한’ 표현 빠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고용시장의 회복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3일(현지시간) 평가했다.

연준은 이날 경기평가보고서인 베이지북을 통해 이같이 진단하고 소비지출 확대와 휘발유 가격 하락에 힘입어 경제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를 제출한 12개 연방준비은행은 전반적으로 고용시장의 개선을 보고했으며, 대부분 지역에서 소비 지출 역시 꾸준히 늘었다고 연준은 설명했다.

고용시장의 회복과 함께 기업이 기존 고용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보기술(IT)을 중심으로 연이어링 제조 수송 등 거의 전 분야에서 기업이 고용을 늘리고 있다고 베이지북은 전했다.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연료비용 감소와 함께 예년보다 앞당겨 찾아온 추위 역시 소비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베이지북은 “많은 지역에서 경제활동 전망에 대한 낙관적인 보고가 있었다”며 “물가와 임금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억제

됐다”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는 또 기존 ‘점진적(modest)’ 또는 ‘완만한(moderate)’ 확장이라는 표현이 빠져졌다. 미국의 경제성장이 가속화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베이지북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개최를 2주 앞두고 발간되며,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과 관련해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차기 FOMC는 오는 16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12월 회의에서는 미국 경제 전망이 공개되며, 재닛 옐런 의장이 기자회견에 나설 예정이다.

시장의 관심은 연준이 FOMC 성명에서 ‘상당 기간(for a considerable time)’ 초저금리를 유지한다는 문구를 고수할 것인지에 쏠려 있다.

스탠리 피셔 부의장은 이와 관련 전일 월스트리트저널이 워싱턴DC에서 주최한 최고경영자(CEO)위원회에 참석해 “FOMC 성명에서 ‘상당 기간’이라는 문구를 삭제할 시기가 다가왔다”고 말했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n@



3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개최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usiness Roundtable)’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은 미국이 글로벌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며 국민이 느끼는 것보다 미국 경제는 건고하다고 밝혔다. 또 경제 성장을 위한 핵심 기초는 인프라스트럭처 투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중증시, 18개월안에 주가 2배로”

모건스탠리 낙관론에 베팅

중국증시가 최근 3년래 최고 수준에서 움직이면서 낙관론이 힘을 받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중국증시가 앞으로 18개월내 주가가 두 배 뛰는 ‘초강세(Ultra-bull)’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고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조나선 가너 모건스탠리 아시아·신용시장 전략 대표는 “신규 증권계좌 증가 등 투자자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가 보인다”며 중국증시 초강세를 점쳤다.

그는 “부동산과 같은 대안투자들이 낮

은 투자수익률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 경제는 연착륙할 것으로 예상돼 주식에 투자자가 몰릴 것”이라며 “또 소비로의 경제성장 구조 전환도 증시 강세를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헬스케어와 기술, 금융 등 ‘신경제’에 들어맞는 산업을 선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안투자는 부동산이나 금 등 주식과 채권을 제외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뜻한다.

한편 이날 중국증시 상하이증권거래소 거래량은 5000억 위안(약 90조원)을 넘는 5298억 위안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배준호 기자 baehj94@

英, 다국적기업에 ‘구글세’ 매긴다

“조세회피 차단”...내년부터 수익 25% 세금부과

영국이 자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이른바 ‘구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이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영국에서 거둬들이 이익의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구글세로 알려진 이 제도는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금 대상기업에는 구글을 비롯해 아마존도 포함됐다.

오스본 장관이 이 같은 주장을 펴낸 배

글로벌 리포트

혼다, 다카타 리콜 美전역 확대

일본 혼다자동차는 다카타 에어백과 관련된 리콜을 미국 50개 주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3일(현지시간) 경제전문방송 CNBC가 보도했다.

릭 쇼스텍 혼다 부사장은 이날 하원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고 “내년 6월부터 리콜을 확대할 것”이라며 “습도가 높은 지역에 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다카타는 전일 미국 전역으로 운전석 에어백 리콜을 확대하라는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다카타는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800만대를 리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다카타는 자동차업체의 결정에 협력할 것이라면서 새뮤얼 스카너 전 미국 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3자 위원회를 설치해 에어백 제조 검증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코카콜라 우유광고, 색신콘텐츠 논쟁

최근 우유산업에 도전장을 내민 코카콜라가 색신한 콘텐츠의 광고를 내놓았다가 구설수에 올랐다고 3일(현지시간) CNN이 보도했다.

코카콜라는 ‘페어라이프’ 브랜드로 기존 제품보다 단백질과 칼슘이 50% 많고 설탕은 30% 덜 들어간 프리미엄 우유를 출시했다. 문제는 젊은 여성이 우유로 된 드레스를 입고 도발적 포즈를 취한 사진과

한국, 내년 F1 개최지 다시포함

한국이 2015년도 포뮬러원(F1) 개최지에 다시 포함됐다.

AP통신 등 외신은 3일(현지시간) 국제자동차연맹(FIA) 이사회가 이날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회의에서 코리아 그랑프리 포함해 총 21개 경기로 된 내년도 F1 그랑프리 일정을 확정지었다고 보도했다. 내년도 F1 시즌은 3월15일 호주에서 개막하며 코리아 그랑프리는 시즌 다섯번째인 5월 3일 열릴 예정이다.

다만, 한국 일정은 추후 승인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전라남도도가 역점 사업으로 유치해 2010년부터 매년 경기를 치러왔다. 그러나 적자누적 등으로 인한 논란 끝에 올해는 대회를 개최하지 못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FIA가 공개한 2015년 F1 캘린더 잠정안에 한국이 개최지 명단에 빠져 올해에 이어 내년 역시 개최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시청자 사랑 모아, 어려운 이웃에 '희망의 ★'



나눔 앞장선 방송가

찬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연말 소외된 사람들에게 사랑 나눔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사랑의 온도탑이 모습을 드러냈고, 구세군 밤비도 등장했다. 현재 방송 중인 사랑나눔 프로그램과 예능 프로그램의 기부 프로젝트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사랑나눔 프로그램은 1997년 10월부터 방송된 KBS 1TV '사랑의 리퀘스트'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KBS가 함께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으로 각계각층의 스타들이 출연해 어려운 이웃의 사례를 소개하며 시청자들의 ARS모금 동참을 이끌었다. 1997년부터 2013년까지 '사랑의 리퀘스트'의 모금액은 830억7117만6487원이다.

EBS도 1998년 '효도우미 0700'을 시작해 2010년 '나눔 0700'으로 이름을 바꾸며 16년간 사랑나눔 프로그램 방송을 이어오고 있다. '나눔 0700'의 김광진 PD는 "'나눔 0700'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어린이, 장애인, 사회 취약계층 등으로 후원대상을 확대했다"며 "아동, 미래, 자활 세 가지 기준을 갖고 후원자를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눔 0700'은 201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약 27억원을 모금해 440여 가구를 지원했다. 김 PD는 "올해는 사건사고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풀수가 작년에 비해 23% 정도 늘었다"며 "사실상 후원 문의를 하시는 분들 중 대체로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은데

KBS '사랑의...' EBS '나눔...'

십수년간 소외계층 사연 소개 시청자 ARS모금·후원 이끌어

'무한도전' 4년간 27억여원 등 예능서도 기부 프로젝트 활발

이런 분들이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SBS는 2003년부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이하 '세가여')을 방송해 왔다. '세가여'는 월요일에는 지역아동센터 레벨업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화요일에는 환아 의료지원 모금을 방송한다. '세가여' 역시 기부 현황이 작년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세가여' 김태현 PD는 "도움을 드리면서 그분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힘과 용기, 행복을 얻는다"며 "시청자분들께서도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 외에도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기부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MBC는 '함께 사는 세상 희망 프로젝트-나누면 행복'(이하 '나누면 행복')을 2010년부터 방송 중이다. '나누면 행복'은 우리나라 다양한 형태의 기부 사례를 소개하며 숨어있는 기부자들이 국내외 각지에서 사랑을 전하는 이들의 삶을 알리고 있다.

기부 프로젝트는 파급력과 인기가 높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진행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대표적 프로그램으로는 MBC '무한도전'이 있다. MBC 기부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무한도전'은 4년(2010년~2014년 9월)간 총 27억3577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년간 MBC 전체 기부금 45억8830만원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올해에도 '레이싱 특집'을 통해 이미 2억원을 기부했으며, 지난달 27일부터는 달력 예약판매를 진행 중이다. '무한도전'은 매 연말 달력 판매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고 있다.

JTBC 예능프로그램 '비정상회담'도 달력 1만부를 한정판으로 제작해 판매 수익금을 소외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JTBC 후원해 홍보마케팅과장은 "'비정상회담'이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끝에 달력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며 "'비정상회담' 달력 판매로 발생하는 수익금 전액은 방화 중 끼니를 거르는 빈곤 소외 아동들의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에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상회담' 달력 프로젝트에 참여한 중국인 장위안은 "달력 수익금이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그 겨울, 바람이 분다' 노희경·김규태

'엄마가 빨났다' '불꽃' 김수현·정을영

드라마 작가-PD '찰떡 콤비' 있다

스타 작가의 존재는 배우들의 캐스팅 선택에 중요한 요소다. 검증된 작가의 극본은 흥행에 목말라 있는 방송사와 배우 모두에게 매력적이다. 드라마의 승패를 좌우하는 극본을 작가가 집필하면 그것을 영상으로 옮기는 PD가 있다. 좋은 극본을 뒷받침하는 연출력은 좋은 작품의 필수불가결한 흥행 요인이다. 드라마는 결국 영상매체이고, 스토리를 영상화하는 작업에 성패가 걸려 있다. 스타 작가에게 항상 단짝 PD가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달 12일 첫 방송된 SBS 수목드라마 '피노키오'는 이종석, 박신혜 등 출연 외에도 '너의 목소리가 들려' 박해린 작가, 조수원 PD의 재결합으로 관심을 모았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는 시청률 20%가 넘는 흥행작으로 배우 이보영에게 연말 연기대상을 안겨주며 작품성도 인정받았다. SBS 드라마국 조성훈 차장은 "힘 있는 연출진의 구성은 신뢰와 직결된다"고 밝혔다.

스타 작가와 PD의 계보는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다. 김수현 작가는 정을영 PD와 단짝이다. 2011년 SBS 드라마 '전일의 약속', 2013년 JTBC 드라마 '무자식 상팔자'를 함께 연출한 두 사람은 '목욕탕집 남자들'부터 '부모님 전상서' '엄마가 빨났다' '불꽃' '인생은 아름다워' 등 무려 10여년 넘게 동행했다.

사람 냄새 나는 인간에 대한 의미 전착이 돋보이는 극본으로 드라마의 한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노희경 작가는 김규태 감독을 만나 흥행 타이틀을 얻었다. '그 겨울, 바람이 분다'는 시청률 15%를 기록하며 동시강대 1



김규태(왼쪽 세번째) 감독, 노희경(가운데) 작가와 '팬텀아 사랑이야' 주연배우들. 뉴시스

위를 기록했다. "작품성은 있지만 재미가 없다"는 혹평에 시달렸던 노희경 작가는 김규태 감독의 감각적 영상미에 힘입어 '흥행'이란 낱개를 달았다. 노희경 작가는 차기작 '팬텀아, 사랑이야'에서도 김규태 감독과 호흡을 맞췄고, 12.9%의 시청률로 증명하며 흥행받았다.

흥행 보증수표 김은숙 작가는 '파리의 연인'부터 '프라하의 연인' '은애' '시디홀' '키랴트 가든' '신사의 품격'까지 7연타석 흥행을 날리는 동안 신유철 PD와 함께했다. SBS 드라마국 김영섭 EP는 "오랜 기간 함께 해 왔던 작가와 PD는 자신의 철학, 연출 기법, 스토리 전개에 있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극본, 연출, 배우 3박자가 갖춰져야 좋은 작품이듯 현장의 호흡은 드라마를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이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sun@

IOPE 스킨리포트



피부만 좋아져도 남자는 확 달라 보여요

투명하고 활력 넘치는 피부를 만드는 컨디셔닝 효과. 스트레스, 면도, 음주 등 많은 외부 자극들로 남자의 피부 컨디션은 계속 떨어집니다. 칙칙하고 거칠어진 피부를 바꾸고 싶다면, 맨 바이오 에센스를 만나보세요. 매일 변화하는 피부 컨디션을 빠르게 끌어 올려 투명하고 활력 넘치는 피부로 만들어 줍니다. 기억하세요, 피부만 좋아져도, 남자는 확 달라 보입니다.

3일 후 느껴지고, 14일 후 완성되는 투명하고 활력 넘치는 남자 피부

- 3일 후, 피부 보습력이 증가되는 것을 느꼈다 90.91%
- 3일 후, 피부가 매끄러워지는 것을 느꼈다 81.82%
- 7일 후, 피부가 탱글해짐을 느꼈다 86.36%
- 7일 후, 피부가 환하고 깨끗해지는 것을 느꼈다 95.45%
- 14일 후, 피부가 전체적으로 좋아짐을 느꼈다 100%

이오에프 맨 바이오 에센스 인체적용시험자 대상 3~14일 후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2012.11.6 ~ 2012.11.20 성인남성 23명 대상 / 조사기관 경희대 피부성명공학교육원 (1점 척도 중 상위 3점을 긍정 응답률로 계산)

전국 마트와 대형 마트에서 이오에프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고객센터 080-023-5454 | www.iope.co.kr



IOPE MEN 바이오 에센스

랭킹 엔터테인먼트

영화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가 주간 145만 관객을 모으며 박스오피스에서 4주째 1위를 지켰다. 2위는 이정재 주연의 '빅매치'가 차지했다. TV는 KBS 2TV 주말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가 시청률 33.6% (닐슨코리아 제공, 이하 동일)를 기록하며 1위를 굳건히 지켰다. KBS 1TV 일일드라마 '당신만이 내사랑'은 23.1%로 2위에 올랐다. 음악은 지난달 24일 공개된 박효신의 신곡 '해피투게더'가 1위를 거머쥐었다. 뒤이어 같은 날 발표한 에이핑크의 '러브'가 2위의 주인공이 됐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영화 박스오피스

순위	영화	관객	누적관객
1	인터스텔라	145만 2849명	831만 8594명
2	빅매치	55만 2318명	56만 3820명
3	퓨리	54만 3389명	101만 8134명
4	황거계임: 모건제이	29만 1678명	77만 2230명
5	덜 앤 더 투	12만 6738명	13만 0010명
6	카드	10만 2268명	77만 1178명
7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6만 3442명	6만 8850명
8	아빠를 빌려드립니다	4만 8975명	15만 3578명
9	꾸뻏씨의 행복여행	4만 6479명	4만 9618명
10	나를 찾아줘	2만 4524명	174만 5876명

TV 시청률

순위	프로그램	시청률	방송사
1	가족끼리 왜 이래	33.6	KBS 2TV
2	당신만이 내사랑	23.1	KBS 1TV
3	전설의 마녀	21.9	MBC
4	청담동 스캔들	17.6	SBS
5	장미빛 연인들	17.4	MBC
6	달콤한 비밀	17.2	KBS 2TV
7	KBS 9시뉴스	16.8	KBS 1TV
8	해피선데이	15.2	KBS 2TV
9	개그콘서트	15.1	KBS 2TV
10	무한도전	13.8	MBC

온라인 음원차트

순위	곡명	아티스트	전주비교
1	해피투게더	박효신	진입
2	러브	에이핑크	진입
3	세 사람	토이 with 성시경	-2
4	광화문에서	규현	-2
5	나는 달라	하이수현	-2
6	굿 보이	GD X TAEYANG	1
7	시간이 천천히	이진아	87
8	내가 그리웠니	MC몽	-4
9	위아래	EXID	36
10	사뿐사뿐	AOA	0

“의술·경영의 균형, 의료법 이해가 첫 걸음”

‘치과의사 출신’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오는 7일 ‘한국 병원경영 콘퍼런스’서 기조강연
“의료인, 법률·경영·기술 융합으로 시각 넓히자”



않는다”면서 “주변과의 소통, 한 걸음 더 나아가 청취와 배려, 그리고 기술과 법률 등 다 분야를 습득하기 위한 넓은 시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맥락에서 김 의원은 의료인에게 있어 ‘융합’이 필요하고, 실제 교육과정에서 ‘법률·경영·기술’ 등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7일 서울 세텍(SETEC)에서 열리는 ‘한국 병원경영 콘퍼런스 2014’에서 ‘융합의 시대, 의료인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한국 병원경영 콘퍼런스에서 의료인의 시각을 넓혀 주고 좀 더 체계적이며 생태계와 함께하기 위해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가, 더 나아가 주변 병원과 공존하기 위한 또 한가지의 해법을 공유하게 될 것으로 본다”며 “의료인이 어떻게 융합적 사고를 하고 나아가길 것인지 생각을 나누고 공감받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 kangih@

“의료인들이 병의원 내의 여러 자원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알고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의료법만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장애인차별금지법·저작권법 등 많은 법률이 존재하고 이는 병원의 발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가지를 방심하고 놓치게 되면 치료에 집중해야 할 자원을 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치과의사 출신인 김영환(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안산 상록읍)은 최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의료인들이 관련 법률을 잘 아는 것이 병원 경영에 관여할 뿐 아니라 치료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영환 의원은

1996년 15대 국회에 등원하면서 진료할 틈을 중단했지만, 2004년 안산에서 개인하며 다시 의사로서 자립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법을 이해하고 난 뒤 바라본 의사로서의 제 모습은 매우 달랐다”면서 “환자와의 관계, 함께해 주는 구성원과의 관계 그리고 제가 이해하는 의료의 혁신을 어떤 빠르게 법률과 함께 나아가야 하는지 등에 대한 시각이 생겼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료는 공공재에 가깝고 이는 모든 의료인의 사명인데, 법을 이해할 여부는 사명과 경영의 균형을 갖게 함에 있어 중요한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의료인들은 치료만 잘하면

의사로서 해야 할 역할이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료는 곧 환자와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치료가 시작된다”며 “환자와의 공감은 더는 의사의 몫이 아니고, 병원 내 함께해 주는 구성원과의 공감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감 능력은 의료만을 공부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최고라고 해서 생기기

‘해외취업 길잡이’ 김학진 부산과학기술대 교수

“제자들 현지 적응 ‘지옥훈련’ 시켜”

“부산에서는 보석 디자이너의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 취업으로 눈을 돌리게 됐습니다.”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주얼리디자인과 김학진 교수(45·사진)는 10년 넘게 학생들의 해외 취업을 위해 발로 뛰는 해외취업 전문가다.

그는 직접 중국 청두와 웨이하이로 건너가 태극기가 걸려 있는 회사만 보면 무조건 들어가 학생들의 이력서를 내밀기도 했다. 그는 또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현지에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지옥훈련’을 시켰다. 밤샘작업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과제를 주고 영문소설을 읽고 영어로 독후감을 써서 제출하게 했다.

첫해 제자 17명이 중국 등에 보석관련 업체에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금까지 100여명의 학생이 김 교수의 주선으로 외국에 있는 보석관련 업체에 취직했다.



김 교수는 “한국인들이 창의적인 생각으로 일 처리를 빨리하기 때문에 중국과 태국, 캄보디아 보석 관련 업체에서는 현지인보다 인건비를 더 주더라도 한국 관리자를 채용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 취업한 2명이 이미 출국했고, 나머지 6명도 다음 달까지 중국과 태국 방콕 등지로 출국해 보석디자이너와 보석 딜러로 활약하게 된다.

그는 “제자들이 꿈꾸는 멋진 미래를 위해 언제나 발로 뛰겠다”며 “내년에는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지에도 학생들을 취업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태진 기자 tjippo@

첫 여성 치안정감 이금형 부산경찰청장 ‘38년 경찰’ 마감

“사회적 약자 도울 수 있어 기뻐요”

이금형(사진) 부산경찰청장이 3일 이임식을 하고 38년간 몸담았던 경찰조직을 떠났다. 이날 이 청장은 이임식에서 “경찰직무의 특성상 긴장된 업무의 연속과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애환도 있었지만 치안사각지대에 있는 아동과 여성,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영광과 기쁨을 누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총복 출신인 이 청장은 지난 1977년 순경 공채로 경찰에 입문해 재직기간 주로 여성·청소년 분야 등에서 경력을 쌓아왔다.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서울청 생활안전부장, 광주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을 역임했다.

이 청장은 경찰 창설 이래 세 번째 여성 총경, 두 번째 여성 경무관을 거친 데 이어 지난해 인사에서 첫 여성 치안정감으로 승진하고 부산에서 근무해 왔다. 부산경찰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행복마을’ 16곳



을 조성하고, 시내 골목길과 해수욕장에 순찰차와 바로 연결되는 비상벨을 설치해 골목길 치안환경을 바꾸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한편 이 청장은 앞으로 후학 양성과 재능기부 활동에 전념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수 기자 tearand76@

이불세탁 봉사 나선 권오준 포스코 회장

중증장애인시설 찾아

권오준(사진) 포스코 회장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포스코휴먼스 위드플러스와 함께 4일 중증장애인을 위한 이불세탁 봉사



에 나섰다. 이날 포항지역 중증장애인 시설 6곳에서 수거한 이불들은 포스코휴먼스 세탁사업장에서 세탁, 건조했다.

포스코휴먼스 위드플러스는 포스코가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해 지난 2007년 설립된 국내 1호 대기업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다.

권오준 회장은 “직원들의 재능과 업의 특성을 살린 봉사가 바로 포스코다운 봉사”라며 “장애를 극복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포스코휴먼스 장애인직원처럼 앞으로도 포스코패밀리 전 직원이 역량을 모아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자”고 말했다.

포스코패밀리는 농기계수리봉사단, 문화재가꾸이봉사단, 영어번역봉사단, 에너지효율집수리 봉사단 등 다양한 재능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중 법인에 노하우 전수한 조선족 출신 한화생명 설계사 박선녀 매니저

“고객이 필요할 땐 언제나... 신뢰 쌓았죠”

“편견 때문에 조선족 출신임을 알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남보다 더 열심히 하다 보니 고객이 나를 더 믿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한화생명 파이낸셜플래너(FP) 가운데 상위 3%에게만 주어지는 ‘에이스클럽’ 멤버를 5년 연속 달성한 영등포지역단 양남지점 박선녀 매니저(사진)의 얘기다.

박 매니저의 경력은 독특하다. 중국 흑룡강성에서 태어난 그는 96년 한국에 온 조선족 출신 FP다.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남편과 두 아이를 중국에 남겨두고 홀로 건너와 식당일, 중국어 방문교사 등의 직업을 거쳐 10여년간 산전수전을 겪다 2010년 한화생명에 들어와 첫해부터 신인상을 수상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박 매니저는 가족은 물론 친척 한 명 없는 한국에서 일주일 평균 1건 이상 세계



약을 따내고 연간 수입보령료 약 10억원을 기록하는 등 회사 2만3000여명의 FP 중 실적 상위 3%에 해당하는 ‘에이스 클럽’을 한해도 놓치지 않고 달성했다. 박씨의 연

봉은 1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연간 수입보령료만 약 10억원, 고객의 계약만족도를 나타내는 13회차 유지율도 92%로 매우 높다. 그녀의 열정 하나만 보더라도 FP의 길을 따라 온 동료만 10여명에 이른다.

박 매니저의 성공스토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지난 11월 4박5일간 한화생명 중국 현지법인 ‘중환인수’의 주요 지역단(항주, 후저우, 태주, 닝보, 취저우 등)을 찾았다. 중국인이 한국 보험시장에서 주변의 도움을 성공했다는 것에 현지 FP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그는 “주기적으로 문자메시지로 안부를 전하고 경조사를 챙기는 것과 보험금 청구서류를 대신 제출해 주는 것 그리고 고객이 찾을 때 전화는 꼭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현 기자 nfs0118@

장운석 포스텍 교수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포스텍 환경공학부 장운석(사진) 교수가 환경복원을 위한 나노-바이오 융합기술을 개발, 난분해성 독성물질 제거하는 데 기여한 공로로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장 교수는 나노-바이오 융합기술을 이

용해 환경오염 물질 중에서 독성이 가장 큰 사염화 다이옥신을 완전 분해하는 데 성공했다. 또 철 나노 소재의 표면을 변화시켜 다양한 난분해성 유기오염 물질을 분해,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점도 인정받았다. 장 교수는 해외업체와의 기술수



법을 정립했다.

출도 협의 중이다. 한편 장 교수는 나노물질이 환경에 유입될 때 위해성을 예상하기 위한 연구를 통해 미생물을 이용한 나노소재 독성 시험

하유미 기자 jscs508@

백악관 깜짝 방문한 팀 쿡 애플 CEO

팀 쿡(52)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백악관을 깜짝 방문했다고 3일(현지시간) 의회 전문지 더 힐(The Hill)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쿡 CEO는 전날 백악관을 방문한 여러 참모와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 쿡은 지난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워싱턴D.C를 찾았다가 백악관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의 한 참모는 “대통령과 참모들이 기업 최고경영자를 비롯해 대주주, 오너 경영인 등을 정기적으로 만나 다양한 주제를 놓고 대화한다”고만 밝혔다.

특히 이번 백악관 방문은 최근 미국 IT 업계와 정보 당국이 휴대기기 정보 암호화 기술을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업계는 정보기관의 도청방지 및 고객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휴대기기 저장 정보를 암호화하는 기본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가 지난 10월 앨라배마에 아카데미 기념식에 앞서 지역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AP뉴시스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최근 암호화 기능을 갖춘 애플의 아이폰을 두고 “영장이 있어도 열지 못하는 트렁크가 있는 차다. 법을 초월하는 기기”라고 비판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전보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문화국장 황준석 ◦차장급 전보 △국립민속진흥원 뉴미디어홍보지원과장 신용식 △국립현대미술관(과장직위) 정기원 △국립민속진흥원 홍보협력과장 정원상

◆한국화학연구원 △그린화학공정연구본부 탄소자원전환연구센터장 박용기 △ 나노촉매연구센터장 장종산 △ 온실가스자원화 연구센터장 장태선 △계면화학공정센터장 박인준 △ 바이오융합화학연구센터장(장직) 송봉근 △그린화학소재연구본부 광에너지융합소재연구센터장 문상진 △ 분리막연구센터장 남승은 △ 차세대전지소재연구센터장 강영구 △ 고기능고분자연구센터장 원종찬 △ 박막재료연구센터장 정택모 △의약바이오연구본부 의약화학연구센터장 안진희 △ 신물질기반기술연구센터장 이상달 △ 바이러스시험-연구센터장 김미현 △ 친환경신물질연구센터장 오영관 △ 나노바이오융합연구단장 서영택 △ 화학인프라본부 화학분석센터장 김중혁 △ 신소재평가센터장 변두진 △ 한국화학물품유통센터장 이현규 △ 화학안전연구-평가센터장 공기정 △C-산업육성센터장 이철우 △화학시뮬레이션연구센터장 장현주 △소오질병 글로벌 R&D센터장 정영식

◆삼성그룹(삼성전자) △부사장 김문수 김용관 김용재 남궁범 노승만 데이비드 박상원 안태혁 윤두표 윤종식 이준 임영호 장택원 장혁 전경훈 정태경 주은기 최경식 최유은 최주선 황득규 △전무 강봉구 강원식 김경준 김경호 김준태 남석우 도영수 박선호 박민식 배경성 백지호 송두현 신동훈 신유근 이영의 이운 이재승 이정배 이준재 이병우 이흥모 장성진 장성학 정종욱 정진수 채주탁 최영호 최주호 최형식 하혜승 홍현철 황규철 △상무 강명구 고대근 권연봉 권오봉 김광연 김기삼 김대주 김동욱(무선,센서) 김두일 김명철 김병성 김보경 김상호 김성기(CIS) 김성욱 김세년 김연준 김영철 김용주 김우석 김우중 김윤영 김의석 김재원 김정석 김경호(중국총괄) 김경일 김한석(네트워크) 김현석(메모리) 김현수(DMC) 테이브다스 류수정 리처드 명호서 문용은 문준민 이규 민종술 박기원 박성근(네트워크) 박성민 박승민 박정선 박진호 박진영 박진희 박태호 박해진 박현규 백승엽 백승협 변준호 부민혁 서현석 손민영 손영호 송승엽 송호건 신경섭 신동수 신승철 신현진 안장혁 알록나스데 업체원 에드윈 우영돈 원성근 원우이 유병길 윤광혁 윤병관 유수정 유승호 윤운수 이광렬 이기루 이근호(반도체) 이금찬 이민 이상윤(경리) 이상재(메모리) 이용구(무선) 이재석 이종배 이창섭 이혁민 이효영(상생협력) 이홍관 인석진 임병택 임종형 임훈 정재연 장우석 장재훈 전병준 전우성(기전) 전원환 정순찬

정재웅 조병모 조재학 조필주 조해정 주재환 지성혁 지우정 최창규 최현복 탁승식 트레비스 프라나브 하영수 한규현 한상숙 한호성 허석 현경호 현상훈 황상준(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 이현덕 △전무 오영선 △상무 김성진 김대용 김중환 김주열 김창호 신성 안병기 이규수 이승재 이주범 전석진 조성찬 최호연(삼성SDI) △부사장 김재홍 안재호 △전무 권영기 김기호 박용관 △상무 강문석 김성홍 김익현 김창섭 김태형 김관배 박진 서경훈 서현 송재국 윤준철 임경용 김성영(삼성전기) △전무 최영식 △상무 김무용 문형규 박봉수 박다선 박희권 임승용 정성원(삼성SDS) △전무 김호박 박태 조항기 △상무 김민식 김인식 김중필 신영욱 신원준 안대중 이상태 이장환 이정현 정영정(삼성생명) △부사장 심종국 △전무 박익순 이승재 △상무 김배식 김진 김영수 노태현 류승진 박민규 박창규 안재희 최규상(삼성화재) △부사장 이상목 최영수 △전무 김상욱 성기태 장석훈 △상무 강우희 권선혁 박남규 박준현 이상목 이승현 장재태 정현 황인철(삼성카드) △부사장 정준호 △전무 박상만 △상무 권병호 나용대 박원재 안기홍(삼성증권) △상무 김태현 이재우(삼성자산운용) △부사장 윤석 △전무 김유상(삼성증권) △부사장 하문근 △전무 강병서 김준철 △상무 강영규 박형준 안시안 오성일 유광복 윤형목 정지창 하성호 현경근(삼성물산(건설)) △부사장 강신명 김경준 장인환 △전무 김재호 이병수 △상무 김

민구 박창원 설창우 소병식 송태연 안병철 윤남주 윤종이 윤준병 이민형 이병수 이승우 조홍구 지형근 한광훈(삼성엔지니어링) △부사장 최성안 △전무 최경배 △상무 박성연 장관희 최준기 허등윤(삼성테크윈) △상무 김상균 천두환(삼성토탈) △전무 김옥수 △상무 박인태 이종화 전재홍(삼성중합화학) △부사장 홍진수 △상무 이명규(삼성정밀화학) △전무 조성우 △상무 강상호 신준혁(삼성물산) △상무 이창욱 정근용(삼성물산(상사)) △부사장 김기정 한수희 △전무 김용수 △상무 고우석 김용선 양희석 유지환 이범순(제일모직) △부사장 조병학 △전무 김강준 △상무 천주교회진 김태권 배택영 이재성 최장희(삼성셀스토리) △전무 박영택 △상무 이강권(호텔신라) △부사장 김정환 △전무 송성호 △상무 고경록 김진혁(제일기획) △부사장 박찬형 △상무 백운 송윤석 정원화(에스엔) △부사장 박영수 △상무 김창환 문경섭 이규해(삼성경제연구소) △상무 박현수(삼성라이온즈) △상무 안현호(중국본사) △상무 박상고 정단단(삼성서울병원) △부사장 정규하(삼성벤처투자) △상무 정한영(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지홍석(삼성인력개발원) △상무 오정환

권순한 한국외대 동문회장

주한 코스타리카 명예영사

권순한 한국외대 총동문회장(71·사진)이 주한 코스타리카 명예영사로 임명됐다.

경북 봉화 출신인 권 회장은 학교법인 동원영역회 이사와 소이사사 대표이사로서



훈장 등을 수훈했다. 정경진 기자 jungkj@

부음

▲이무성(전 대전증권 총로지점 부장)씨 부친상 = 3일 오전 8시 30분, 부령세림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5일 오전 7시, 032-523-8844

▲유영애(서양화가)·현애·인애·순애(매체대교수)씨 모친상, 권태환(서울대 명예교수)·김영

정(사임)·변우현(강원대 명예교수)·김국현(예비역 소장)씨 장모상 = 3일 0시 50분, 인천기독교병원, 발인 5일 오전 6시, 032-764-5036

▲조용대(이랜드 리테일 대리)씨 모친상, 조태일(CBS 정치부 기자)씨 시모상 = 3일 오전, 일산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5일 오전 8시 30분, 031-960-0236

김경록의 인생 2막

태종·리어왕에 배우는 은퇴의 기술

대법원 통계를 따르면 2002년 68건이던 부양료 소송이 2013년에는 250건으로 늘었다.

부모·자식 간 소송에서는 10건 중 3건이 상속을 통해 미리 재산을 나눠준 후 자식이 이를 실행하지 않아서 제기한 소송이었다. 법정에 서면 심한 경우 자식이 아버지에게 'oo씨'라 부른다 한다.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으로서도 불행한 일이다.

여기서는 조선시대 3대 왕인 태종과 세의 스피어 회곡의 주인공인 리어왕에서 그 교훈을 찾아본다.

태종은 52세에 갑자기 22세이던 세종에게 왕위를 양위하고 상왕으로 앉는다. 다만 세종이 서른 살이 될 때까지는 군사와 관련한 일은 직접 챙기겠다고 신하들에게 공언한다. 그런데 공신 병조참판 강상인이 태종을 제쳐놓고 세종에게 보고하곤 하였다. 이에 태종은 강상인을 관노로 보냄으로써 처벌한다.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지 불과 보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두 달 뒤에 태종은 다시 강상인 사건을 들춰내 결국 강상인은 사지를 찢어 죽이는 거열형에 처하게 하고, 세종의 장인인 심온마저 사약을 받게 된다.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는 사건이기는 했지만 하여튼 태종은 자신의 권한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이후 태종은 골치 아픈 정사를 돌볼 필요 없이 사냥을 즐기면서 권한도 누리다가 56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세의스피어 회곡의 주인공인 리어왕은 나이 80세가 되자 가장 효성스러운 딸에게 자신의 왕국을 물려주고 자신은 그냥 자식을 집을 번갈아가면서 살겠다고 한다.

결국 왕 앞에서 아첨하는 첫째와 둘째 딸이 왕국을 물려받고 효성스러웠던 셋째 딸 코델리아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난다. 리어왕은 시종 100명만 남기고 모두 두 딸에게 물려주지만 첫째 딸 집에서는 이 100명만 데리고 50명을 빼앗겨버리고 쫓겨나며 둘째 딸에게도 쫓겨나 폭풍 속에서 방황한다. 셋째 딸이 이를 되돌려보려고 하지만 모두 죽는 비극으로 막을 내린다.

리어왕의 비극은 착하지 않은 상속자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주었다는 데서 시작되었다.

반면 태종은 착한 세종임에도 불구하고 군사와 중요 인사에 관한 권한은 갖고 있었다. 태종은 세종이 서른 살이 되면 군사 권한까지 주겠다고 했으니, 세종이 즉위한 나이가 22살인 것을 감안하면 8년은 갖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노년에는 가능성이라는 시간 가치를 거의 사라지고 자산이나 지금까지 쌓아 둔 사회적 관계와 같은 가치가 대부분 차지한다.

그래서 냉정한 시각으로 보면 노년에 들어서는 주로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해 평가받는 것이다.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주어 버리면 자신의 가치도 사라져 버린다.

지금은 옛날과 달리 부양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부모 부양에 대해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2006년 63%였는데 불과 6년 만인 2012년에는 이 비중이 33%로 뚝 떨어졌다.

수명이나 사회·문화적 환경은 이미 과거와는 근본부터 다른 은퇴시장을 예고하고 있다. 상속해 주고 빈곤층으로 전락해버리는 '상속 빈곤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태종과 리어왕의 사례를 잘 새겨둘 필요가 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

배국남의 직격탄



문화경제국장 겸 문화부장

당신은 상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가족에게도 말 못한 채 술 한잔 하고 들어온 아버지의 뒷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나는 아이를 떼어놓고 눈물 흘리며 직장으로 향하는 워킹맘의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있는가. 오로지 회사에 살아남기 위해 갖은 일 다하며 무시당하는 인턴의 처지를 살펴본 적이 있는가.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성추행까지 당하다 계약만료 통고로 회사에서 쫓겨난 뒤 자살한 여성의 심경을 생각해보는 적이 있는가? 능력과 실력이 있는데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실제 라인이 없다는 이유로 인사에 밀린 직장인의 비애를 느낀 적이 있는가.

이 질문과 대답이 대한민국 2014년 연말을 강타하는 신드롬을 만들고 있다. 그 신드롬은 이른 아침 출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그리고 퇴근 후 술 한잔 하는 포장마차 안에서, 대학가 카페에서, 서점과 안방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웹툰, 만화, 드라마로 네티즌과 독자 그리고 시청자와 만나고 있는 '미생' 신드롬이다.

종합상사 비정규직 사원 장그래를 중심으로 직장인의 애환을 담은 윤태호 작가의 웹툰 '미생'은 2012년 1월부터 2013

2014년 대한민국에서 '미생'으로 산다는 건

년 7월까지 포털 다음을 통해 연재되는 동안 10억 건, 연재 이후 최근까지 1억 건 등 조회건수가 11억 건에 달한다. 웹툰 '미생'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2012년 9월 1권을 시작으로 2013년 9권으로 완간된 만화책 '미생'은 지난 10-11월 두달 사이 100만 부가 팔리는 경이적 판매량을 보이는 등 최근 200만 부를 돌파했다. 불황의 늪에 빠진 출판계에서 유일한 밀리언셀러다. 지난 10월 17일 첫 회를 방송한 드라마 tvN '미생'은 케이블 방송임에도 시청률 6%대를 기록하고 관련 기사가 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고 있다.

대학가 카페에서 인턴을 거쳐 비정규직 신입사원이 된 '미생'의 장그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남의 일이 아니라고 걱정하는 대학생의 모습에서부터 실제 때문에 프로젝트에서 밀려난 오 파장에 대해 격한 공감을 드러내며 소수 한잔을 기울이는 직장인의 모습까지 수차례 파악되지 않는 '미생' 신드롬은 훨씬 뜨겁다. 전문가들은 2014년 올 한해 대중문화의 주목받을 사건이자 키워드는 '미생'이라고 단언한다. '미생'은 이제 가지 있는 사회경제적 담론이 되고 의미 있는 문화적 신드롬이 되고 있다.

'미생' 신드롬은 2014년 한국에서 미생으로 산다는 것의 현주소 보여준다. '미생' 신드롬은 이 땅의 미생인 직장인, 자영업자, 농부, 취업준비생, 아르바이트생의 고달픈 삶의 문양이기도 하다. 실업자와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 등 사실상의 실업자가 300만 명인 시대. 일자리와 돈이 없어 연에도, 결혼도, 자식도 포기하는 3포 세대가 급증한다. 누구는 말한

다. 3가지만 포기하겠느냐고. 심지어 목숨까지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증가하는 비극적 실정을 덧붙이면서. 또한 직장인도 불안하고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시도 때도 없이 불어닥치는 구조조정 칼바람에 늘 해고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 갑(甲)인 회사라는 전장터에서, 을(乙)인 직장인들은 때로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자존심과 양심마저 내팽개쳐 팔도 없는 생존경쟁을 벌인다. '미생' 대사처럼 직장은 전쟁터지만 회사 밖은 지옥이니까. 자영업자들은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도록 온몸을 바쳐 일했지만 적자만 쌓여가고, 농민들은 하루의 휴가도 없이 땅을 일구지만 한숨만 늘어간다.

그래도 이들 미생의 삶은 가치가 있다. 비록 1%인 갑의 눈에는 이 땅의 미생들이 비루하게 보일지라도 이들의 노동과 삶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

'미생' 신드롬은 힘든 하루를 견디고 소수 한잔을 털어놓으며 "우리 모두에게 자신만의 바둑이 있다" "바둑판 위에 의미 없는 돌은 없다"라는 의미를 자신에게 부여하면서 살고 싶은 이 땅의 미생들에 대한 소박한 헌사인지 모르다. 이 땅의 미생들에게 "아름다운은 끝내 바닥에 남은 자의 놀러 붙은 허름한 가슴으로부터 왔다"(박재구 시인의 '처제')와 "어쩔 수 없이 이 팔방의 벽을 기어오 깨뜨려 솟구칠 거지든 땅방울, 피눈물 속에 새겨진 숲 숨쉬며 자라는 우리들의 사랑"(박노해 시인의 '노동의 새벽')이라는 시구와 함께 2014년 대한민국의 미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는 충분한 것이라는 말을 건네며 소수 한잔 권하고 싶다.

knbae@

온라인 와글와글

강화된 도서정가제, 출판계는 더 추워요~

○...책 할인을율 최대 15%로 제한한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지 10여일이 지났지만, 얼어붙은 출판시장이 해동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는 소식이다. 온라인상에는 "정부정책이 순수한 독자마저 떠나게 한다. 1년에 수백만원의 책을 읽던 이들이 하나 둘 책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오히려 그 사람들 입장에선 책이 비싸진 셈이지", "독자들은 책이 비싸서 못 사겠다고 하고 출판사는 책이 안 팔리니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고 답이 없네", "정가제 때문에 2-3년 불 책을 다 미리 사냈는데 바로 서점 매출이 오른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좀 더 기다려봐", "가격 경쟁을 못 하게 하는 나라가 공산주의 맞지? 시장에서 적정한 가격이 책정되고 수요가 형성돼야 하는데. 법안 발의의 논지 자체가 문제 있다" 등 냉소적 의견이 많았다.



진

○...우버택시의 프리미엄 라인인 우버블랙이 서울 강남 일대에서 아이들 통학용으로 애용된다는 소식이다. 네티즌은 "부유층 자체를 이용하는 거 알고 우버택시 악용한 범죄가 생길 것 같다. 관리 잘해야 할 듯", "나도 우버엑스나 해보고 싶네 마더즈라고 안 된다더라. 준형 세단 이상만 될 거야 아마. 그러니까 부유층들이 애용하지", "이젠 택시도 계층화 되나", "넵새 찌들고 불친절한 일반택시는 반성해라. 강남 학부모들이 괜히 타겠어? 그만큼 믿을 만하다는 거잖아", "괜찮네. 소나타 3000원 주고 타는 거보다 외제차 5000원이 훨씬 안전하지", "좀 조금 더 쥐도 안전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나 같아도 아이들 일반택시에 태워 보내느니 돈 좀 더 주고 우버로 보내서 위치 추적하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송현근 기자 xl2sado@

오늘의 배국남 www.baekn.com

'국제시장' 윤재균 감독 "우리 아버지들의 이야기"



최두선 기자 sun@

배국남닷컴은 3일 영화 '국제시장'으로 5년 만에 스크린에 돌아온 윤재균 감독을 만났다. 17일 개봉을 앞둔 '국제시장'은 2009년 '해운대'로 1145만 관객을 동원한 윤재균 감독의 신작이다. 195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관통하며 살아온 사람들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재조명한다. 이를 통해 오직 가족만을 위해 굳세게 살아온 우리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담아 진한 감동을 자아낸다. 윤재균 감독은 "남다른 작품이다. 개인적 사연에서 출발했다.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고맙다는 말을 못해 한이 되었다. 나 이 들어 내가 아버지가 되어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는 작품이다"고 밝혔다. '국제시장'은 부산 국제시장을 배경으로 6.25 흉남 철수부터 광복 탄광 광부, 월남전 등 한국현대사의 굵직굵직한 사건을 다룬다. 윤재균 감독은 "한국현대사가 이렇게 파란만장한지 몰랐다. 영화를 만들면서 느꼈지만 우리나라 현대사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 그 안에 감독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명확했다"며 "영화 제목을 '국제시장'이라 정한 이유는 사람 냄새가 났기 때문이다. 시장이라 하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고 말했다. '해운대'로 1000만 관객 반열에 오른 윤 감독은 '색즉시공' '변가'의 '기적' 등을 통해 사람 냄새 물씬 나는 작품을 연출해 왔다. 윤재균 감독은 "1000만은 하나님이 준 선물일 뿐이다. 1000만 감독이 됐다고 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윤이 좋아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았지만 난 서민적인 감독이다. 소시민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공감할 수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한다. 영화감독 윤재균이 아니라 인간 윤재균으로 봐 달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가장 보편적 정서를 가진 사람이다"고 말했다.

- ① 미국 분홍 콜택시 인기, 운전자·고객 모두 '여자만'
- ② 오통호 선장 마지막 교신 '살아있으면 소수 한잔하십시오'
- ③ 전국 휘발유 L당 평균 1600원대 진입... 4년 만에 처음
- ④ '김영란법' 정기국회 처리 불발... 새도보링 폐지 유예
- ⑤ 담배 사재기 단속 vs 판매량 제한... 소비자는?

오늘의 Hot Click 베스트

이투데이 온라인 집계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지앤에스지
골프용품 전문생산 전문업체

받는분께 강한 만족감을 드리는 꼭필요한 선물!!
G&SG에서 선물하세요~

기업홍보용품 / 선물용품 / 골프장개장기념품
골프필드용품 제조전문 ☎ 02-744-7444/765-7404 www.gnsg.co.kr 서울 성북구 삼선동1가 208 (주)지앤에스지

VIP GOLF GIFT SET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G&SG의 골프필드용품

골프용품선물세트, 골프용품선물세트, 골프용품선물세트, 골프용품선물세트, 골프용품선물세트

가족네임택세트, 순금네임택세트, 순금네임택, 출원기념품, 스와로브스키보수기, 오너봉, 골프장갑

골프티모음, 골도시, VIP 골프기념품, 순금볼마커, 로고볼마커, 보석볼마커

*광고에 게재된 로고나 상호는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입니다.

NAVER 지앤에스지

최종찬 칼럼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 전 건설교통부 장관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려운 사회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 출세하거나 부자가 된 사람은 대부분 자수성가한 사람이었다. 60대인 필자가 1960년대 대학 다니던 시절, 주변 친구들을 보면 가정 형편이 비교적 비슷하였고 부자집 자식은 별로 없었다. 대부분의 기업가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 없이 창업하여 성장하였다. 가난한 집 자녀도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실제로도 개천에서 용 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신분 상승이 과거보다 어렵게 되었다. 사회 전체가 발전하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모든 분야가 안정되었다. 각 분야에서 새롭게 진입하여 두각을 나타내기 어려워졌다. 예컨대, 삼성, 현대, LG, GS, SK, 두산, 한화, 한진 등 우리나라 대부분의 재벌 주인이 창업자 자식들로 자수성가한 경우는 거의 없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경영자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경우가 흔하다. 오늘날 서울대 등 유명 대학 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의 비율이 과거에 비해 훨씬 적다고 한다.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미국은 선진국 중 소득분배가 나쁜 나라로 평가되지만

미국 국민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부자나 성공한 사람에 대해 덜 비판적이다. 그 이유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부의 형성 과정이 투명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국의 부자들은 대부분이 자수성가하였다. 세계 부자 1위·2위인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애플의 최고인 스티브 잡스, 구글·아마존·페이스북 창업자 등 이들 모두 자기의 노력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다.

선진 사회는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 신분 상승이 용이한 사회이다. 그런 사회는 소득 격차가 있더라도 사회 통합이 잘 되고 역동성이 있다. 나 또는 내 자식들이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면 사회 체제가 불만을 갖거나 부자를 욕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나 희망이 있으면 열심히 노력한다.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선 필요한 것은 국민이나 정책 당국자가 사회적 유동성 제고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이를 개선하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우선, 사회적 유동성이 얼마나 약화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고교 평준화 목적의 하나가 사회적 유동성 제고인데 그것이 사회적 유동성 제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제대로 된 평가가 없다. 앞으로 다양한 사회적 유동성 지표를 개발하여 정기적으로 발표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 유동성 제고를 위한 문제 제기와 제도 개선을 추진할 전담 기구도 정부 내에 있어야 한다.

사회적 유동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교육의 충

실화가 중요하다. 학교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 모두 같은 조건에서 공부한다. 그러나 학교 교육이 부실해지면 가난한 사람이 불리해진다. 예컨대 영어는 오늘날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만일 학교의 영어교육이 부실하면 가난한 아이들은 사교육으로 이를 보충하기가 어렵지만 부자집 아이들은 사교육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가 있다. 공교육이 부실할수록 가난한 아이들은 경쟁에서 불리해진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공교육의 부실화로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무상급식 재원 조달을 위해 교육 관련 예산을 줄이고 있다. 원어 민 교사, 방과 후 교육비 등 각종 교육 관련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위해서는 공교육의 충실화가 시급하다.

이외에도 기회를 제한하는 각종 사회 제도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로스쿨(Law School) 제도는 법조인의 자질 향상에는 기여하였지만 신분 상승은 어렵게 만들었다. 과거에는 학벌이 없어도 고시만 합격하면 판·검사 등 법조인이 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많은 비용을 들여 대학원까지 졸업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은 법조인 되기가 어렵게 되었다.

선거 때만 일시적으로 경제 양극화 해소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사회적 유동성 제고를 중요 국정 과제로 인식하여 관련 시스템 개선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임철순의 즐거운 세상

대방역을 오가면서

나는 지하철에 앉으면 책이나 휴대 폰을 들여다보다가 잔다. 전차문에 주면서(晝眠夕寐), 낮에는 졸고 밤에는 잔다는 말이 있는데, 나는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잔다.

그렇게 졸거나 자면서도 지하철 역 이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뜻을 알아보게 된다. 자주 이용하는 1호선 대방역을 무슨 뜻일까? 한자로 대(大) 방(方)이니 크게 모가 나는 곳이다. 동양에서는 원래 천원지방(天圓地方),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반듯하다고 생각했다. 대방은 곧 '큰 땅'이다.

학식이 풍부하고 문장이 뛰어난 사람을 말할 때에도 대방, 대방가(大方家)라고 한다. 연암 박지원, 추사 김정희, 다산 정약용 같은 분들이 대방가다. 대원군이 소치 허련을 '서화의 대방'이라고 칭찬한 적도 있다.

대방광불이라는 부처님도 있다. 방광이 큰 부처님이 아니라 대방광의 이치를 증득한 부처님이다.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의 중심사상은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다. 대는 광대무변한 마음의 본체, 방은 원만상호를 갖춘 마음의 공덕상, 광은 무애작용을 하는 중중무진의 마음 작용... 어렵다.

경허선사는 이 세상에 대 아닌 게 없고 방 아닌 게 없다고 했다. 모두 여법(如法)하며 '저절로 그러하'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아득한 우주와 천계도 넓고, 가장 작다는 겨자씨도 넓다. 그래서 대방광이다. 어렵다.

그러나 내가 먼저 생각하는 방은 방정(方正)이다. 말이나 행동이 바르고 정직한 뜻이다. '상기 학생은(또는 우자는)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상장에서 많이 본 문구다. 이걸 '품행이 방정맞고'라고 읽으며 깔깔거렸지만 지금 초등학생들은 그런 말 자체를 모른다. 요즘은 '위 학생은 00년도 1학기 그런 마일리지를 실시한 결과 바른생활 실천에 타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이런 식이다.

사람은 안으로는 네모지더라도 겉으로는 둥글어야 한다. 그게 외원내방(外圓內方)인데, 외유내강과 비슷한 말이다. 방원가시(方圓可施), 모난 것이나 둥근 것에 두루 들어맞는 사람, 어디든 적합한 사람이라는 말도 있다.

몇 년 전 공(孔)씨 신랑과 방(方)씨 성 신부의 주례를 선 일이 있다. 일단 "결혼해서 공방전을 벌이면 안 된다"고 주의부터 준 다음, "공은 둥글다"는 뜻을 가진 성이니 천원지방의 조화를 생각하며 행복하게 살라"고 말했다. 그리고 "원형과 네모의 결합은 어디에나 있다. 경복궁 경희루의 바깥 기둥은 네모지만 그 안쪽은 둥근 기둥이 받치고 있고, 첨성대는 아래는 둥글지만 맨 위는 네모로 돼 있다"고 '별'을 풀었다.

이어 "예전엔 엽전을 공방(孔方)이라고 했다. 그러나 돈도 많이 벌어서, 공씨와 방씨는 흔한 성이 아니다. 아 이도 많이 낱아라" 운운했다. 주문도 참 많은 주례다.

결국 '방'자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인격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리 돈 많고 지위가 높아도 대방이라고 할 수 없다. '대방'이라는 속어도 비슷한 어감을 담고 있다. 타고난 천분은 어쩔 수 없다 치고 노력을 해서라도 대방가가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미래설계연구원장

객석

인생의 터닝포인트



이 응 창 이트레이드증권 과장

이제 1달도 채 남지 않았다.

새해가 되면 불혹이라는 나이 40. 멀고 먼 남의 일이라고 느껴지던 숫자가 이제 내 나이가 된다. 하지만 19살 때 처음 느꼈던 내 나이의 심 단위가 바뀐다는 두려움은 29을 지나 39가 되면서 점점 무뎠어지고 있다.

몇 번 겪어 봐서 막상 그 나이가 되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서 일까? 아니면 그런 감상 따위에 빠질 여유가 없어서일까?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인생 다 산 것처럼 느껴지던 19, 29살 때의 느낌은 아니다.

나이가 들수록 서글퍼지고 의로움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반대다. 나도 이제 그들의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는 막연한 설렘까지 있다면 지나친 낙관일까? 어쨌든 주위에 아는 20대가 별로 없었던 19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건 사실이다. 어느 날 느

닷없이 찾아온 느낌이었기에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없었다. 다른 생각할 틈이 공부 인생의 전부였다(공부만 했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대학이라는 데를 들어 갔는데 갑자기 20살이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허탈했을까!! 29살 역시 마찬가지.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한 나이였는데, 그때도 30살이 된다는 것에 준비가 없었다. 29살 이맘 때쯤엔 바짝 긴장하면서 30대를 맞이했다.

그에 비해 지금 내 주위에 얼마나 많은 40대들이 미리 마음을 잡게 도와주었는가 생각해 보면 고마운 일이다. 사회생활이 10년 넘어 가면서 아는 사람들도 많아져서 20-30대만큼 많아진 40-50대 지인들이 때론 말로, 때론 행동으로 40대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해 주었다. 이전 가운데 나이라는 생각에 어느 정도 안정된 느낌마저 든다.

이제 정신 없이 살아온 내 인생에 터닝포인트가 필요한 시기가 된 듯하다. 앞으로의 더 건설적인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 볼까 한다. 그렇다고 서둘러 뭔가를 만들고 싶지는 않다. 내년 1년 정도는 충분한 준비를 통해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해 봐야겠다.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으므로.

기자수첩

여성고용률과 대형마트



김 혜 진 산업부/ sinembargo@

동네에 대형마트가 생기면 주부들의 눈과 귀가 그곳으로 몰린다. 새로운 소비와 문화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빠른 살림에 도움이 될까 싶어 취업에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최근엔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주부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마트를 향한 선호도는 더 높아지고 있다. 경쟁률이 치솟는 것도 같은 이유다.

지난 1일 '여성고용률'이라는 국제회의를 취재했을 때다. 당시 세미나 발표 중 한국이 여성 고용률(65% 전후)을 남성 수준(75% 전후)으로 끌어올린다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또 한국의 경우 여성들이 고학력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율과 여성고용률이 모두 낮은 특이한 구조라며 장기화될 시 경제성장률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출산, 육아로 경력단절이 일어나는 35~40세 여성들을 위한 파트타임 일자리가 제대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즉, 유연한 근무환경과 근무시간이 갖춰진 일자리가 활성화되고 육아 휴직 또는 출산휴가를 쓸 수 있는 파트타임 등이 지금보다 업그레이드된 시간제 일자리 형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대형마트는 여성 일자리를 많이 늘릴 수 있는 업종이다. 주부들이 파트타임 등 시간제 일자리로 가장 선호하는 곳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내 대형마트는 각종 규제와 소비심리 악화로 업계 매출이 3년 연속 역성장했다. 지난 2012년부터 일일 의무휴업과 신규출점 제한 등 유통 규제 강화로 실적이 악화됐고, 경기가 좋지 않으니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아버려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백화점도 죽을 맛이다. 규제는 업종을 위축시키고, 이에 따라 실적이 나빠지면 사람을 줄이는 악순환을 낳는다. 여성고용률을 끌어올려야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는다면 정부와 국회는 대형마트의 규제부터 새로 손봐야 할 것이다.

이투데이

社 正 道 言 論 經 濟 報 國 未 來 指 向

www.etoday.co.kr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departments: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이종재, 논설실장 김경철, 편집국장 강혁, 논설실, 정치경제부, 산업부, 문화부, 광고접수, 광고문의, 구독신청, 배달안내, 2010.10.4 등록번호, 대표전화, 팩스.

Advertisement for the book 'Mother Teresa, Beyond Love' (마더 테레사, 넘치는 사랑). Features a quote by Jung Hyeon-sung: '만일 마더 테레사께서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인간이 그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였을 것인가'. Includes a photo of Mother Teresa and a book cover image.



비타민하우스

눈건강 슈퍼루테인 Eye Care Super Lutein

침침하고 흐릿한 눈을 시~원하게!
맑고 선명한 눈을 위한 현대인의 선택!

1일 1캡슐로 루테인 12mg, 비타민A 700ugRE 섭취



루테인은 눈속의 망막과 황반의 구성성분으로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 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가까운 **비타민하우스 가맹약국 건강기능식품코너** 에서 구입하세요!



퍼스트 클래스 스토리 / 브라운 ■ 20면



가스공사, LNG 연간 420만톤 확보 ■ 21면



연초 재건축발전 전세난 '한파'

Cover Story

2015 부동산시장 전망

올해 부동산 시장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시장에는 곧바로 영향을 미치면서 분위기가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했다. 2014년 부동산 시장의 출발은 산뜻했다. 거래량과 매매가격 모두 회복세를 나타냈다. 수도권시장은 2월 말 발표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다시 침체에 빠지는 모습을 보였으나, 하반기부터 줄곧 나온 부동산 대책과 관련 법안 시행이 부동산시장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연말로 접어들면서 가격 상승폭의 둔화가 눈에 띄었다. 재건축 단지의 추가분담금 문제와 관련 법안의 후속입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수요자를 비롯해 부동산 관련 업종 종사자들은 국회를 바라보고 있다. 2015년 부동산시장은 회복세를 보일지, 아니면 다시 침체가 장기화할지 올해를 되돌아보면서 2015년을 전망해본다.



**강남권 이주수요 급증 주변 전세물량 태부족
탄력 잃은 매매, 시장 활성화 후속입법에 기대
청약제도 완화로 분양시장은 활기 이어갈 듯**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년 아파트 매매시장에 대해 가격 상승 잠재력이 있지만 오른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각종 대책으로 수요자들이 받는 혜택은 늘겠지만 경제 전체가 부동산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시장도 상승 곡선을 이어갈 것이라 전망이다. 치솟는 전셋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것과 함께 저금리 기조로 인해 집주인들은 수익성 높은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전세난도 안정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서울 강남권 재건축에 따른 이주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만, 이에 따른 주변 전세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시 등에서도 공급물량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밀려드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많다.

반면 내년 분양시장은 올해의 열기를 이어받아 인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의 규제완화 및 금리 조정으로 지난 가을 분양시장은 호황을 맞

았다. GS건설이 위례신도시에 공급하는 '위례자이'는 140.34대 1이라는 유례없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분양시장도 뜨거웠다. 부산 장전동에 들어서는 '대미안장전'은 146.2대 1로 올해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을 나타냈고, 대구 '브라운스톤범어'도 141.95대 1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남겼다.

청약시장의 흥행 속에 미분양 물량까지 덩달아 소진되고 있다. 이로 인해 내년 분양시장도 호황을 누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팔 때 팔자'라는 식의 건설사 밀어내기 공급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지방 사업장이 이에 해당한다.

아파트 시장의 호황은 오피스텔 시장에서 투자심리 회복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입주물량이 집중된 지역은 공실률이라는 골칫거리 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입주 예정물량은 올해 공급분까지 합쳐 8만 여실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치열한 임대 전쟁도 예고되고 있다.

아울러 2015년 부동산시장에서는 일부 제도가 바뀐다. 중개보수(중개수수료) 부담이 절반 이하로 낮아지고 내년 봄부터는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에게도 국민주택 등에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또 택지개발촉진법도 폐지될 예정이어서 실수요자나 투자자는 변경되는 제도를 숙지해 놓아야 한다.

박태진 기자 tjippo@

규제 완화·금융 지원... 실수요자 중심 '내집 마련' 기회



아파트 매매시장

내년 아파트 매매시장은 가격 상승 잠재력이 있지만 올만큼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대출제도와 금리인하로 금융 부담이 크게 낮아진 가운데 임대차시장의 불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저성장이라는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이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실질적인 가계소득 증대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제한적 범위 안에서 상승이 나타날 전망이다. 또한 전세시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입주물량이 감소하고 저금리로 인한 월세 전환이 지속되면서 전세물건 부족과 가격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에는 서울 강남4구를 중심으로 재건축 이주예정이 많아 이주 수요에 따른 불안 요소도 문제로 꼽힌다.

◇올해 부동산 규제완화, '일단 긍정적'... 지속력 아쉬워 = 2014년 부동산시장을 되돌아 보면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그 효과로 4년 동안 약세를 나타내던 수도권 아파트값이 상승 반전한 해였다. 서울 2.03%, 경기 1.77%, 인천 1.93% 올랐다. 올해부터 적용된 취득세 영구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세종과 폐지에 이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추진까지 발표되면서 거래량과 매매가격 모두 회복세를 나타냈다.

연초 호조세를 보이던 수도권시장이 2·26 주택임대차시정 선진화 방안 발표로 잠시 냉각되며 세금부담과 임대소득 노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지만 7·24 경제정책 방향과 9·1부동산 대책으로 하반기 수도권은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11월 들어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이다. 시장을 이끌던 재건축 아파트는 예측 불가능한 추가분담금에 대한 불안감과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또는 유예연장), 재건축 조합원 다주택 공급의 후속입법 등을 기다리며 관망하는 수요가 많고, 실수요자 역시 단가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시세보다 싼 금액 물 위주의 거래로 가격 상승이 견고하지는 않다.

지방아파트는 수도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호조세를 보였다. 그중 대구는 2014년 한해 동안 10% 가까이 매매가격이 상승하면서 단기간 가격이 크게 올랐다.

전세가격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모두 상승세가 나타났다. 임대인의 월세 선호가 이어지며 월세 공급이 늘어나는 반면 전세는 신규매물 출시가 줄면서 2014년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5.45% 상승했다.

◇2015년 전셋값 상승 지속, 매매가격 회복세 기대 = 2014년 아파트 매매시장은 잇따른 정부규제 완화로 주택시장 정상화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2015년은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자가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세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주거안정 필요성에 따라 매수 기회를 엿볼 수 있다. 정부정책 가운데 '다답들론'과 같은 저리 대출을 활용하면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수 있다.

다만 투자자까지 수요층이 확대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장기 조정을 경험한 시장이 실수요로 재편되면서 단기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의 실질적인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 무리한 대출은 결국 이자부담으로 돌아와 시세차익이 보장되지 않는 한 투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시세차익보다는 임대수익을 기대한 투자수요자라도 최근 반전세(보증부월세)와 월세 비중이 확대되면서 전월세전환율(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어 실제 임대수익률을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4년 서울 전월세전환율은 5.82%(11월 기준)로 2013년(6.19%)과 비교해 0.37%p 낮아졌다. 이에 따라 여유자금을 활용한 투자수요로 위협성을 낮춘 전략적인 수요가 필요하다고 부동산전문가는 조언했다.

◇내년 새 아파트 입주량 올해와 비슷... 국지적

취득세 인하·양도세종과 폐지 등 매매 활성화 제도적 발판 마련

전셋값 상승세 임대차 시장 불안 무주택 실수요자 매매 전환 기대

서울 신규 입주 ↓ 재건축 이주 ↑ 수도권 물량 확대 세입자에 긍정적

변수가 문제 = 2015년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전국 24만 6923가구로 2014년(25만 8352가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별로는 입주물량 차이가 있어 국지적 지역변수로 작용할 요인이 크다.

수도권은 △경기 7만 221가구(전년 대비 38%) △서울 2만 174가구(전년 대비 45%) △인천 1만 1679가구(전년 대비 12%) 순으로 2015년 입주물량이 잡혀 있다. 서울은 2015년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드는 가운데 재건축발 전세시장의 불안 요소까지 안고 있어 세입자들의 전셋집 구하기는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남 개포지구, 강동 고덕지구, 서초 신반포 등 재건축 단지는 사업 단계별로 이주를 계획하고 있다. 경기도는 하남시, 수원시 등 남부권에서 새 아파트 공급이 늘며 임대차 시장의 완충제 역할이 기대된다.

2014년 '10월 국내 인구이동' 조사 결과를 보면 9월달 국내 이동자 수는 67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6%, 3만 2000명(5.1%)이 증가했다.

수도별 인구이동을 보면 순이동(전입-전출)은 서울 -9122명, 경기 2288명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전세가율이 곳에 따라 70%를 웃돌자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하고 새 아파트가 많은 서울 인근 경기지역으로 주거지를 넓히고 있는 수요자가 늘고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리서치팀장은 "2015년에도 서울은 신규 입주물량 감소와 수요증가로 불안이 예고되는 가운데 경기지역에서 늘어난 입주물량은 세입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지방은 최근 가격이 급등한 대구와 경북,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물량이 늘어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별로는 △부산 1만 9873가구 △경남 1만 8171가구 △세종 1만 7069가구 △대구 1만 3294가구 △경북 1만 2531가구 △충남 1만 1445가구 △전남 9895가구 △울산 9320가구 △전북 8624가구 △충북 8238가구 △강원 5490가구 △광주 5122가구 △대전 3678가구 △제주 2099가구가 내년 입주 예정이다.

김 팀장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조정기를 거치는 동안 지방 아파트 매매시장은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으로 해당지역의 공급량을 우선 파악해 투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태진 기자 tjipippo@

복합문화공간

공연 · 연주회 · 전시 · 런칭쇼 · 세미나 · 웨딩

총면적 12,000 제곱미터의 파티오나인은 50석부터 1,000석에 이르는 다양한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세미나에서 패션쇼, 박람회까지 어떠한 형태의 행사도 가능합니다.

- Performance
- Concert
- Exhibition
- Launch show
- Convention
- Seminar and
- Wedding

PATIO9

Party & Convention
파티오나인

연주회 및 공연, 두타 패션쇼, 삼성전자 신제품 전시, 불거리 향수 런칭쇼, 세미나 및 포럼

국내 최상급의 복합문화공간 "파티오나인"

예약 : T. 02-517-7080-1, 02-517-7070 / www.patio9.com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66-24 파티오나인

오피스텔 매매시장

"투자심리 회복" vs "공급과잉 우려"

입주물량 집중 지역 공실률 늘어 조정 불가... 거래상황 주시

올해 오피스텔 시장은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로 돈 굴릴 곳이 마땅치 않은 수요가 몰리며 일부 지역의 경우 완판 행진을 벌였다. 하지만 여전히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로 이런 호황은 일부 지역에 그쳤다.

2015년 오피스텔 시장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해 향후 거래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저금리 기조와 정부의 잇따른 대책으로 오피스텔 시장에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입주예정 물량이 3만 5714실로 나타나 입주물량이 집중된 지역은 공실률이 증가하는 등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입주예정 물량은 전년 대비 9130실 감소하겠지만 올해 입주물량(4만 4844실)까지 합하면 총 8만여실에 육박해 임대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예정 물량의 63%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3540실), 경기 성남시(2380실), 경기 수원시(2911실)에 입주물량이 많다.

지난 8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0.25% 인하여 이어 10월에는 0.25%를 추가적으로 인하했다. 기준금리 2.00% 시대를 맞아 투자자들의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오피스

텔 임대수익률이 주목 받고 있다.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10월 말 현재 5.73%로 나타났다. 2007년(6.78%) 이후 하락 추세에 있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비하면 3.73% 높은 수치다. 2008년 9월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상승하면서 격차가 1.22%까지 줄었던 적도 있었지만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오피스텔 시장의 과잉공급, 임대수익률 하락 추세 등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시대의 대안으로 오피스텔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저금리로 인해 오피스텔 투자 문의가 늘었다는 의견과 저금리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 공존하기 때문에 향후 거래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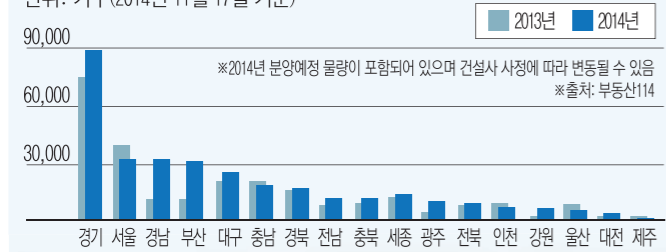
김원진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신규 분양 및 입주물량 모두 전년 대비 증가세를 나타내 공급과잉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가 지속됐다"며 "입주 예정 물량이 몰린 지역은 치열한 임대경쟁과 더불어 기존 오피스텔의 공실 증가 등으로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5년 분양예정 물량이 크게 감소한 만큼 지역 및 단지에 따라 투자기치는 컸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정경진 기자 jungji@

청약문턱 낮춘 수도권 '복직'...공급물량 많은 지방 '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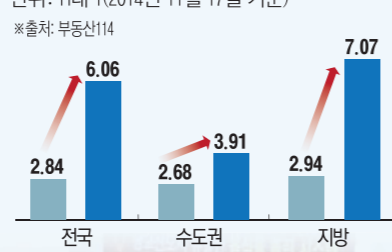
분양시장

올해 분양시장은 최근 몇 년 새 최대 호황을 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다. 건설사들도 목허났던 물량을 풀고 정부의 정책도 지원 사격에 나서며 연말까지 시장에 훈풍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2015년 아파트 분양시장도 7.24, 9.1 등 청약제도 간소화 정책 등의 영향에 힘입어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9.1대책 이후 수요자들의 심리지수가 개선되고 있고 저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투자 수요의 시장 진입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 분양시장은 건설사 밀어내기 공급에 따른 물량 부담감과 2015년 예정돼 있는 24만여 가구의 입주물량으로 하반기 이후 청약수요가 약화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도시별 연간 분양물량 비교



권역별 전년 대비 청약경쟁률 비교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는?

- ✓ 전·월세 중개료 절반으로 뚝
- ✓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
- ✓ 상가임차인 권리금 법적보장

2015년에는 청약제도 간소화, 재건축 규제 완화 등 9·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가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중개보수 개편과 지하철 9호선(2단계) 교통망 개통 등 부동산시장의 굵직한 이슈가 풍성하다.

우선 중개보수(중개수수료) 부담이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 이르면 2015년 초부터 6억~9억원의 주택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비용이 3억~6억원인 집을 임차할 때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가 현행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주택 매매 거래 때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현행 0.9% 이하 협의에서 0.5% 이하로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8% 이하 협의에서 0.4% 이하로 변경되는 것이다.

또한 주택청약제도가 개편돼 2015년 3월부터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 청약 때 국민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3단계로,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2단계로 간소화된다. 입주자 저축 순위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12순위까지 두던 것을 1순위로 단일화하고 서울·수도권 거주자는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시장의 청약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이르면 2015년 4월부터 재건축 가능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 또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구조안전성 평가 E등급

판정)이 있으면 타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이 허용되고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경우 구조적 결함이 아니라도 층간 소음 등의 주거환경이 열악할 경우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2015년 택지개발촉진법도 폐지된다. 또한 2015~2017년까지 3년 동안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이 중단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30년 이상 이어진 신도시 중심의 대량 주택공급 방식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주거 취약가구에 대한 월세 대출이 1월 신설된다. 정부는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는 취업준비생과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저리 월세 대출을 지원하고 기금 대출(비주택 대출) 대상의 보증부 월세가구 대출금리는 기존 3.3%에서 3.1~3.3%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임대차에 한해 '유한책임(비소구) 대출'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유한책임대출은 집값이 하락해도 담보물(해당 주택)만으로도 대출상환 의무를 한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5년 상반기 중 국회 논의를 거쳐 7월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현상보증금 규모와 관련 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5년간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의 권리금을 법으로 규정해 합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권리금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구성현 기자 carlove@

◇2015년 분양시장 청약 기대감 상승=2014년 분양물량(예정물량 포함) 34만2358가구가 공급돼 지난해(28만2943가구) 대비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은 전년 대비 4.4% 늘었고 지방은 34.1% 증가했다. 이는 2003년 35만6362가구 이후 11년 만에 최대 물량이다.

분양시장이 장기간의 침체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규제 완화와 금리인하 등 부동산 호재 때문이다. 정부 정책 변화를 통해 수요자들의 구매심리가 상승했고 투자수요 또한 분양시장으로 돌아와 회복 조짐을 보이며 건설사들이 그동안 미뤄 왔던 사업장을 쏟아내는 분위기다.

지역별로 수도권에서는 13만507가구가 공급됐다. 서울은 전년 대비 15.6%(6173가구) 감소한 3만3387가구 분양되고 경기도는 전년 대비 19.2%(1만4304가구) 증가한 8만8843가구, 인천은 23.9%(2605가구) 감소한 8277가구 공급된다. 지방은 총 21만1851가구 중 경남(3만3158가구), 부산(3만1794가구) 지역의 물량이 풍부했다. 2014년 하반기는 겨울 '비수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분양시장의 열기가 지속됐다.

때문에 청약 열기 역시 뜨거웠다. 올해 전국 청약경쟁률은 6.06대 1로 2013년 2.84대 1 대비 두 배 이상 상승했으며 특히 부산 13.82대 1, 광주 12.7대 1, 대구 10.73대 1 등 지방 분양시장이 청약시장을 견인하며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지방은 부산 '래미안장전' 14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2014년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을 나타냈으며 대구 '브라운스톤범어' 141.95대 1로 그 뒤를

1순위 예치금 납입기간 줄고 다주택자 대한 감점제 없어 서울재건축 이주수요도 가세

올해 부산·대구 영남권 활발 '래미안장전' 146대1 전국최고 내년 하반기부터 열기 식을듯

이었다. 다만 호조세인 분양시장에서도 청약경쟁률은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015년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청약기회 확대'=2015년 3월부터는 수도권 1순위 청약 기간이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기존 수도권에서 1순위 청약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치기간 2년, 혹은 24회 이상 청약예치금을 불입해야 한다. 하지만 예치기간이 1년, 12회 이상 납입으로 단축되면서 1순위 구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됐다. 실제 내년 3월에는 1순위 구좌가 1000만 구좌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외 지역은 현행대로 '6개월 가입, 6회 납입' 조건이 유지된다.

입주자 선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 현재는 통장 순위 외에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저축액 또는 납입 횟수 △부양가족 등의

요건에 따라 총 13개 단계에 걸쳐 입주자를 선정하지만 앞으로는 3단계로 단순화된다.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도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어든다. 1~3순위자 모두 추첨으로 선정하는 85㎡ 초과 민영주택 역시 3단계에서 2단계로 절차가 간소화된다.

유주택자에게도 청약기회를 늘리기 위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를 폐지하며 청약저축·예금·부금·청약종합저축 등 4종류의 청약 통장은 2015년 7월부터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될 예정이다.

1순위 청약기간 완화와 입주자 선정 절차 간소화 등 정부 정책 변화로 예비 청약자들의 청약기회는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청약시장 분위기가 나아지면서 대기수요가 높은 지역의 청약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에는 강남4구를 중심으로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말실 물량 5만8000여 가구의 이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수요자들의 관심은 9.1대책에 따른 청약제도 간소화의 장점이 큰 신규 아파트시장에 몰리고 있다. 이에 수도권 지역의 분양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여도 공급 또한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심리가 과거보다 낮아지면서 전용률, 주거편의, 주거환경이 쾌적한 새 아파트 선호가 강할 것"이라며 "반면 지방의 경우 금용위기 이후 공급부족으로 물량을 쏟아냈던 것이 지역주택시장에 부담감으로 작용해 2014년 대비 감소세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THINKWARE

64GB UHS-I 메모리 공식 지원

안전운행 도우미

전·후방 자동 영상 밝기 조정

브레이크 작동 기록

WDR & Super Night Vision

2중 안심저장 Dual Save

음성인식 시스템

전·후방 SONY CMOS 센서 적용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LDWS

전·후방 Full HD & Full HD 화질

세상이 기대하는 이 모든 기술을 담아



Outstanding, 모두를 압도하다

아이나비 QXD900 View

Full HD & Full HD
전·후방 1080P Full HD 및 720P (2중)에 달하는 고화질 영상 촬영의 안정성

LDWS
주행 중 운전자의 부주의(무의식적)로 인한 차선 이탈을 감지하여 경고음과 함께 차선 이탈 경보를 발생시킴

2중 안심저장
안전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시, 차량의 전·후방 영상을 안전하게 저장하여 사고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음

음성인식
안전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시, 차량의 전·후방 영상을 안전하게 저장하여 사고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음

전·후방 1080P Full HD를 지원하며, 동시 녹화 시 300MB를 초과하여 데이터 용량이 초과됩니다.

QXD900 View에 적용된 LDWS 기능은 주행 중 운전자의 부주의(무의식적)로 인한 차선 이탈을 감지하여 경고음과 함께 차선 이탈 경보를 발생시킴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시, 차량의 전·후방 영상을 안전하게 저장하여 사고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음

수동으로 촬영 종료, LCD 화면 ON/OFF 및 전후방 렌즈를 손으로 덮을 수 있는 기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SONY Exmor CMOS 센서와 WDR기능으로 완벽한 영상 구현

전·후방 카메라 개별 밝기 조정

GPS를 통한 단속지점 안내 '안전운행 도우미' (옵션)

브레이크페달의 사용여부 저장

50년에 걸친 브라운 핸드블렌더 히스토리



◀MQ 7 스마트 스피드 핸드블렌더 'MQ 7시리즈'

세계 최초로 '스마트 스피드(Smart Speed)' 기술을 적용한 핸드블렌더다. 스마트 스피드는 버튼 하나로 핸드블렌더의 속도를 용도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하는 기능으로 세계 누를 수록 빠르고 강한 속도로 블렌딩할 수 있다. 다양한 액세서리를 통해 단순한 블렌딩뿐만 아니라 다지기, 슬라이스, 채썰기, 반죽 등 주방에서 필요한 많은 기능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국내에 출시된 브라운 핸드블렌더 MQ 7시리즈는 '멀티믹 7(MQ735)' '멀티믹 7(MQ745)' '멀티믹 7(MQ775)'로 총 3종이며, 가격은 각각 12만8000원, 14만9000원, 17만1000원이다.

'멀티믹' 무선 전기주전자(WK300)

1.7ℓ용량으로 가정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이다. 수위표시창, 분리형 거름망, 360도 회전받침대를 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디자인은 물이 따라질 때의 자연스러운 물줄기 모양을 형상화했고, 주전자 손잡이의 끝부분이 열려 있는 '오픈 핸들'로 역동적이고 아름다운 제품 디자인이 특징이다. 수위표시 숫자와 전원 버튼은 전형적인 브라운 방식으로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심플하게 제공, 물을 채워 넣거나 끓이는 과정을 잘 볼 수 있도록 구현했다. 가격은 8만6400원.

'카페하우스 퓨어아로마' 커피메이커

브라운의 커피메이커 역시 1970년대부터 디자인과 기술 혁신을 거듭하며 오랫동안 대중적인 사랑을 받은 제품이다. 카페하우스 퓨어아로마 커피메이커는 집에서든 전문가의 커피맛을 즐길 수 있도록 고안했으며, 옵티믹 시스템으로 추출 시간과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 추출된 커피의 맛과 향을 살린다. 또한 간결한 디자인을 적용해 어느 주방이나 공간에도 멋스럽게 어울린다. 인체공학적인 손잡이를 적용해 사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가격은 KF560 모델이 10만2400원, KF570 모델이 11만8400원이다.

'기술력·디자인' 두가지 원칙 소비자 사로잡은 소형가전



1921년 독일서 라디오 부품 제조사
현재 면도기·블렌더·커피메이커 주력
1964년 첫 출시 핸드블렌더 대표상품
'파워벨' 특허 기술로 완벽한 블렌딩
디자인 부서가 개발서 실현까지 참여

"브라운은 소비자를 단순한 제품 사용자가 아니라 신속하고 지적인 파트너로서 존중하며, 생활을 더 편하고, 즐겁게 하는 우수한 제품으로 사용자 요구를 충족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브라운 제품의 혁신적인 '기능'과 '디자인'을 통해 제품의 가치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브라운 수석 디자이너 프릿츠 아이힐러)

브라운은 1921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공방에서 기계기사인 막스 브라운에 의해 설립됐다. 초기에는 라디오 부품을 제조하며 기반을 잡아 나갔고, 1928년 라디오 전제를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독일에서 가장 큰 라디오 제조사가 됐다. 이후 손전등, 오디오 등의 전자제품으로 제품군을 확대해 나갔다.

1951년 막스 브라운의 아들들(어원 브라운, 아서 브라운)이 가업을 물려받아, 수석 디자이너인 프릿츠 아이힐러와 함께 본격적으로 사업을 이어갔다. 그들은 브라운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 생활에 편의를 제공해 더 나은 일상이 되도록 기여하는 것을 운영가치로 삼았다. 1970년에는 주방가전과 면도기, 커피메이커 분야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진행했고, 이후 1982년 질레트그룹에 인수합병됐으며, 2005년 P&G에 인수됐다. 현재 브라운은 크게 면도기 등의 뷰티 부문과 핸드블렌더, 블렌더, 커피메이커 등 가전부문의 사업 파트로 분리되어 있다. 2012년에는 드롱기그룹이 P&G에서 브라운 가전부문 사업을 인수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소형 가전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독일의 기술력(German Engineering)과 '디자인(Design)'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원칙으로 회사 운영은 물론 모든 제품 제조에 가장 중요한 정신으로 반영하고 있다.

설립 이후 30년간의 제조기반으로 탄탄한 기술력을 확보한 브라운은 제품의 우수한 내구성을 인정받았고, 전례 없는 혁신적 제품들을 창출해 왔다. 1940년대에 첫 번째 면도기를 출시했고, 1956년에는 첫 레코드 플레이어를 선보였다. 1957년에는 키친머신 및 믹서기를 출시했고, 1984년 커피메이커를 시중에 내놨다.

1950년대에는 산업화의 영향으로 대량 생산 제품이 쏟아져 나왔던 시기다. 이에 브라운은 대량 생산되는 제품으로 느껴지지 않는 차별된 디자인을 적용해 시대의 상실감과 소외감을 극복하는 디자인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이를 위해 디자인 부서가 제품 개발부터 실현 단계까지 활발하게 참여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러한 새로운 접근은 브라운을 디자인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바탕이 됐다. 브라운은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iF 디자인 어워드 등 1957년 이래로 100여 개의 디자인상을 수상하면서 그 명성을 이어나갔다. 최근에는 MQ7 핸드블렌더가 2014년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브라운 연혁

1921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작은 공방에서 시작
1970년	주방가전, 면도기, 커피메이커 등의 사업에 초점을 맞춤
1982년	Gillette Group 인수 합병
2005년	Procter & Gamble(P&G)에 인수
2012년	드롱기그룹, 브라운 소형가전사업 인수

◇브라운의 철학을 담은 스테디셀러, 핸드블렌더 = 브라운하면 핸드블렌더가 떠오를 만큼, 핸드블렌더는 브라운을 대표하는 제품이다. 브라운의 핸드블렌더는 수년간 세계 판매 1위(GfK Data 주요 47개국 기준)를 유지해오며, 우수한 품질과 내구성으로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1964년 첫 핸드블렌더가 출시된 이래로 브라운은 지난 50여년간 한층 더 나은 혁신적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처음 30년간은 오늘날 핸드블렌더의 두 가지 주요 기술인 더욱 작고 강력한 모터와 칼날과 폼체를 감싸는 하우징(Housing)에 대한 노하우를 쌓았다.

이후 10년 동안은 그림감과 더 나은 재질에 관한 연구, 분리 가능한 폼체 그리고 유기적 생동감이 강조된 제품 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개발을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브라운의 핸드블렌더는 브라운 주방가전부문의 핵심 제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물론,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브라운 핸드블렌더만의 강점은 바로 특허받은 파워벨(Power Bell) 기술과 강력한 고성능 모터다. 초강력 스테인리스 스틸 칼날과 칼날을 감싸주는 브라운만의 독특한 벨 모양 블렌딩 캡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완벽한 블렌딩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음식물이 튀는 것을 방지해 주방을 보다 깔끔하게 유지해 준다. 또한 기술력으로 신뢰가 높은 독일에서 직접 생산하는 고성능 모터를 탑재해 과도한 열립이나 소음이 없으며, 내구성도 강하다.

이선에 기자 Lsa@

식욕감퇴, 위부팽만감, 소화불량에 상쾌·통쾌·유쾌-삼쾌(三快)하게 마시자!

신제품 부드럽게 소화되는 **가스생워천**

6가지 생약과 양약의 이상적인 복합처방으로
소화를 상쾌·통쾌·유쾌하게 해주는 새로운 소화제입니다.

유한양행 액제소화제

■ 유한양행 소비자 상담실 090-024-1188(수신자 요금부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해외사업 '악전고투' 속 LNG 연간 420만톤 확보

한국가스공사

에너지의 항구적 확보는 산업생산의 기반으로 둔 모든 국가의 숙명이다. 선진국의 소리 없는 에너지 전쟁에서 묵묵히 땀을 흘리는 가스공사의 해외사업 현장 또한 그래서 더욱 소중하다.

지난달 25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전용기로 1시간 30분, 다시 버스로 1시간을 달려 도착한 로마 제2가스전은 바로 그런 곳이다.

호주 퀸즐랜드주의 브리즈번에서 550Km 떨어진 산업항구 도시 글래드스톤. 평균 40도를 육박하며 태양광을 막기 위한 긴팔과 생수병 없이는 견지도 못할 이곳에 가스공사가 참여하는 GLNG 육상광구(가스전)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GLNG 프로젝트는 호주 에너지기업 '산토스'가 30%, 프랑스 에너지기업 '토탈', 말레이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페트로나스'가 각각 27.5%, 가스공사가 15%로 지분을 나누고 있다. 2044년까지 운영되며 185억 달러(20조4655억원)가 투자됐다. 가스공사는 38억5000만 달러(4조2592억원)를 투입했다.

육상광구 상류에는 경기도 면적(1만184㎢)의 3배에 달하는 로마 허브 스테이션(Romaii Hub Station) 가스전이 자리 잡고 있다. 가스공사는 지분 15%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 현재까지 총 1조6089억원을 투자한 상태다.

현재 호주는 비전통가스(CBM) 4곳과 전통가스(천연가스) 4곳 등 총 8곳의 가스전을 개발하고 있다. 비전통가스와 전통가스의 차이는 각기 다른 생산과정을 거친다는 점이다.

가스공사는 이 가운데 GLNG 가스전(15%)과 프렐류드(10.0%), 현재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블루에너지프로젝트(5.74%) 등 전통가스전과 비전통가스전 두 종류 모두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GLNG 가스전은 땅에서 가스를 뽑아내는 최초의 석탄층 가스(CSG) 방식이 채택됐다. CSG 사업은 호주의 풍부한 석탄층에서 천연가스를 추출해 LNG로 변환한 후 수출하는 세계 최초의 비전통 가스방식이다.

호주 사업의 진행과정은 악전고투의 연속이었다. 투자비가 예상보다 1조4000억원 가까이 늘었고 상업생산 시기도 올해에서 내년으로 늦춰졌다. 특히 예상외의 우기를 동반한 기후와 현지인력들의 더딘 작업 속도는 현지 법인의 악재로 다가왔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힘들게 했던 것은 국내 여론의 '부실 해외자원 투자'라는 비판이었다. 장기투자가 필수적인 해외자원 개발에서 투자시기에 손익을 따지는 것 자체가 '한국의 안정적인 자원확보'를 자부심으로 달려왔던 가스공사 직원들의 힘을 빼지게 했다. 이 같은 지적 속에 가스공사는 부채 감축을 위해 GLNG 프로젝트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가스공사가 참여한 GLNG 프로젝트



호주 GLNG 프로젝트의 마크 스티븐스 로마 제2가스전 허브 총괄 매니저(오른쪽)와 권오정 한국가스공사 호주법인 차장이 지난달 25일 로마 제2가스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호주 로마 제2가스전 개발사업 참여

내년 7월 첫 상업생산...연 350만톤 수입

"에너지 자립·자원안보 도움 기대 커"

인니 동기 세노로 LNG사업도 성과 보여

내년 4월 본격 가동...연 70만톤 수입

는 현재 공정을 88.2%를 기록 중이다. 또한 내년 7월 첫 상업 생산을 앞두고 있다. 연간 700만톤 중 350만톤을 국내로 들여올 예정이다. 이는 국내 연간 가스소비량인 4000만톤의 8.75% 규모로, 한국가스공사가 2011년 GLNG 프로젝트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린 지 4년 만이다. 나머지 350만톤은 말레이시아로 옮겨진다. 맹주호 가스공사 호주법인 부법인은 "투자 결정 시보다 호주 환율 인상과, 3년간 유례없는 흉수까지 겹치면서 비용이 높아지고 공기도 지연됐지만 결국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업생산에 들어가 30년 동안 운영되고, 생산량의 절반가량이 국내로 도입된다"면서 "에너지 자립과 자원 안보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가스공사의 해외사업 중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또 다른 현장은 인도네시아에 있다.

가스공사가 일본 미쓰비시상사와 인도네시아 에너지 공기업인 페르타미나(Pertamina)와 함께 인도네시아 북부 술라웨시(Sulawesi)섬 동부 해안에 천연가스 액화 플랜트를 건설해 LNG를 생산·판매하는 투자개발형 사업인 동기 세노로 LNG(DSLNG) 사업이 그것이다. 수요처는 가스공사, SHUBU 전력, KYUSHU전력으로, 2027년까지 운영기간을 목표로 하며 LNG 생산량은 연간 200만톤으로 추정된다. 가스공사는 전체 생산량 중 35%에 달하는 70만톤을 확보했다.

전체 사업은 일본 미쓰비시상사가 주도하며 지분은 미쓰비시상사 44.925%, 한국가스공사 14.975%, 나머지는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이 보유하고 있다.

사업비는 총 28억 달러가 소요될 예정이며, 가스공사는 2억 1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현재 EPC 공정은 99%에 달하며 이달 건설공사 종료로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달 시운전을 마치고 내년 4월에 본격적 가동에 돌입한다.

이를 통해 가스공사는 생산 개시연도부터 13년 동안 매년 70만톤의 LNG를 수입하게 된다. 동기세노로 가스전은 2015년부터 연간 200만톤의가량의 LNG를 쏟아낼 예정이다. 이금우 동기 세노로 기획이사는 "일본의 자본과 한국의 건설기술이 접목된 이상적 협력사업 모델"이라며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비용도, 해외투자 수익 증대, LNG 사업 개발, 액화플랜트 운영 역량 확보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희준 기자 h9913@



가스공사가 일본 미쓰비시상사, 인도네시아 에너지 공기업인 페르타미나와 함께 인도네시아 북부 술라웨시섬 동부 해안에 천연가스 액화 플랜트를 건설해 LNG를 생산·판매하는 투자개발형 사업인 동기 세노로 LNG 시설 전경.

제충호 가스공 호주법인장

"호주 가스개발 프로젝트 아시아 공급처 확보 필수"

단기 이익 아닌 수십년 고려한 사업

"호주 GLNG프로젝트로 가스 개발이 안 됐다면 아시아 공급처를 찾기 어려웠을 겁니다. 호주 개발은 한국에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지난달 24일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기자단을 맞이한 제충호(사진) 가스공사 호주법인장은 호주에서의 LNG 개발 프로젝트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힘줘 강조했다.

제충호 법인은 "2010년 확보된 셰일가스가 동났을 때는 당장 물건 없는 국가가 한국, 일본뿐이었다"며 "당시 가스공사가 가장 먼저 달려간 데가 카타르였지만 카타르에선 일방적 계약만을 요구해 곤란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한국이 택할 수 있는 공급처는 호주밖에 없었고 당시 호주는 다른 셰일가스 국가와 경쟁하던 시기라 저렴한 가격과 좋은 조건에 얻을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현재 가스공사가 퀸즐랜드주에서 추진 중인 GLNG프로젝트는 현지 경제를 활성화해 상호 보완하며 호평받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제 법인은 유가가 고공행진을 기록하던 시기에 마련된 GLNG프로젝트가 유가 하락 속에서도 이점이 있는냐는 질문엔 다소 곤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그는 "유가 하락에 대한 영향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을뿐더러 결국 한계 자원인 석유가 저유가로 고착될 가능성도 없다"며 향후 가능성에 대해 피력했다. 제 법인은 특히 호주의 가스개발 프로젝트와 관련 "이번 프로젝트는 가스공사가 단순 구매자에서 생산과 구매, 심지어 판매의 지분까지 가지게 되는 것이 주요한 포인트"라며 "그만큼 해외 가스 구매에서도 유리한 이점이 안전장치를 가지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제 법인은 "2013년 관련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15년부터 세계 LNG 수요는 매년 6% 증가하며 아시아가 절대적 수요를 차지할 것"이며 "또 5년, 3년 주기로 급증하는 LNG 수요를 고려할 때 LNG에 대한 단순도입이 아닌 개발도입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가스공사가 GLNG프로젝트에 참여한 목적 또한 수입 배의 수익을 냈던 오만이나 카타르의 투자보다 적정 수익률을 기대하며 고유가와 안정도가 약한 LNG 도입에 대한 보험정책의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제 법인은 "호주의 가스개발 프로젝트는 단기적 이익이 아닌 수십년을 고려한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내년 본격 LNG 생산과 수입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국내에도 장기적 안목으로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김희준 기자 h9913@



'법이 복잡해서 하기 어렵데.' '조폭들이 끼어든다고 하던데.' '돈이 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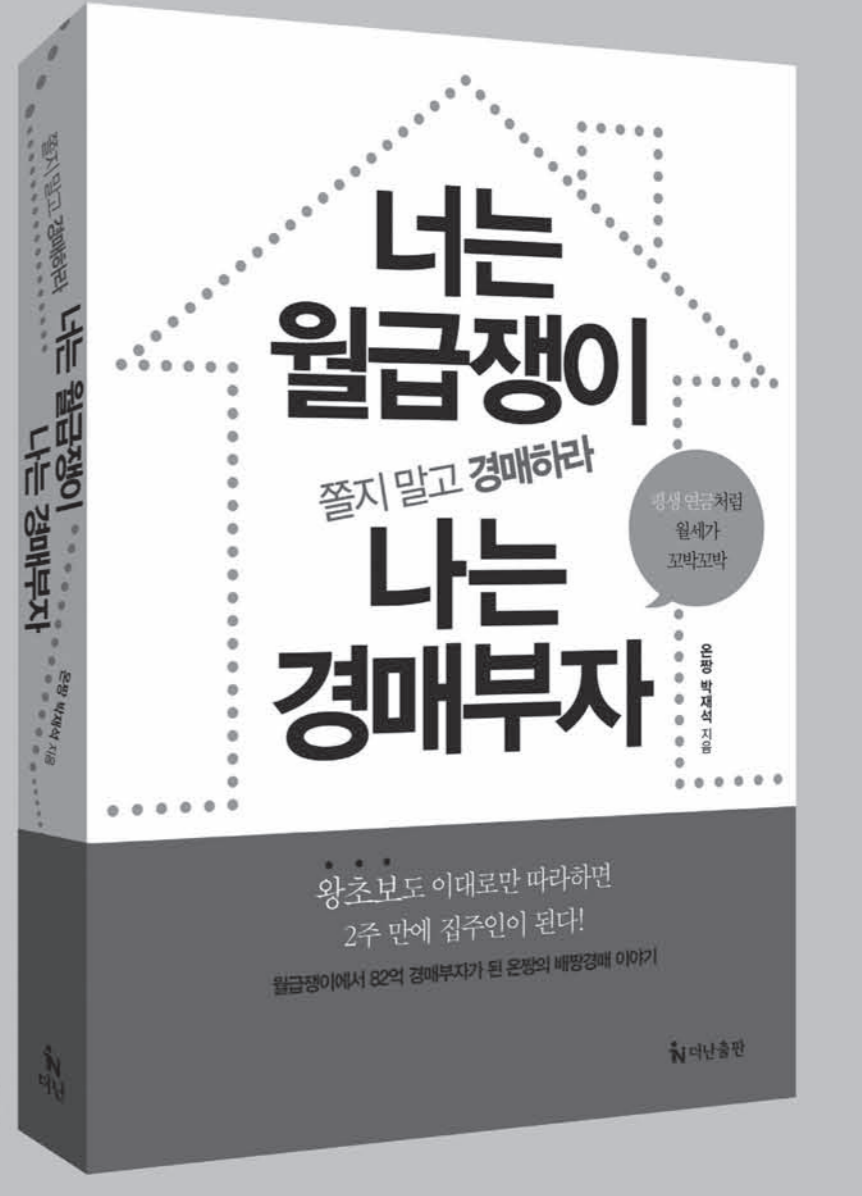
쫓지 말고 경매하라!

월급쟁이에서 82억 경매부자가 된 온짱의 배짱경매 이야기

- ✓ 왕초보도 누구나 할 수 있다!
낙찰에서 명도까지 월세 630만 원 수익의 룸살롱 경매
- ✓ 먼저 상대의 마음부터 읽어라!
까다로운 세입자의 명도 비결? 조폭의 이사비는... 고작 45만 원
- ✓ 내 돈 없이도 당당히 집주인이 될 수 있다!
해결하지 못할 유치권은 세상에 없다. 두 차례의 낙찰로 수익률 115퍼센트의 빌라 획득

다음 카페 "온짱이 하는 경매 이야기"에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온짱.kr

온짱 박재석 지음 316쪽 | 15,000원





18일 상장...청약 흥행돌풍 '삼성SDS' 바통 이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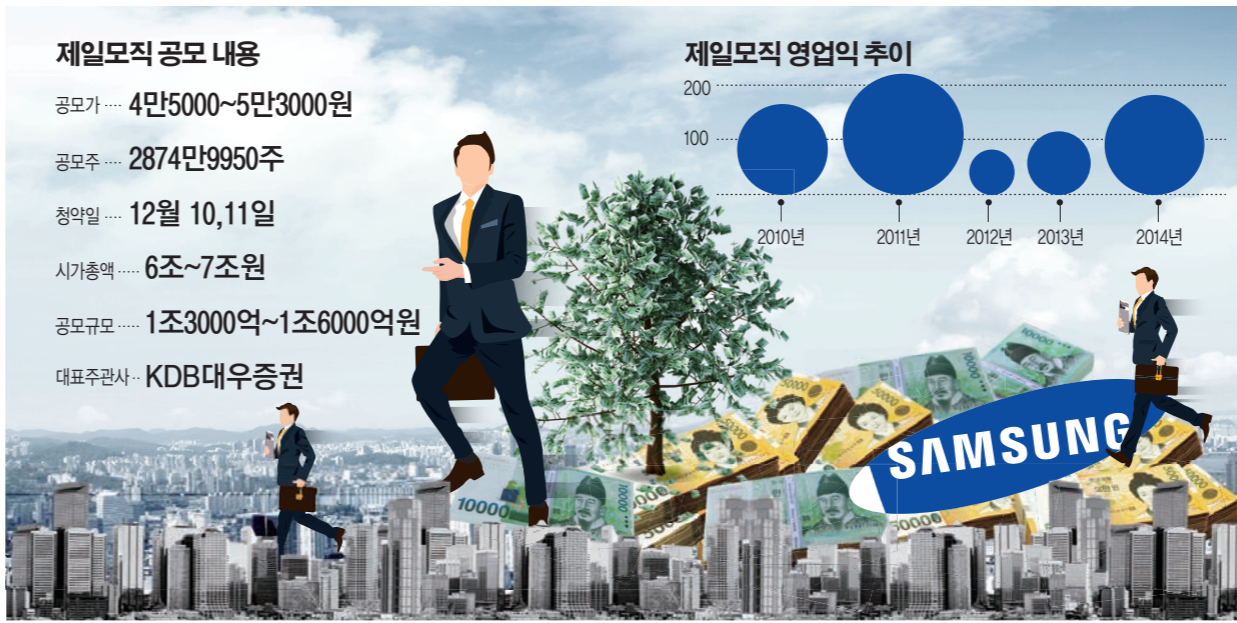
이번엔 제일모직...공모전쟁 막을랐다

올 마지막 IPO 대어 기대감
"목표주가, 예상공모가 2배"
그룹 지배구조 핵심기업 '주목'

오는 18일 상장하는 제일모직에 대한 투자자와 금융투자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상장 '대박'을 터뜨린 삼성SDS의 뒤를 이을 수 있을 것인가 기대감 때문이다.

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제일모직의 목표주가를 9만1000원으로 제시했다. 희망 공모가 밴드 4만5000~5만3000원의 거의 2배에 육박하는 주가로 제일모직의 목표가를 제시한 증권사 중 가장 높다.

박중선 키움증권 연구원은 "제일모직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기업으로 실적과 보유자산 가치로 시장에서 주목받을 것"이라며 "그룹 3세가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제일모직의 기업가치 증대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제일모직의 전신은 삼성에버랜드로 지난해 9월 구 제일모직의 패션 부문을 인수한 뒤 지난 7월 사명을 삼성에버랜드에서 제일모직으로 바꾸었다. 상장 이후 지분율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24%, 이부진·이서현 사장이 각각 7.75% 등이다.

키움증권보다는 낮지만 타 증권사들 역시 제일모직의 목표주가를 희망 공모

가 밴드보다 훨씬 높게 잡았다. KTB투자증권이 7만원, 하이투자증권이 7만 7112원을 제시한 것. 이는 공모 희망가 상단보다 30% 이상 높은 수준이다.

오진원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 영업가치의 성장 모델은 제한적이거나 향후 보유자산의 활용도 측면에서 사업 성장축 변화의 여명이 있는 기업으로 판단된다"며 "그룹 지배구조의 최상

단에 위치한 회사로 장기적인 기업가치 성장 기대감은 유호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일모직은 3일과 4일 이틀 동안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해 최종 공모가를 확정한다. 공모가 예상 범위는 4만5000~5만3000원이다. 일반공모 청약은 이달 10-11일 진행될 예정이다. 문선영 기자 moon@



성장사다리·企銀·한과기 기술금융투자 업무협약

펀드 조성 출자 등 협력키로

성장사다리펀드 사무국은 중소기업은행, 한국과학기술지주 주식회사와 중소기업은행 본점에서 '기술금융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고 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그간 은행권 대출에 편중된 기술금융을 투자영역까지 확대해 투자방식의 기술금융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지난 8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조기에 조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란, 기술신용평가(TCB),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평가 인프라를 활용해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전용 펀드다.

이를 위해 이번 업무협약에서는 △펀드 조성을 위한 출자 △펀드 공동설계 △딜소싱(Deal Sourcing) 및 기술·자금 지원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영덕 성장사다리펀드 자문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우수 기술기업의 투자금융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금조달·기술사입 등 기술기업이 직면한 경영으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기술평가(TCB·기술가치평가 등) 활용 분야의 다변화를 통해 기술금융 인프라 확충에도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아 기자 kakim@

하나대투증권, 소외계층 향한 재능기부...

사랑과 나눔 그리고 '樂'

작년 이어 두번째 콘서트 열어
공연 수익 전액 결연시설 후원

하나대투증권은 지난 2일 하나대투증권 여의도 본사 한마음홀에서 사내 록(ROCK) 동호회의 '제2회 사랑과 나눔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콘서트는 하나대투증권이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설원복지재단 안양읍집, 영등포 푸른공부방, 상계 사랑의집을 비롯한 총 7곳의 노인, 아동정년 사회복지시설을 후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하나대투증권은 그 동안 연말 바자회를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소외계층을 지속적으로 후원해 왔다. 지난해에는 임직원들

의 재능기부를 활용한 새로운 형식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제1회 사랑과 나눔 콘서트'를 개최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콘서트를 기획한 것이다.

2012년 록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이 만든 하나대투증권 사내 동호회의 이름은 'E-BAND'로 팀의 리더이자 보컬과 기타를 맡고 있는 Sales&Trading총괄 전무(이진혁)부터 2014년 입사해 키보드를 맡고 있는 신입사원까지 다양한 계층의 임직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콘서트 현장에는 장승철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초청 고객들이 공연장을 찾아 감동했다. 공연 입장 수익 전액과 동일한 규모의 회사 기부금을 더해 자매결연 시설에 후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장승철 하나대투증권 사장은 "사



지난 2일 하나대투증권 여의도 본사 한마음홀에서 열린 '제2회 사랑과 나눔 콘서트'에서 사내 록(ROCK)동호회인 'E-BAND'가 공연을 펼치고 있다.

랑과 나눔 콘서트는 참여 주신 관객들이 사회공헌에 직접 동참할 수 있고 마음의 행복도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라며 "하나대투증권은 앞서가는 서비스와

상품으로 고객에게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아 기자 kakim@

예탁원 보관 주식·채권 3000조 돌파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과 채권 규모가 늘고 있다.

예탁원은 4일 예탁 보관된 주식과 채권의 시가총액이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이어 올해 현재 3000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올해 10월 말 현재 예탁 비율은 주식이 84.34%, 채권이 96.27%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다만, 전체 발행 주식수의 약 16%, 비상장 주식의 경우 약 35%는 여전히 투자자가 직접 보관하고 있어 예탁제도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예탁원 측은 설명했다.

증권을 현재 직접 보관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예탁원에 증권을 예탁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까운 증권회사를 방문해 계좌를 개설한 후 해당 증권이 예탁가능 증권인지, 사고증권은 아닌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증권회사에 증권을 전달하면 증권회사는 해당 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재예탁한다. 문선영 기자 moon@

"ETN시장 아직 걸음마 거래량 늘려야 활성화"

ETN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변동성 지수 ETN 상장 등을 통해 거래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유안타증권은 ETN 기초자산 특성상 기존 상품 혹은 파생상품과 교차거래가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17일 ETN(Exchange Traded Note) 시장이 개설된 이후 2일까지 일 평균 거래량은 8636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다소 부진한 실적으로 변동성지수 ETN이 상장되지 않아 시장 기대 및 거래 활성화가 쉽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상품의 홍보나 마케팅에서 기존 ETF 시장이나 타 상품 대비 열악한 상황이라는 점도 시장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정 ETN에 투자자들이 쏠리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일중 거래량을 상품별로 살펴보면 특정 ETN에 거래량 거의 전체가 몰려 있는 상황이다.

이중호 연구원은 "아직 시장이 초기이며 따라서 거래량이 쏠리거나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현재의 ETN은 초기 ETF와는 다르게 기존 상품이나 파생상품과의 차이거래가 발생하거나 구조화된 운용을 하기는 어려운 구조라는 측면을 볼 때, 거래량 확충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압도적 1위

반기문 리더십의 실체를 증명하다!

세계를 설득해낸 반전 드라마! 반기문의 유엔 7년을 밀착 취재한 단 하나의 기록



반기문, 나는 일하는 사무총장입니다

중앙일보 부국장·국제선임기자 남정호 지음 | 396쪽 | 값 16,000원



김영사 TEL: 031)955-3200 www.gimyoung.com 책의 내용에 있습니다.



삼성·LG '퀀텀닷TV' 경쟁에... 엘엠에스 '꿀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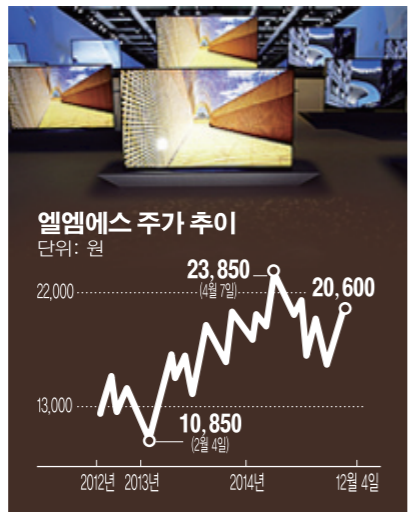
내년 초 CES서 공개... 두 회사에 QD 필름 공급 최대수혜 전망

엘엠에스가 내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퀀텀닷 TV' 덕에 웃고 있다. 엘엠에스는 퀀텀닷 TV에 쓰이는 필름을 만든다.

3월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 전자는 내년 초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소비자가전쇼 'CES 2015'에서 차세대 퀀텀닷 TV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퀀텀닷 TV는 퀀텀닷 필름을 부착해 화질을 개선한 LCD TV다. 명암비·시야각·응답속도 등은 기존 LCD TV와 같지만, 색재현력과 화질을 OLED TV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 특히 생산 공정이 기존 LCD TV와 큰 차이가 없어 설비 투자에 큰 비용이 들거나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OLED TV 시장 진출 시기를 늦추고 있는 삼성전자가 내년 전략 제품으로 퀀텀닷 TV를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3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예산부터 퀀텀닷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하고 있었다"며



"(시장 수요가 안정적으로 확보된다면) 퀀텀닷 TV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LED TV를 차세대 주력 제품으로 내세우고 있는 LG전자도 퀀텀닷 TV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중국 TV 제조사들 역시 퀀텀닷 TV 시장을 노리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디스플레이서치는 내

년 첫 선을 보이는 퀀텀닷 TV의 출하량을 195만대로 예상했다.

퀀텀닷 TV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엘엠에스의 매출도 급증할 전망이다. 엘엠에스는 3M과 함께 퀀텀닷 소재 공급업체인 나노시스(Nanosys)와 독점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 상용화를 준비 중이다.

이 회사는 지난 6월 나노시스의 퀀텀닷 소재를 공급받아 퀀텀닷 필름인 '큐라스(QLAS, Quantum Light Accumulation System)'를 개발했다. 특히 중소형 제품 중심으로 이뤄졌던 기존 프리즘시트 사업과는 달리 퀀텀닷 필름은 중소형 제품뿐만 아니라 TV영역까지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미 '큐라스'의 내년 초 대규모 양산을 위한 투자가 진행 중이며, 현재 공격적인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는 중국 TV제조업체들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영록 기자 syr@

공시 돋보기

녹십자 '뚝심투자' 극적 약발

한때 원금회수 불가 '바이오리더스' 투자 10년만에 26% 수익

계약업체 매출 1위를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는 녹십자가 백신 사업 다각화를 위해 10여 년 전에 지분을 취득한 바이오리더스가 최근 코넥스 시장에 상장돼 투자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한때 투자금 전액을 부실 처리하며 투자원금조차 회수할 수 없는 상황도 맞닥뜨렸지만, 바이오리더스가 기자회견하며 '뚝심 투자'의 결실을 수확할 것으로 기대된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녹십자는 지난달 26일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바이오리더스 주식 56만2858주(지분율 5.81%)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규 보고했다. 바이오리더스는 1999년 12월에 설립된 의학·약학 연구개발업체로, 주로 자궁경부전암 치료백신을 생산하고 있다.

녹십자가 바이오리더스 주식을 최초로 취득한 때는 2005년이다. 녹십자는 당시 AI 백신 공동개발을 통한 상업화 및 백신 사업 다각화를 위해 바이오리더스 주식 40만주를 20억원에 취득했다.

녹십자는 바로 다음해인 2009년에 추가로 바이오리더스 주식 2만주를 600만원에 취득하며 다시금 투자에 나섰지만, 2010년에는 투자금 전액(손상차손)을 부실로 털어냈다. 이로써 녹십자는 바이오리더스에 대한 투자원금조차 회수할 수 없게 됐다.

그럼에도 녹십자는 바이오리더스 지분을 계속 보유하면서 2011년 6월에는 추가로 14만2858주를 5억원에 취득했다.

녹십자가 세 번째로 바이오리더스에 투자한 지 3년 만에 이 회사는 코넥스에 상장하며 순항하고 있다. 현재 바이오리더스의 주가(3일 증가 기준)는 4400원으로 녹십자가 보유 중인 주식의 평가가치는 24억7658만원 가량이다. 2011년 투자 당시 평균 주당 취득가격이 약 3500원임을 감안할 때 녹십자는 지금까지 26%에 달하는 투자수익을 올리고 있다.

녹십자 관계자는 투자배경에 대해 "연구개발(R&D) 시너지를 기대하고 투자를 계속 보유하면서 2011년 6월에는 추가로 14만2858주를 5억원에 취득했다"고 말했다.

강인호 기자 kangih@

SGA, 빅데이터 보안 '미다스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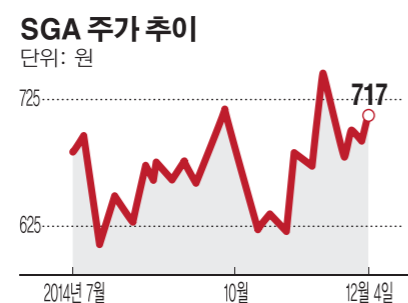
공공기관 국책사업 이어 대기업에서도 관심 높아

국내 보안 업체 중 유일하게 빅데이터 국책사업에 참여한 SGA가 성공리에 국책사업을 마치고 추가적인 공공기관 빅데이터 사업을 모색 중이다.

3일 SGA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빅데이터 사업을 10월20일에 마쳤다"며 "추가적인 빅데이터 보안 사업을 위해 공공기관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금까지는 빅데이터 사업을 공공기관에서만 하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대기업들도 빅데이터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SGA는 지난해 보안 업체 중 유일하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주관하는



'악성코드 프로파일링 및 대응용 보안이벤트 분석을 통한 공격징후 탐지 기술 개발' 국책과제를 수주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유지원생 안심지원 빅데이터 사업을 수주해 지난 달에 마쳤다. 빅데이터 사업으로 국책사업과 공공기관 사업을 잇따라 수주한 SGA는 올해 들어서는 IBM과 빅데이터 보안 사업분야에 공동진출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사물인터넷 흐름에 따라 정부 위주의 빅데이터 사업에 대해 대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대표이사직속으로 빅데이터 조직을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SGA의 성장성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기존 보안 사업에서도 좋은 실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먹거리 사업인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보안 솔루션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SGA는 올해 보안업체 중 가장 좋은 실적으로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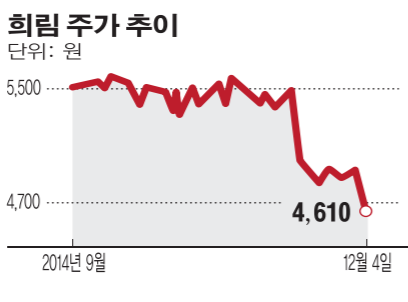
SGA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존 보안 사업 이외에 SR사업 등 추가적인 사업이 잡혀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다"며 "빅데이터 관련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희림, CM사업 아프리카 첫 진출 건설관리용역 26억 수주 신시장 개척 교두보 역할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희림)가 외교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으로부터 '아프리카 지역 건설사업관리(CM) 용역'을 약 26억원에 수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코이카가 개발도상국과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일환으로 발주한 것으로, DR공고 키치니 농촌개발사업, 앙골라 수산자원조사 역량강화사업, 세네갈 고등직업훈련학교(ISEF) 설립사업, 나이저리아 초중등시범학교 단지건설사업, 알제리 새우양식장 건설사업 등 총 20건의 건설사업이 포함돼 있다.

희림은 이번 계약에 따라 2016년 12월 까지 DR공고, 세네갈, 나이저리아, 알제리 등 3개지역 9개 국가에서 수행되는 프로젝트를 맡아 사업발굴, 사전조사, 설계관리, 시공관리, 건축매뉴얼 작성 등 건설사



시장 진출에 성공한 건축설계부문의 시너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희림 관계자는 "올해 공격개발원조(ODA) 분야에서 연이어 CM 용역을 수주함으로써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수원국이 질실히 필요로 하는 부분을 파악하고, 현지 실정에 맞는 맞춤형 공적개발원조 플랫폼 구축을 통해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희림은 2010년 '해외건설 플랫폼의 날' 성공적인 해외 CM 시장 진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국내외 대형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등 우수한 CM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송영록 기자 syr@

한라비스테온 "혁신기술 개발... 올 수주 14억달러 기대"

자동차 열관리 솔루션 공급회사인 한라비스테온공조는 자동차의 디자인 및 냉난방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혁신기술 개발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4일 밝혔다.

한라비스테온공조가 선보인 'HV iCool'은 HVAC와 컴프레서, 컨덴서를 하나로 결합한 최초의 통합 공조 시스템이다. 냉난방 시스템을 자동차 엔진룸에 배치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차량 운전석 아래나 트렁크 등 자유롭게 위치 가능하기 때문에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특

히 기반의 이 기술은 특히 전기차에서 큰 장점을 발휘한다. 전기열 발생량을 감소시키며 주행거리는 최대 30%(섭씨 20도 기준)까지 향상시킨다.

박용환 한라비스테온공조 대표는 "한라비스테온공조는 HV iCool과 같은 신규 제품 출시를 통해 현재 및 미래의 시장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4년도를 우수한 실적으로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다양한 분

야에서의 발전 및 신규 사업 기회도 모색하고 있다"며 "향후 2-3년간의 성장동력을 미리 확보한 만큼, 빠른 속도로 자동차 시장에 새롭게 혁신적인 제품을 빠른 속도로 출시하며 고객과 투자자를 위한 가치 창출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라비스테온공조는 신규 수주에 집중적으로 늘어 2013년 대비 약 17%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데다 재수주까지 합쳐 12-14억 달러의 수주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유진 기자 eugene@

중 홈쇼핑서 금방울 단 '쌍방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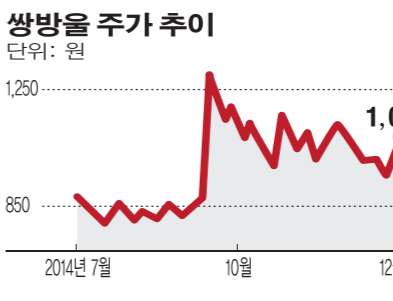
유고홈쇼핑, 추가방송 제안

쌍방울이 중국3대 홈쇼핑 중 하나인 유고홈쇼핑에서 본격적인 내외판매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쌍방울 관계자는 "중국 3대 홈쇼핑 중 하나인 유고홈쇼핑 측에서 먼저 추가방송을 제안했다"며 "이번엔 남성 드로즈팬티뿐 아니라 당시의 주력상품인 동내의 방송도 함께 계획하고 있고 방송은 12월 중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중국 유고홈쇼핑에서 새롭게 선보일 제품은 중국인이 선호하는 모달발열내외로 너도밤나무에서 추출한 원료를 사용한 자연친화적 소재로 매끄러운 촉감뿐 아니라 보온성이 뛰어난 기모를 사용한 제품으로 기획·구성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특히 쌍방울은 9월말 중국 유고홈쇼핑 방송을 시작으로 두번째 방송에서부터 완관을 기록, 성공적인홈쇼핑 진출에 이어객 단가가 높은 내외판매 소식으로 본격적인



매출증가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상화 쌍방울 중국유통사업본부 부장은 "12월초 중국 유고홈쇼핑 MD들과의 제미팅을 통해 연간방송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현재 추가로 타 홈쇼핑 채널과 계약을 위해 법률조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쌍방울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올 3분기 매출 348억원, 영업이익의 6억원을 달성하기도 했다. 전반적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작년 3분기 대비 누적 영업이익이 약 10%가량 증가했으며, 순이익 또한 3억5000만원 증가한 것이다. 설경진 기자 skj78@

바이오이즈, 5대암 임상사업 계획 승인

코스닥 상장사 바이오싸인의 계열사인 바이오이즈는 삼성의료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로부터 대장암, 위암, 유방암, 전립선암, 췌장암 등 5대암 임상시험계획을 승인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임상시험계획 승인은 바이오이즈가 개발하고 있는 유전자 DNA 분석기인 암타마 기반의 암진단키트 KFDA 인허가를 위한 임상이다. 빠르면 이달부터 임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삼성의료원 일부 의료진과 수년간의 국책과제를 통해 의미 있는 임상결과를 보유하고 있어 식약청 인허가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의 소마로직사가 이 분야에 선두기업으로 미국 현지 내에서 성공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FDA허

가를 득한 제품은 없다. 소마로직은 올 6월 SKT와 암타마를 활용한 차세대검진 서비스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SK텔레콤으로부터 피인수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국내에 알려진 기업이다. 바이오이즈는 현재 진단에 활용하는 암타마 1149개를 확보하고 있고, 이는 경쟁사인 소마로직이 활용하는 암타마 수와 비슷한 수치다. 또 지난 수년간 제품 개발 기간 동안 암타마 기반의 약 3000여개의 임상시험을 통해 그 정확성과 유효성을 검증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바이오이즈는 다중진단기술을 활용, 암과 심혈관질환, 간질환, 폐질환 뿐 아니라 희귀질환인 투게릭, 파킨슨 병 등 조기진단이 불가능했던 영역에까지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송영록 기자 syr@



대만 흥린 '꽃보다 할배' 날개 단 '드래곤플라이'

대만에서 방영 중인 예능 '꽃보다 할배'의 인기로 힘입어 드래곤플라이의 모바일 게임 '꽃보다 할배'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게임은 대만 현지 퍼블리셔와 손잡고 출시할 계획으로 드래곤플라이는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4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드래곤플라이는 대만에 모바일 게임 '꽃보다 할배'를 수출하며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대만에서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할배'는 시청률 10%를 기록하며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다. 지난 9월 대만과 홍콩에 수출된 꽃보다 할배는 대만 최대 케이블 방송국인 EBC를 통해 방송되고 있다. 한국 드라마 콘텐츠가 활발하게 수출되고 있는 아시아 주변 국가에서 인기몰이를 하며 콘텐츠 수입에 관한 논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대만의 퍼블리셔는 꽃보다 할배를 모바일 게임으로 재탄생시킨 작곡이자 여행용 콘셉트 한 캐주얼 보드게임에 관심을 갖고 드래곤플라이에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꽃보다 할배를 이용한 콘텐츠 제작에 대한 대만 현지 업체의 의지와 드래곤플라이의 모바일 게임 해외 진출 전략이 맞물린다면 계약이 진행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대만시장은 모바일 게임 업체들의 1차 수출전략지로 꼽히고 있다. 엠게임, 헨센 등도 현지 업체와 손잡고 대만에 게임을 출시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게임업체가 잇따라 대만 진출에 적극 나서는 것은 한국 게임 선호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가입자당 매출액(ARPU)이 국내보다 높아 매출 수십 억원대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매력적인 마케팅기 때문이다. 전체 인구 2300만명 중 1700만명이 네이버의 글로벌 모바일 메신저 라인에 이용하고 있어, 라인을 통한 게임 출시도 성장세에 도움을 주고 있다.

문화적으로 한국 상황에 가깝고, 국내 온라인게임사들과 두터운 파트너십을 갖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 있다. 진출이 까다로운 중국 시장의 테스트베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국내 업체들이 선호하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정유현 기자 yhssoo@



신리와 행복의 동반자, 한·아세안 공동 발전과 번영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대를 여는 비약적 발전

K9 QUANTUM 탄생

V8 5.0



The Power to Surprise

V8 5.0 엔진 탑재



*엔진 라인업: V6 3.3 / V6 3.8 / V8 5.0

리얼우드, 퀴팅시트 프리미엄 인테리어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쉽고 편리한 시승 서비스
KIA DRIVING CENTER

- 전국 18개 센터 운영(서울, 부산, 광주 등 주요 도시)
- 연중 상시 이용 가능 (설, 추석 등 일부 공휴일 제외)
- 수입차와 비교 시승 가능 (일부 센터 제외)
- 모바일로 쉽고 빠르게 예약 가능

www.kia.com
구매문의 1588-1100
고객센터 080-200-2000

기아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고객님의 신뢰를 지키겠습니다.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K9 V6 3.3, 3.8 GDI 18인치 타이어 자동 8단: 복합 연비 9.8km/l (도심 연비 8.1km/l / 고속도로 연비 12.3km/l) | 배기량 3,342cc | 공차중량 1,920kg | 복합 CO2 배출량 186g/km - 4등급 >K9 V6 3.8 GDI 19인치 타이어 자동 8단: 복합 연비 9.4km/l (도심 연비 7.9km/l / 고속도로 연비 12.0km/l) | 배기량 3,778cc | 공차중량 1,940kg | 복합 CO2 배출량 192g/km - 5등급 >K9 V8 5.0 GDI 19인치 타이어 자동 8단: 복합 연비 7.6km/l (도심 연비 6.3km/l / 고속도로 연비 9.9km/l) | 배기량 5,038cc | 공차중량 2,105kg | 복합 CO2 배출량 238g/km - 5등급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행위,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후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사양구성은 차급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KIA의 신형 맞춤형 인텔리전스 서비스
Smart Q Service
원격차량진단 서비스 (www.kia.com/remote) (전화문의: 1588-1100)